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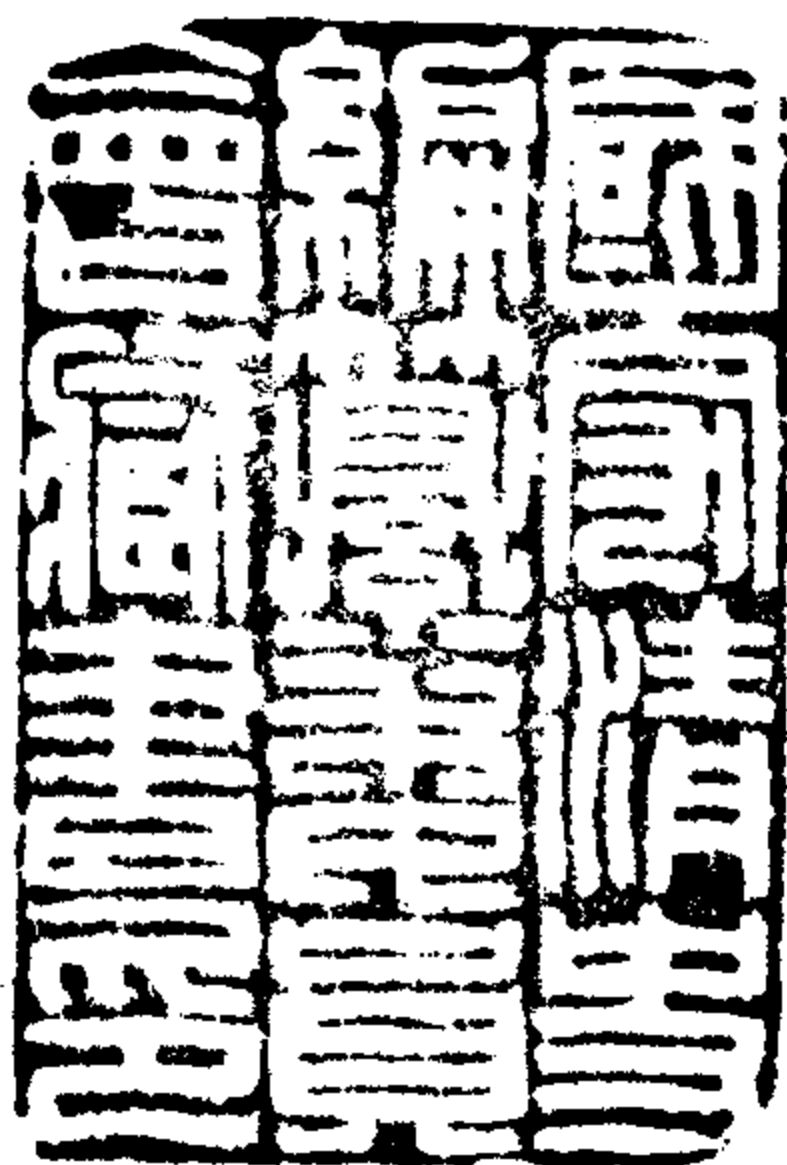
K248.06.312/1

008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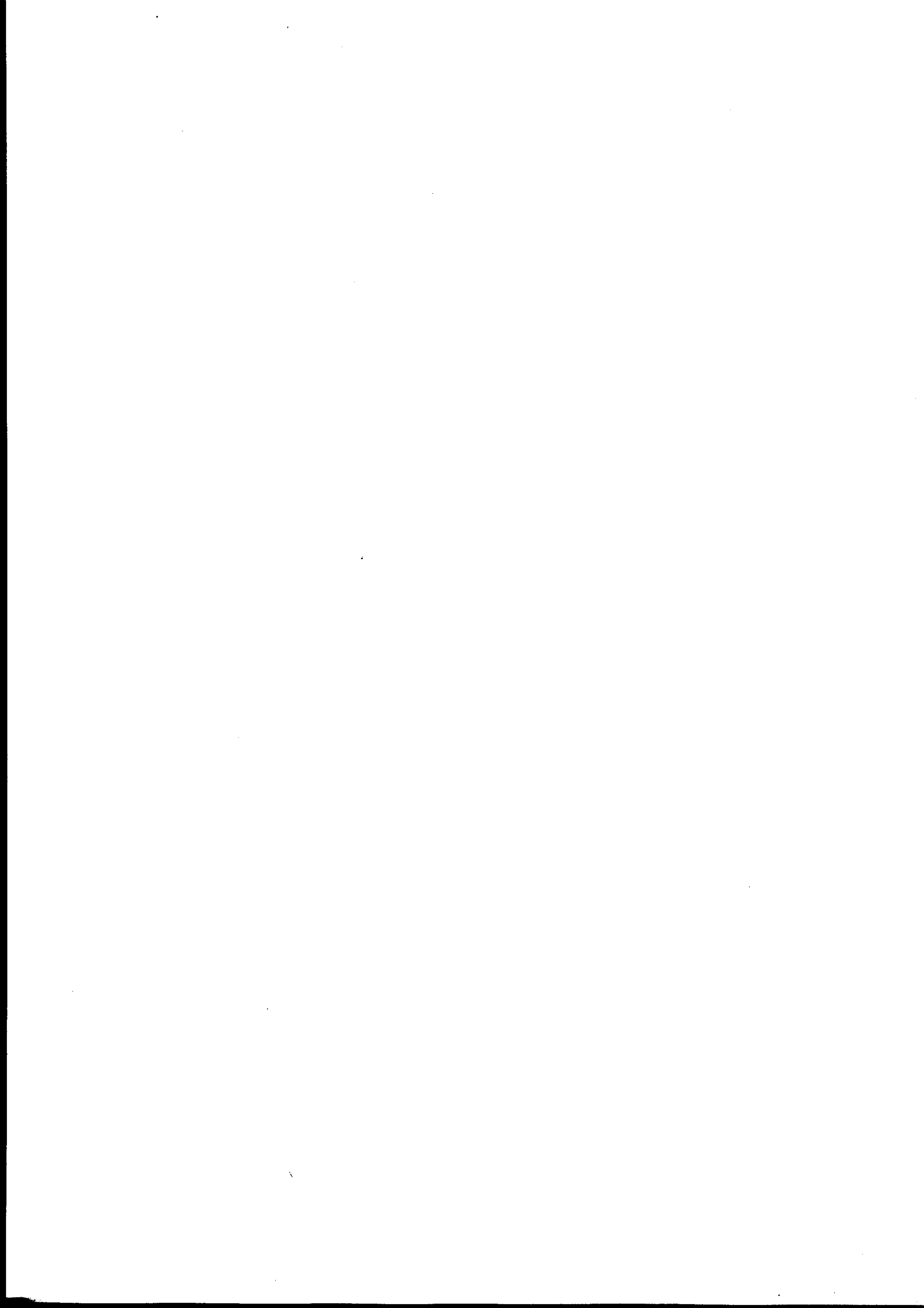
林基中編

燕行錄全集

90



東國大學校出版部



燕行錄은 韓國의 외교사절들이 明나라와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았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記錄遺産이다.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것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래서 흔히들 朝天錄과 燕行錄이란 用語를 그렇게 辨別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도 있다. 그러나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記錄에도 燕行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어서 이 책의 이름을 『燕行錄全集』이라 붙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이 책은 韓國人이 元과 明과 淸朝에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은 中國使行錄全集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가령 이전 王朝의 記錄도 이 全集의 수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中國使行錄은 中國人의 使行錄으로 誤認될 素地도 있어서 燕行錄이란 이름이 無難할 것으로 여겨진다.

燕行錄은 高麗末부터 朝鮮末까지 五百餘年 동안 韓國人들이 外交的인 通路로 中國에 나가서 보고들은 見聞과 先進文物에 대한 體驗들을 自由롭고 創意性 있게 記錄한 것이다. 여기에는 韓國과 東亞細亞, 東亞細亞와 世界外交의 力學關係, 公式 非公式의 國際貿易과 經濟的 狀況, 多様な 文化交流의 尖端 學術交流 등 아주 多様하고 많은 情報의 양이 生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박혀 있다. 따라서 東亞細亞 어느 分野의 研究에서도 參考하지 않을 수 없는 尙大한 記錄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 全集의 編者인 林基中 教授는 우리 대학 國語國文學科에서 梁柱東 教授님의 指導로 鄉歌를 研究한 분이다. 이 분은 母校의 教授로 있으면서 이미 몇 가지 學界가 注目할만한 일을 해낸 바 있다. 우리 대학의 支援으로 中國 北京大學에 專家教授로 가서 實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廣開土王碑 原石拓本 4種을 찾아내어 그 碑文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一百餘年 동안의 昏迷를 거듭해온 東亞細亞 學界에 새로운 研究地平을 열었으며, 얼마

전에는 韓國의 歌辭文學原典을 모두 모아 『歷代歌辭文學全集』 全 50卷을 펴낸 바 있다. 이 作業은 우리 대학과 韓國政府의 支援을 받아 韓國歌辭文學 註釋研究로 계속 進行되고 있어 머지않아 學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燕行錄全集』은 國內外에 散漫하게 흩어져 있어 그 全貌나 實體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資料들을 林教授께서 30年 가까이 執拗하게 蒐集하여 이를 整理해낸 東亞細亞關係史料의 한 集大成이다. 이 全集은 그 編輯期間만해도 一年六個月이나 所要된 巨帙이다. 이것을 우리 대학이 開校 百周年을 앞에 두고, 全 100卷의 全集으로 出版하여 東亞細亞 學界에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榮光된 일이며, 東國學統의 底力을 새삼스럽게 確認할 수 있는 快舉가 아닐 수 없다. 이 全集에 漏落된 것은 林教授께서 私費出版으로도 續編을 펴내 마무리할 意志를 가지고 準備를 繼續하고 있으므로 不遠 그 뜻이 成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現在 世界는 人文學의 危機라는 또 다른 도전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論理 속에서 韓國人文學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그 든실한 土臺 마련을 하면서 새롭게 出發할 必要가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그러한 側面에서도 世界 學界에 여러 모로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經濟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韓國과 東亞細亞 學界를 위해서 이 全集을 세상에 내놓기로 勇斷을 내린 것이다. 아무쪼록 이 全集이 韓國은 물론이고 東亞細亞와 世界 學界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01年 8月 10日
東國大學校總長 宋錫球

人文學은 探究의 對象이 自由롭고 廣範하다。人文學은 知識을 삶의 直接的 手段으로 應用하려는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과는 달리 知識이 그런 實用性에서 無限히 自由로 위질 수 있게 하려는 學問이다。人文學은 豐富한 對象을 통해서 생각하기, 말하기, 글 쓰기, 行動하기를 重視하는 學問이다。 생각하기의 靈感性과 多樣性, 말하기와 글 쓰기의 體系性,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行動하기는 삶의 質을 높이고 人間 社會를 圓滑히 돌아가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따라서 人文學은 人間의 삶을 支撐하는 土臺라는 側面에서 볼 때 恒常 基礎學問이라는 本質的 屬性을 가지고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韓國 人文學의 土臺가 되기에 充分한 資料의 하나이다。

燕行錄은 朝鮮王朝 5百年 동안 韓國과 中國 사이의 交涉關係를 自由롭게 記錄한 우리 民族의 記錄遺産이며 당시 韓國과 東亞細亞, 韓國과 世界 여러 나라와의 交流에 關한 가장 彪大한 記錄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文學과 哲學, 文化와 歷史, 外交와 交易, 學問과 批評 등에 關한 실로 廣範하고 多樣한 記錄의 寶庫이다。

나는 한글보다 漢文을 먼저 배운 世代이다。 내가 처음 文字를 接한 것은 한글이 아니라 漢字였다。 내가 할아 버님께 推句를 배울 무렵에 나는 할아버님께 유충렬전을 읽어드렸다。 推句는 謹嚴한 音聲으로 統制되었으나 유충렬 전은 재미있는 想像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점점 繼續되는 中國文化의 餘震 속에 彷徨하면서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混亂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내가 韓國文學을 專攻하게 된 것은 中國學이 아닌 韓國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韓國人의 생각을 韓國式의 글자로 韓國式의 글 쓰기 方式으로 쓴 文學은 西紀 42年頃의 龜旨歌라는 노래가 처음이다。 그 뒤에 漢字를 빌어서 鄉札 이라는 韓國式 글자로 쓴 鄉歌文學이 나타나며, 이어서 우리 글자로 쓴 한글문학이 나타나 오늘에 이르렀다。 다

른 한편으로는 紀元前 17年 韓國人의 생각을 中國式의 漢字와 中國式의 글 쓰기 方法으로 쓴 黃鳥歌라는 作品이 있다. 이러한 傳統을 잇는 文學이 三國과 高麗를 거쳐서 朝鮮王朝 末까지 韓國人의 생각하기와 글 쓰기 方式의 主流를 形成하여 왔다. 이와 같은 韓國文學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갈래 모두 中國文化와 軋 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韓國文學의 中國影響 問題를 綿密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獨創性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韓·中文學의 影響의 授受關係를 살펴보고 하였다. 文獻記錄을 根據로 論據를 提示할 수 있는 影響의 通路를 찾다보니 燕行錄이라는 큰 鑛脈이 發見된 것이다. 그래서 燕行錄을 調査하기 始作한 것이 1970年代 中반이다. 틈틈이 燕行錄을 調査하여 目錄을 만들고 資料를 모으는 일을 1978年 말까지 繼續하였다. 그 結果 豫想 밖으로 그 量이 尢大하고 몇 년 안에 다 찾아내서 整理할 수 있는 作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낸 資料마다 대체로 前人未踏의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읽는 時間 또한 몇 년 안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恩師님 몇 분께서 學位論文을 提出하지 않고 燕行錄의 世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強力하게 方向轉換을 要請하였다. 燕行錄으로 韓·中文學의 影響 授受關係를 밝혀 學位論文으로 提出하려던 꿈을 不可避 접을 수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처음 構想하였던 順序를 바꾸어 鄉歌研究로 學位論文을 쓰고, 燕行錄研究는 다음 차례의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였다.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그 후 繼續 資料를 蒐集하여 오던 터에 1980年代 母校의 부름을 받고 研究室을 東國大學校로 옮기게 되었다. 木覓山이 바라보이는 研究室에 들어가던 첫날 나는 三希堂이라는 堂號를 만 들어 걸었다. 大學時節부터 構想하였던 세 가지 學問의 바람을 이루어 보려고 發願을 담아서 걸어본 것이다. 세 가지의 發願이란 첫째 새로운 方法의 鄉歌 研究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鄉歌의 正確한 現代語譯, 둘째 歌辭文學의 原典全集 編纂과 그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 셋째 燕行錄 原典全集 編纂과 重要한 燕行錄의 翻譯全集 出刊과 그 研究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成就된 것이 별로 없다. 첫째 것은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와 『우리 의 옛 노래』로 출간되었고, 둘째 것은 『歷代歌辭文學全集』으로 出刊된 바 있으며 進行中인 歌辭註釋作業이 그것

이다. 그중 燕行錄의 研究는 평 대신 담으로 끝날 공산이 가장 커서 이 全集이라도 서둘러 펴내 學界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出版을 決心하였다. 그 동안 枝葉적으로 接近하여 보았던 『燕行歌辭原典 研究』와 『燕行錄研究』는 校訂 중에 있으므로 早晚間 出刊 될 것이다.

燕行錄은 大略 5百餘種이 存在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내가 確認한 것은 400餘種이다. 앞으로 繼續하여 追跡調査를 해볼 計劃이다. 그중 380餘種을 모으는데 걸린 時間과 努力, 經濟的인 負擔과 발 품의 苦痛은 後日譚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몇 년 전에 民族文化推進會에 韓國文集의 影印本 出版을 提案한 일이 있다. 그때 國庫로 影印本을 出版한다고 하여 學界에 否定的인 見解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作業이 韓國 人文學界에 얼마나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燕行錄全集』도 이번 出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障壁들이 隨時로 이 일의 推進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성균관대학에서 출간한 『燕行錄選集』 두 권과 民族文化推進會에서 翻譯 出刊한 『國譯 燕行錄選集』 몇 권이 많은 慰勞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中國과 日本에서 이 全集의 出版이 궁금하여 일부터 찾아와 激勵하여 준 學者들과 國內의 뜻 있는 學者 몇 분의 激勵가 큰 慰勞가 되었다. 특히 韓國의 高柄翊 교수, 李佑成 교수의 指導助言과 黃元九 교수, 朴泰根 교수의 激勵가 많은 힘이 되었다. 中國 北京大學의 樂黛雲 교수, 浙江大學의 金健人 교수, 日本 京都大學의 夫馬進 교수의 激勵도 큰 힘이 되었다. 나와 이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出版하는 『燕行錄全集』이 15世紀부터 20世紀까지 東亞細亞의 一級史料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었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政治·經濟·外交·學術·文化에 관한 가장 自由로운 記錄이며 가장 彪大한 記錄遺産이다. 그리고 燕行錄의 擔當階層은 東亞細亞를 이끌어간 最上層部에 속하는 特殊集團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뿐 아니라 世界에 하나밖에 없는 特殊한 類型의 記錄遺産이다.

이 책이 東國大學校 出版部에서 나오게 된 데는 特別한 因緣이 있다. 1999年 가을 中國 北京大學에서 文學·史學·哲學 分野 韓·中 學術 세미나가 있었다.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께서 첫날 主題發表를 하고 이어서

이들 간 두 나라學者들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宋總長께서는 異例的으로 다른 日程을 뒤로 돌리고 開會式에서부터 閉會式 때까지 이 세미나에 參與하였다. 그 때 내 發表는 19世紀 燕行錄에 關한 것이었다. 發表가 끝나자 中國側의 여러 學者들이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中國 여러 地域의 몇 大學에서 燕行錄에 關心을 가진 研究者들이 資料 때문에 여러 번 韓國訪問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東國大學校의 어느 教授가 『燕行錄全集』을 編纂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出刊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지는 質問이 쏟아져 나왔다. 質疑應答을 통해서 的確한 出版事情을 들은 宋總長께서 韓國과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해서 東國大學校가 『燕行錄全集』 出版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하여 보겠다는 趣旨의 말씀을 하였다. 그 다음날 宋總長께서 歸國할 때 金浦空港에 迎接 나온 東國大學校 關係者들에게 곧바로 『燕行錄全集』 出版檢討를 指示함으로써 여러 차례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 이번 出刊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全五十卷의 全集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옛날 複寫하여 編輯해 두었던 資料들이 狀態가 좋지 않고 編輯 또한 問題가 있어서 再作業을 하는 한편 資料를 補完하다 보니 全五十卷으로 消化할 分量을 훨씬 超過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 編輯이 한 쪽 한 면으로 된 것이어서 한 쪽을 네 면으로 編輯하여 全五十卷으로 줄일 形便도 못 되었다. 一次 複寫한 原稿를 確認節次를 거친 다음에 다시 크기를 一定하게 複寫하고, 그것을 오려 臺紙에 붙여서 쪽 차례를 確認하고, 燕行時期를 찾아 그것을 燕行의 時期別로 整理·配列하고, 燕行錄 作者의 出生年代를 찾아 그것을 다시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配列하여 全一百卷으로 分冊한 뒤 卷別로 쪽을 매겨서 印刷所에 넘기는, 아주 지루한 作業을 하였다. 이름 잡아 總 7萬餘張을 複寫하였으므로 重複된 資料를 골라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編輯期間이 1年 3個月이나 걸렸으며 編輯 마무리 段階의 몇 달간은 編輯空間이 좁아서 講義室 크기의 房을 別途로 마련하여 編輯作業을 進行하였다. 이 全集의 차례를 처음에는 燕行年代順으로 配列하려고 모든 燕行錄의 作者와 燕行年代를 確認하였다. 그렇게 配列을 하여 살펴본 結果 한 作者가 여러 차례 燕行을 한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作品들이 여러 곳으로 散漫하게 흩어지는 問題가 發生하였다. 이 問題를 克服하려고 한 것이 이 全集에서 택한 燕行錄·作者가 태어난 時代順 配列方法이다.

이 『燕行錄全集』은 單純하지 않은 編纂作業을 한 사람이 單獨으로 遂行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특히 많았으며 이로 인한 得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資料가 하나밖에 없는 行草書로 된 筆寫本 古書이거나 이런저런 資料들 속에 깊숙이 끼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모은 것들이어서 冊體制의 均齊性이나 印刷의 鮮明性에 多少 滿足치 못한 部分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흠어져 가려지고, 헤쳐 消滅되어 가는 東亞細亞의 貴重한 文獻資料 燕行錄을 이렇게 한곳에 모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떠한 作業도 圓滿하게 遂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全集 刊行의 가장 큰 意味이다. 이제 이 全集으로 現代活字化가 可能하고 翻譯과 註釋 作業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번에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作品들은 續集으로 補完하여 마무리 할 豫定이다. 續集의 마무리 段階에서 解題集을 別冊으로 出版할 豫定이다.

이 全集을 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님의 東亞細亞 學界를 위한 出版決斷에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貴重한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명지학원 兪榮九 理事長님, 연세대 黃元九 名譽教授님, 창영성씨 이현공과 成長慶 宗會長님, 동국대학교 鄭用吉 企劃人事處長님, 尹鐘燮 辯護士님과 일일이 舉名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여러 關係機關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일년 넘게 編輯室에서 默言으로 苦痛을 같이한 용지인쇄주식회사 金章燮 전무님의 勞苦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感謝에 앞서 그 분께 먼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東國大學校 出版部 家族들도 어려운 일을 맡아서 進行하느라고 勞苦가 많았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린다.

2001년 7월 20일

東峰涼月之室에서

林基中 씀

— 일러두기 —

- 이全集의 이름에 쓰인 燕行錄이라는 表現은 朝天錄類、燕行錄類、瀋陽日記類、漂海錄類를 모두 總括하는 用語로 쓴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錄은 寫本과 刊本、單行本과 文集本、國內本과 國外本을 蒐集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몇 種類의 燕行錄은 研究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重要 異本을 같이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는 이 分野 研究에 꼭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몇 種類의 燕行路程記、燕行別章帖、燕行地圖를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詩、赴燕詩 등은 一定한 體系를 갖추고 있어서 이 分野 研究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만 選別하여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은 原典의 狀態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原典을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得已 現代活字로 바꾸어서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은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하였으며 出生年代가 未詳일 때는 燕行年代順으로 하고, 둘 다 未詳일 때는 맨 뒤로 配列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를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한 까닭은 燕行錄을 作者別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全集의 別冊 目錄集에는 作者出生年度順 目錄、燕行年代順 目錄、燕行錄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作者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을 別途로 作成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配慮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國內本과 國外本은 곧 이어서 燕行錄全集 續集으로 續刊할 豫定이다.
- 이全集의 編輯이 마무리 될 때까지 編者가 入手하지 못한 燕行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하여 續

集에는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아래 資料의 所藏者들께서는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懇曲하게 付託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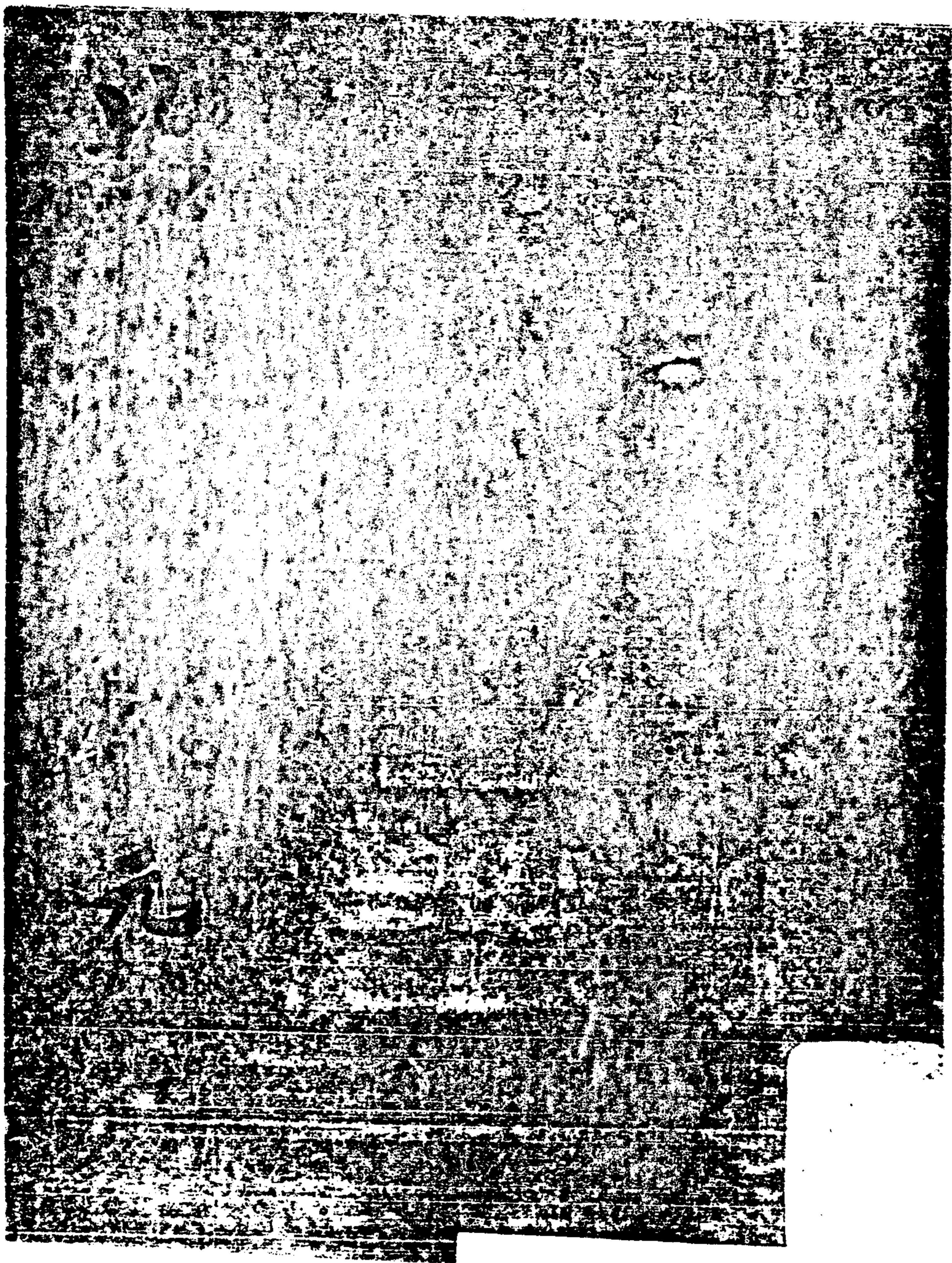
(연락처 : 02-543-5415° 02-2260-3146° FAX 02-543-5485° 02-2263-7093° e-mail: limkz@dongguk.edu)

- 갑인연행록(甲寅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10雍正12甲寅 1734
- 경오연행록(庚午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26乾隆15庚午 1750
- 경오유연일록(鏡泊遊燕日錄), 임백연(任百淵), 1802-1866, 경오유연일록(鏡泊遊燕日錄) 2册, 憲宗2道光16丙申 1836
-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이상(조선말),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1책?
- 북연기행(北燕紀行), 이노춘(李魯春), 1752-?, 북연기행(北燕紀行) 한글본, 正祖, 乾隆48癸卯 1783
- 북원록(北轅錄), 이상봉(李商鳳?·?), 북원록(北轅錄) 5册?
- 북유만록(北遊漫錄), 이호민(李好敏), 1762-?, 간산북유록(簡山北遊錄), 純祖21道光26辛巳 1821
- 북행일기(北行日記), 나덕헌(羅德憲), 1573-1640, 장암집(莊巖集), 卷2, 仁祖14崇德1丙子 1636
-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6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상봉록(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상봉록(桑蓬錄) 2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록(隨槎錄), 한필교(韓弼敎), 1807-1878, 수사록(隨槎錄) 3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한필(隨槎閑筆), 권복인(權復仁), 純祖 때, 수사한필(隨槎閑筆) 1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수로도천록, 미상(??), 수로도천록 사본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남이웅(南以雄), 1575-1648,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1册, 仁祖4天啓6丙寅 1626
- 심행록(瀟行錄), 윤홍금(尹弘禽), 1641-?, 심행록(瀟行錄)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연사록(燕槎錄),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연사록(燕槎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사수록(燕槎隨錄), 이삼은(李三隱), ?-?, 연사수록(燕槎隨錄) 1册(卷3-4)?

- 연사일기(燕槎日記), 정희영(鄭羲永, 哲宗 때), 연사일기(燕槎日記) 1册, 哲宗14同治2癸亥 1863
- 연사필기(燕槎筆記), 정○○(鄭○○, 朝鮮, 東亞大), 연사필기(燕槎筆記) 2册
- 연행록(燕行錄), 김노경(金魯敬, 1766-1840), 연행록(燕行錄), 16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연행록(燕行錄), 이정운(李鼎運, 1743-?), 연행록(燕行錄) 1册, 正祖8乾隆49甲辰 1784
- 조천록(朝天錄),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저헌유고(樸軒遺稿), 世祖5天順3己卯 1459
- 연행시(燕行詩), 조석명(趙錫命, 1674-1753), 묵소집(墨沼集) 卷1, 景宗2康熙61壬寅 1722
- 연행일기(燕行日記), 박제인(朴齊寅, 哲宗 때), 연행일기(燕行日記) 3册, 哲宗11咸登1庚申 1860
- 연행일록(燕行日錄), 미상(??), 연행일록(燕行日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孝宗8順治14丁酉 1657
- 연행잡기(燕行雜記),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연행잡기(燕行雜記) 2册, 英祖42乾隆31丙戌 1766
- 연행록, 미상(??), 연행록(燕行錄) 1册?
- 일암연기(一庵燕記), 이기지(李器之, 1690-1722), 일암연기(一庵燕記) 5册, 肅宗46康熙59庚子 1720
- 정유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卷3, 孝宗8順治14丁酉 1657
- 조천일기(朝天日記), 최기(崔沂, 1553-1616), 조천일기(朝天日記) 1册, 宣祖40萬曆35丁未 1607
- 조천행록(朝天行錄), 황진(黃進, 1542-1606), 서담집(西潭集), 宣祖20萬曆15丁亥 1587
- 조천록(朝天錄), 이덕형(李德涓, 1566-1645), 죽천유고(竹泉遺稿)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천행록 坤, 이덕형(李德涓, 1566-1645), 천행록 坤,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지정연기(芝汀燕記), 원재명(元在明, 1763-1817), 지정연기(芝汀燕記) 1册, 純祖4嘉慶9甲子 1804
-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이진명(李健命, 1663-1722),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추탄유집(楸灘遺集), 光海14天啓2壬戌 1622(9-37)

一 차례 一

- 연행일록(燕行日錄 元·亨·利·貞) 미 상(未詳 ? | ?) 90 | 111
- 석단연기(石湍燕記 天) 권시형(權時亨 ? | 一八五 | ?) 90 | 137



二十九年十月初一日

潘西學政臣周學濬跪奏為恭報微臣
三年任滿瀝陳下情懇恩賞假回籍省
親事竊臣仰荷鴻慈由詞垣簡畀廣西學
政鑒衡忝任莫效涓埃愚魯下材彌滋兢
惕所有視學三年科歲兩次考取選拔舉報
優劣各事宜均經循例恭疏題報在案一俟
新任學政孫璠鳴接篆交卸即應馳赴闕廷
恭復恩命惟臣自濫等館職及秉鐸于嶺南
雙親年近六旬在籍未能迎養長此定省春

忘時深臣任滿回京駟站應由湖北河南前進距臣原籍雖非順道而舟楫可通惟有籲懇天恩賞臣暫假二月俾得由湖北水程回籍省親庶效承歡于陵雅瞻依申愛日之誠斯邀賜類于宸慈覆憐如天之德倘蒙恩准臣歸省后即當依限由籍起程赴京泥首宮門叩謝天恩所有微臣暫假省親下情不揣冒昧謹繕摺具奏奉旨已錄

十月初二日

廣西巡撫臣鄭祖琛跪奏為特參被控將妾

凌虐給與軍犯為配之署知州請旨革職以使嚴
審究辦串竊照臬司勞崇光出使越南於太平府
途次接據宣化縣民婦張陳氏呈控署左州知州國
瞻在龍萊上州之同任內買取該氏之女亞秀為妾
被該署州先收之妾素蘭用水鉏強灌亞秀杜其生
育並將該署州使妾如意毒打致如意吞烟斃命又唆
使該署州將亞秀無故凌虐並喚衙役當堂剥衣責
打亞秀求放該署州即給與配所軍犯徐洪亮為妾
等情即經臬司劄飭太平府將該署州撤任回京臣
批司委員代理左州印務飭府親提究辦據藩司

兼署臬司張雲藻轉據太平府知府王式和查訊具
稟該員國聽前經契買張陳之女亞秀因其舉止不端
未收作妾即作婢女使喚亞秀屢次吵鬧生事該員
曾令僕婦將其責懲並將傳知伊母赴領未到隨將
亞秀發交軍犯徐洪亮家看管嗣經軍犯稟求給領
經該員准將亞秀給與該化收領作妾現經該府將
亞秀斷令伊母張陳氏領回至張陳氏所控該員之
妾如意素蘭毒打吞烟斃命訊據該員家丁僕婦等
供稱如意係該員之婢上年因病身死並無別故係
張陳氏砌詞誣告等情臣核與張陳氏原控情節

雖有不符但所控已屬有因查該署州國瞻身任
此方民所瞻仰其買之亞秀無論是妾是婢或
屢次吵鬧生事亦不應發交配所單犯看管
復因該軍犯宣求輒將亞秀給其收領作妾
寔屬乖謬任性不顧體統且控詞閔涉人命現
現據該府查訊各情難保非被串掩飾亟應嚴
留懲辦以飭官方據該署管道府由司揭報詳請
參奏前來相應請旨將署左州事龍葵土州
司國瞻革職以便提省嚴審確情從重究辦除
批司飭府將應訊一千人證委員解省審辦外

臣謹會同督臣徐廣縉恭摺具奏奉旨已錄

十月初四日

上諭詢爾經額奏永定河歲修稽料請照舊加增運
脚並添臨預防料物一摺本年永定河水勢迭漲近
堤處所屢被水冲所屬歲料稽料仍從遠處購買
歷增運脚未能裁減上年添購稽料俱已動用無
存所有歲修稽料每歲加增運脚銀二厘五毫共銀
八千五百兩並添購臨防稽料二百四十萬兩共銀二
萬五千二百兩著准其撥案照數動用趕緊採買
分貯工次報候驗收倘來年水手工穩料有盈餘

即留為下年之用嗣後仍當隨時稽核務令有減
無增以節帑項餘著照所擬辦理欽此

十月初六日

山東巡撫臣徐澤醇跪奏為覆陳漕費不能盡
革實是情恭摺奏祈聖鑒事竊照東省漕務浮費
前經臣遵旨籌議請將折幫代買及各項瑣屑雜
費盡行禁革一律定為津貼公費按各州縣道先
二十八年兌漕給幫之數如每石止于一二三錢者仍循
其舊每石在四錢以上者以四錢為限若逾此數計
難治罪漕糧項下撥運青州駐防廣兵米及隨漕

同徵之德常二倉米照幫費再減一米每石不得過
二錢欽奉朱批該部議奏欽此茲准戶部議
覆以來東省軍糧出運與浙江等省遠涉數
千里者不同嘉慶四年准晒颺耗米一款即係設
增津之貼款向應恪守旧章不得于津貼之外
再設津貼致滋糜費兵米與德常二倉米津
貼之貴亦屬例外增添均毋庸設等因奏奉
諭旨依議欽此咨行遵照前來復查東省漕艇以
十丁配運一艇每艇例給行月潤耗席片等項僅
止米九十石銀八十餘兩雖東距通倉較近與南漕

之渡江渡黃堤溜打閘節之耗費不同然每歲自八九月間修船雇夫受兌身凍次年春初開行抵埧交卸五月間方得回空經八九月之久計一艇丁船夫役不下數十人工食費用例款不敷故月有漕艇即有邦帑費非法不能禁亦寔勢有所不能禁者嘉慶四年清厘漕弊前撫臣陳大文以陋規裁革丁力拮据奏請將例折行月糧米每石加給旗丁銀七錢經部臣議駁僅准予旗丁原備交倉晒颺耗米內劃給一升七合丁用仍屬不敷故當時名為革除陋規寔則橫索如故今距嘉慶初

年又逾五十載銀兩增昂百物倍貴幫丁費用不支
較前更甚前撫臣涼大文原奏內稱彼時州錄免漕
每糧一石幫貼前丁銀四五錢今每石已加至七八錢
此前給前丁貼不敷宿費未能盡除輾轉益甚之
明證也臣前奏將各項浮費名目盡行革除量給津
公費以四錢為率蓋已統數十年前至少之數廣示限
制今部臣併此議駁不容輕改舊章此項續增津
貼原為例所不載部臣執法以繩臣何敢復行爭
辨顧身任地方目擊情形不能不順人情以為治亦
不能不須群力以集事若遵照部議絲毫不准

妄取過有犯違嚴法懲創則帑丁疲素群恒復
散必致貽悞漕運所關非細若陽奉陰違仍聽其
私相授受而不明定限制則此帑受制帑丁必致累
及百姓更恐狡黠帑丁以臣奏減浮費經部駁恣
意橫索並無顧忌即有強項之令票爭訟辯而漕
糧免限迫促先以誘免獲免其弊豈有不可勝述
者至兵米與德常二倉米石雖有用與漕務有間
而經手吏役責令糶賑送事亦轉滋勒索之弊臣
再四參酌法期可行弊去不甚謹將實在情形瀆陳
於聖主之前可亟領懇天恩俯准將各省免漕及

運完六米等項悉臣前奏量給津貼之處恭候欽
定為此恭摺具奏奉 硃批戶部再行核議具奏欽此
十月初五日

河東河道總督臣顏以燠跪奏為遵旨明豫東
黃河大汛在工尤為出力人員素公酌保仰祈聖鑒
事竊臣欽奉 恩旨勅將在工人員擇其尤為出力
者素公酌保數員候朕恩施毋許員濫等因欽
此跪讀之下仰見皇上策勵臣工微勞必錄欽感
同深復查修守巡防河員專責沿河州縣亦例
應協防即候補人員一經派委均屬責無旁

貸何敢遽乞恩施惟念豫東黃河兩岸汎地正
長要工林立每當伏秋盛漲全賴羣策群力始
克防守無虞况本年長水異常僅旺自伏徂秋為
時又久不雨臨黃婦壩壩搶廂拋護晝夜不遑即無
工之處漫灘水勢尤湏人力巡防臣目擊各員往
來奔走于風雨泥淖之間實屬不辭勞瘁並各道
廳亦知經費支絀雖值異漲工多均能樽節臣嚴
諭于慎重之中力求樽節之法似不便減其微勞惟人
數較多不敢稍涉冒濫謹擇其尤為出力者另繕清
單恭呈御覽其次出力人員容照例分別議獎等因

部核辦至管河各道向於霜降安瀾後附摺奏請
敘叙茲查開歸道庚長辦事穩寔督防有方河
北道長臻在工年久機宜諳練充沂道王懿德為
人篤寔辦事認真兩署開歸道候補道周鳴銓
老誠堅寔慎重工程兩署充沂道登萊青道
英桂精明穩練留心河務兩護河北道開封府
知府岳興阿稽核認真辦事勤慎以上各員可否
交部敘叙之處出自天恩所有大汎出力人員遵旨
查明秉公酌保伏乞 聖鑒謹奏奉旨已錄

十月初七日

奴才奕綱等片奏再查本年風水樹株生虫當經奴才
等奏明擬請仿照歷年成案撥派司員將臨督等
弁兵差役盡力捕捉指資收買等因於五月十九日
具奏奉硃批隨時留心不可大意欽此奴才等欽遵
聖諭隨時由查處、留心不敢稍涉大意督飭員弁
帶領在逃兵役不遺餘力逐日窮搜三月有餘共捕
得松虫一千二百餘名計十九萬餘斤並金蘭四十一萬
餘箇經奴才等親加詳驗完整深埋現在節交立冬
樹株上下一虫皆無如奴才等尚不敢自信仍遍處搜
捉務期餘孽盡除以免開春不致復萌近日查者

五凌儀行卷 災均經推西崖口西便門東便門海
地各樹松尉稀疎青黃間半今秋未能全復菁蔥
樹蕊猶存明春仍可一律暢發其中間有被虫較重
者百分一二實是已回乾老樹伐除之後俟夏樹之發亟
須按株補栽培養擬將圍牆內外自生小樹並歷年
栽種業已長成秧相擇其枝幹茂者就近按行移
補開春後勤加澆灌務期一律蕃茂較之歷年在外
採買樹株並屬核實所有搜捕松虫情形及酌擬即
時補種樹株緣由理合附片據實謹奏奉硃批依議
欵此

十月初九日

臣裕泰等片奏再湖北省會城垣自前代周圍一十九里有奇自乾隆四十三年奉明勅項大脩之後雖嘉慶五年請項小脩一次道光十七年勸捐脩理一次迄今歷年已久完未能一律鞏固而西南北三面貼近江邊本年夏秋咸漲時水勢環繞風浪掀激直衝其衝城門雖經堵閉而城內積水無從宣洩深至數尺及丈餘不等四外淹浸抑且雨淋不止遂致間段日有坍塌城不沒者不及三股幾有浸缺衝潰之勢實屬萬分危險臣等

目睹情形焦灼不堪言狀當即捐資籌款遴
委幹員多求料物親自晝夜設法搶堵並復恭
撰祭文率同道在於黃鶴樓望江處誦唸禱仰
頌聖主福庇即于五月二十七日天氣亦晴水亦平
定而各委員等亦能不辭勞瘁分段搶護加幫補
築竭之十餘日之力始獲北險為平城內億萬生靈
得以幸保無虞臣等當慮之餘在深潭畏現在節
逾霜清轉瞬冬晴即當一律將築完整以御水汛
漲惟當此賑恤之際勢難無顧而城工局
保障攸關亦屬刻不可緩片等現擬酌籌款項

並各捐廩湊助修一面曉諭紳商士庶廣為勸捐
襄辦以期早日觀成用資捍衛統俟若工完竣即
行奏報所有前項該委員等搶護城工無分晝
夜注來泥潦之中日蒸夜露實力經營洵屬奮勉
從事似未便沒其微勞可否仰懇天恩准臣等擇
其在為出力者的保數員用昭鼓勵之處出自逾
格鴻施據藩臬兩司會詳請湊前來理合附片陳
明謹奏奉旨已錄

十月初十日

禮部謹奏為請旨事竊照朝鮮國王王姬請以

莊順王四世孫李 承襲朝鮮國王經臣部具奏奉
旨依議欽此查定例朝鮮請封由臣部奏請欽派正
副使各二員持節往封除京室人員不開列外正使開
列內大臣散秩大臣頭等侍衛御名副使開列內閣滿
洲學士翰林院掌院學士臣部滿洲侍郎銜名奏請
欽派等語此次朝鮮請承襲國王奉旨准行謹將
各衙門送到銜名繕清單進呈伏候欽派正副
使各二員持節往封為此謹奏奉旨已錄

十月十七日

兩江總督臣陸建瀛江蘇巡撫臣傅繩勛跪奏為上

海通商酌籌經費並增設晏卡以資稽查而裕
稅課恭摺具奏仰祈聖鑒事竊照前准部咨籌議
沿海各關與洋而各國通商收稅事宜條款內載
嘆商進口交納稅鈔均准用洋錢輸徵惟此等洋
錢色有不足即應隨時隨地由該口嘆官及海關設
某類洋錢應加納補水若干公商妥辦因節經臣
等轉行遵照在案茲據委關江海關務賴松太道
檄桂詳稱查江海關自道光二十三年九月二十六日開市
當開市之初稅鈔皆用洋銀輸納嗣因設今補水該
夷每多轉轉旋即改為銀兩輸徵而所納之銀又皆

成色低潮經前道官慕久飭傳銀号眼同該吏官
商等傾鎔每千兩核解部是色元寶實寔虧色銀
至三四十兩不等當今該吏如數補水該吏等以稅銀本
應納銀今以銀上納係道定章辦理不能再補婉諭
至一再堅執不允反稱格外需索欲緩通商前道
官慕久以撫訖甫定自應曲示懷柔遂即通融免收以
全大局詎以吏商後來此日泉年來稅鈔或五十萬或
六十万甚且多至七十餘万而其銀皆係九六七成色各
吏以酌次收兌銀色為准不惟不能令其補水兼以不
能易換查江海關稅銀解部詳明傾鎔元寶實解交

而該夷所完鈔稅係陸續兌收零星散碎色又低潮及至起解之際必須回火傾鑄每兩折耗三四分以至五六分不等歷任官關道因此項折耗無款可籌均在所收稅銀內支墊迄五年有餘支墊銀兩為數不小惟查江海關徵收夷稅係由粵海關分出從前粵海關徵收稅餉設有洋商經理其一初費用即于洋海抽取有耗担歸公各名目嗣于二十三年籌設西洋各國准在五口通商聽其自投商買交易將各項規費儘行扣除歸作一條徧徵其粵海一切經費以及鑄銷折耗各銀兩並係作正開銷而江海關所征夷稅既由粵海關分

出現在尚須與粵海關統計即屬粵海關之稅餉無異惟是此項折耗銀兩江海關現與從抽取三間款司籌若由閩庫籌墊誠恐愈積愈多將未伊于胡底轉恐挪新掩舊之弊殊非慎重帑項之道惟有仿照粵海關章程在於征收稅銀內作正開銀以歸畫一自應酌定數目以示限制應請將所征奏稅銀兩每月准銷折耗銀三分按年造具支銷細數清單送部核銷以昭核實再自二十三年開市之初事屬創始先止設碼頭一處出入貨物皆由此上下所設新關僅止平屋三間形製湫隘不但不足以杜觀瞻且

添設之吏役辦公棲身亦俱無地一逢旺月
各國美艇雲集在于一處停泊候驗每多擁
擠經前道籌設又添設碼頭四處專查各國
貨稅自崇明之十激至上海之黃浦節節皆
停艇之處即節節皆可走私之處原設巡艇
為數較少巡察難周勢不能不添設巡艇多
派丁役逐段分巡以杜偷漏至于美艇既多
起貨下貨巡緝管押更在需人其計担納稅
按貨過秤每日差派又派一二十名或三三十
名不等接續輝聯實是難周轉現以節設丁胥

勻拮五處斷難敷用事關稅餉又不能不多派
家丁書役稽察巡查又碼頭由一而增四至于江
山尾公路亦須逐加砌築碼頭並須年加修葺耳以
便往來又稅銀起解需木鞘等項均須置備無不
在在需備前春會奏增設稅所卡巡支銷經
費案內奉部援引粵海關成案擬令由管關
道員自行籌辦等因查關道歲支卷廉為數
無幾近年新添奉拮參舫變價艀工捐款及各
項雜捐攤賠應支應解等項扣除之外所餘
無多若現在新添各項需用之款復責令管

閩道員縣執官是屬力有未逮輾轉思維必須酌留經費以供支銷方為妥善查各辦理閩權務每歲均有酌留經費可以支給即如江海關歲徵常稅共計七萬餘兩而支銷經費歲共銀一萬一千餘兩今自五口通商以來江海關徵收釐稅較之福州廈門寧波三口歲徵之數盈至倍蓰其福州廈門寧波用項似不若上海之繁鉅已可概見況粵海關每年造報留支經費尚有五六萬兩今江海關准支之經費僅止吏役工食等銀一千七百餘兩此外一加所出辦理亦屬兩歧公事諸多掣肘是屬無

可再為酌減應請在于稅鈔項下支給詳請具
奏前來臣等復無查核該道所詳係屬實是在情
形緣江海關口山片散漫港汊紛歧若將書役稍為裁
減差遣又屬不敷辦理愈難若不亟為籌劃則
書役等既不肯枵腹從事且恐復啓藉端需索
之弊反為夷人所藉口且自更定新章以來一收一解
盡屬正稅並無額外雜款實是無從籌經費給之
方如再責令關道捐廉辦理查江海關現在常
稅徵收短絀尚須捐廉賠補若復責令籌墊實
屬力有所難但此次每處建造卡房巡艇及書役

工食一切經費臣等思維再四既無款可籌一切又難裁
減惟有仰懇天恩俯念稅務緊要辦公須人准在徵
收稅鈔銀內作正開銷統俟開期報滿之時將一年
支銷各數造具清冊送部查核謹奏奉硃批戶部議
奏欽此

十月十八日

湖廣總督臣裕太等謹奏為委員署理武昌等府
印務恭摺奏祈聖鑒事竊臣等于道光二十九年
九月初四日准吏部咨奉上諭廣東巡撫使員缺
著祁宿藻補授所有員缺著該省督撫揀員調

補其所遺之缺著劉珩補授數此等因移咨前來
除武昌府員缺揀員另行奏請調外自應先行委
員接署以便交卸起程前赴新任所遺武昌府政
務殷繁復值查辦賑恤之際非精明幹練之員
不足以資治理查有漢陽府知府夏廷楨老成德練
篤實勤明堪以調署其漢陽府亦係揀委之缺查有
安陸府知府賈世陶勤果幹堪以署理所遺安陸府
知府缺查有補知府鄒鴻府白河同知李兆元樸誠
勤慎堪以遞署據藩臬兩司具詳前來除檄飭遵
照外所有委員署理武昌等府印務緣由恭摺具

奏奉 硃批覽欽此

護理山西巡撫布政使臣兆那蘇圖跪奏為特各疎
尚刻業之文武員弁請旨摘去頂戴撤日勒限嚴緝恭
摺奏祈 聖鑒事竊臣風聞平遙縣有一夜連劫之案
即經飭司遴選委員弁前往查緝旋據該縣知縣李
永年稟稱本年九月二十二日亥刻縣城內大福源協
慶萬盛和隆慶各錢舖並玉興西貨舖等家被劫共
計贖銀三千數百兩錢二千六十餘串又據石平縣知縣
昌祿詳報屬縣高南村事主劉松茂家于九月初三
日夜被劫銀錢衣飾計贖銀一萬一千餘兩均有推

傷舖夥雇工各等情臣查平遙縣舖戶同被盜連劫至數家之多該文武員弁事前既失于防既事後駐盜又無一獲太平縣劉松茂家雖係道路村莊未設墩舖防而被劫銀數逾巨萬亦非尋常疎失可比若僅照定例開條均不足以示懲儆茲據該管道府由署藩臬兩司具詳請各用未應請旨將平遙縣知縣李永年外委董重壯獻太平縣現升代州直隸州知府昌祿外委李祥一併摘去頂戴撤任留於各該地方勒限兩個月協緝如能限內獲犯再行開復倘限滿無獲即當從嚴參究辦外恭摺具奏奉旨已錄

臣北邦蘇圖跪奏為查明鄉試年老士子未經中式循例
恭摺具奏仰祈聖鑒事竊照各省鄉試年老諸生如
三場完竣例唯查明意在年歲奏請施恩茲本年
已酉科山西省文闈鄉試榜發有年屆九十歲之副貢
生董振文年屆八十歲以上之附生薛价均未中式查
閱該生等三場試券完竣後得屬妥適經臣咨准學臣龍
元僊查覆核對學冊年歲相符欽惟我皇上文文明布
治復且揚庠闈慈憐以興賢多士協甄陶之慶歌樂笙
而奏雅耆儒欣樂育之宏該生董振文等幸際昌
時獲錄大老至青燈畫卷不忘域術之功儲者鹿肩尚

預龍門之試名雖未登子。燭已克畫三條。洵為藝苑祥徵。益著熙朝人瑞。既符年例。宜例宜荷。隆恩。合酒例恭摺具奏。並開繕該生等名單。恭呈御覽。謹奏。奉 硃批禮部查核具奏。欽此。

十月十九日

吏部謹奏為奏明請旨事。內閣抄出道光二十九年七月十八日奉旨。戶部奏浙江京職呈請捐銀備賑。并開單呈覽。此項銀兩著准其交部於浙江鄰省指款撥抵。以脩賑需。該員等誼切桑梓。倡捐為本省紳民之勸。自應量予獎勵。所有捐銀二千餘兩及

一千兩之朱鳳標戴熙龔守正許乃並晉均著交部
從優叙叙捐銀五百兩及五百兩以下之朱蘭沈兆
霖許乃釗鈕福保陳寶禾葛景業童華吳
敬義沈炳垣吳若準湯修金曰修程恭壽印懿
辰樊晉何瑞楨蔡廣颺均著交部叙叙單位發
欽此又七月三十日奉上諭張祥可奏捐制錢一萬
串以備江蘊賑濟等語著准其交松江部局支
用張祥河情殷桑梓踴躍輸將著交部從優叙
叙欽此又八月初十日奉上諭趙炳言奏藩司萬
貫珍各捐制錢五千串以備賑濟等語著准其

分分解交浙江江蘇公局支用趙炳言萬貢珍情
強柔梓踴躍輸將均著交部從優敘欽此又
八月十七日奉上諭劉韻珂徐繼畲奏潘司陳
慶偕捐銀二千兩以備賑濟等語著准其解交
浙江藩庫支用陳慶偕情殷柔梓踴躍輸將
著交部從優敘欽此又八月二十日奉上諭陸建
瀛奏捐銀一萬兩以備賑卹等語著准其解交
湖北藩庫支用陸建瀛情殷柔梓踴躍輸將
著交部從優敘欽此又八月二十三日奉上諭王
植奏臬司李本仁捐銀三千兩以備賑濟等語

著准其移解安徽藩庫充收由浙省撥劃備用李
本仁情殷桑梓踴躍輸將著交部送優議叙欽此又
八月二十七日奉上諭鄭祖琛奏請撥六千兩並藩司
張雲漢捐銀三千兩學政周學濬捐銀一千兩各備
賑濟等語均著准其解交浙江、蘇藩庫支用鄭祖
琛周學濬張雲漢情殷桑梓踴躍輸將均著交部
送優議叙欽此又九月初四日奉上諭潘鐸奏捐銀五
千兩並藩司嚴良訓捐銀三千兩各備賑濟等語
均著准其解交江蘇藩司支用潘鐸嚴良訓情殷
桑梓踴躍輸將著交部送優議叙欽此十月初五日

奉上海張祥河奏道員吳昌捐銀三千兩以備賑需
等語著准其解交江寧滿庫備用情殷奉特鴻澤輸將
著交部位優議叙欽此遵按出到部經臣部查捐輸錢
文之員每制錢一千串應領銀若干兩行查戶部去後
茲據廣福每制錢二千文作銀一兩等因查廣福前奉
查奏定海疆捐輸章程內開議予加級紀錄各項官
員三品以上大員捐銀六百兩四品等官捐銀五百兩七
品等官捐銀三百二十兩均議予加一級捐數較多似次
遞加不得過五級其有不及加級銀數者給予紀錄三
品以上大員捐銀三百兩四品等官捐銀二百五十兩五

藉隸湖浙江之蘓京外現任各官均因本省被水成災
捐廉助賑欽奉諭旨交部議叙臣等查照海疆捐
輸章程辦理至欽奉諭旨交部從優議叙捐銀
一萬兩之西江總督陸建瀛應查照預工事例奏
明清旨恭候敕定其餘各員應請單恭呈御
覽是亦當謹奏奉旨已錄

十月二十一日

湖廣總督臣裕泰跪奏為籌捐救濟江漢等處
被水棚民恭摺奏祈鑒聖事竊照今年夏間陰
雨連旬江流異常泛漲濱臨江漢各屬先後稟

以等官指銀二百兩六品以下各項官員指銀一百五十兩
均議平紀錄二次又豫工事例內開現任人員指銀一萬兩
以上者該督撫專摺奏明請旨定奪又定例紳士商
民指銀一百兩以上該省督撫獎以匾額又各省捐輸
奉旨從優議叙人員應得加級紀錄者酌加紀錄
三次若等語此內捐輸錢文之員應照戶部查明奏
章程每制制錢二千作銀一兩核計辦理又查湖北上
年被水災業經戶部查明該省剩資助賑各官紳仍查
照每疆捐輸章程議叙惟均係明奉諭旨交部議叙
先經臣部議覆 照海疆成案獎叙奉准在案今據

報被淹者至三十二州縣入衛之多當經臣等透委
幹員携帶銀兩分赴該州縣先後散給急撫並
飭各屬辦理平糶接濟民食業將查辦情形先
後恭摺具奏乃蒙皇上如天之仁既准留儲庫
款復頒帑內府帑金並由部指撥銀參十萬兩統
計拮銀幾及百万恩施稠迭無已有加凡臣工敢
不憚情竭慮妥籌辦理使是惠及民籍以上節
宵旰現據各該道府暨委員等督同地方官
稟報次第勘明災區自五分至七八分不等一俟
到齊即當另行奏報其應行撫賑者亦已將解

到之銀委員分解各府庫暫存催令查明戶口即
速示期散放並令將所查戶口應賑數目各按鄉
里列榜曉諭使百姓一體周知則胥吏無從侵
隱以期剔除弊實庶可寔惠均沾惟是漢陽
府屬之漢口鎮向來商賈雲集行店甚多小民
易于謀食當被水之初即由本處無業貧民
與隣境被水之戶多在依山傍麓搭棚棲止
逐日加增大小男婦不下二十萬餘口之多較上
年收養人數為尤聚省城內外就食災黎亦
有一萬數千餘人屢飭地方官捐給錢文設

法遣散而去者仍不免其復來緣被水之區未能盡
涸或田廬蕩析或生計謀之無家可歸災倍處此雖人
數衆多之危各安心候撫不致滋擾當此秋深氣寒待
哺教：困苦情形殊堪憫測不得不一律收養俾資
糊口現經漢山各商具呈：願捐銀八萬兩又各紳
富：亦可陸續勸捐接濟均由漢陽府督同印委
各員確查大小口數易換錢文定：立章程按期散給
仍隨時察着至：文卷分別遣歸及遞送回籍其省
城內外棚民甚多亦即照此辦理臣等率同在省司
道府廳暨：省外道府共鑒捐銀錢五萬兩並再諭

紳富商買量力捐輸以為分別收養之州刻下江水
退落晴雨得宜高阜及闕出田地所種晚稻雜糧
可望豐登市廩米糧正多價亦大減是宜接濟民
情極為安貼洵堪仰慰宸廑所有等語捐收養江漢等
處棚民理合恭摺具奏伏乞聖鑒再被水各州縣堤塍
淹浸日久多有殘缺埴墊之處現因水南消退尚未
據勘稟報湖北各提督係民修自衛之工本年災
情較重埴墊難淤出而經費有常措賑之外又豈能籌
項借修容俟勘定後如有情急移賑歸工以工代賑
者自應查照注扁章程准其分別酌辦庶可一舉

兩得于保障民生均有裨益合併陳明謹奏奉硃批
依議安辦欽此

十月二十四日

臣潘世恩跪奏為病久難以就痊再瀝下情仰祈聖
鑒事竊臣于八月二十一日陳請開缺奉旨再賞假兩
個月安心調理一俟病痊即行遞摺請安欽此又九月十五
日臣子曾瑩值日召見敬述天語垂詢體郵倦至五中感
激莫可名言亟思上緊調治以冀圖報萬一乃自賞假以
來又及兩月上焦之火未盡下降左脇仍復牽掣左膊
痛作痛轉側不便起動維艱復念內閣為經綸重地

部係銜數專司其職所管各項差使內開擊委以臣表
暮之年即無病難期稱職况荷生成之德敢恃不懼曠
官惟有仰願鴻慈俯准開缺臣仍謹遵諭旨安心謝
理現在脾胃照常惟氣血總未能通暢尚望聖主福庇
得稍有起色即當趨赴闕廷求賞 俟不勝悚息待命
之至謹奏奉旨已錄

十月二十六日

奴才倭什訥盛桂跪奏為衙署庫銀被竊請
旨將值班驍騎校革職審訊並將庫官關防之
換領交部議處恭奏仰祈聖鑒事竊於本年

九月十六日據管理銀庫協領雅青阿稟稱本日
赴庫收存銀兩見庫相內連空庫之隔牆空通
一窟查點庫銀竊去二千五百餘兩等情奴才
署內銀庫係官兵晝夜監守何致庫銀被竊不勝
該異當即進署查看盤驗委係由空庫隔牆空
窟入內竊去庫銀屬寔是隨飭番役勒納將值
班之驍騎校那揚阿富順摘去頂戴交刑司提回
看庫六丁嚴訊各供均係逐日晝夜防守不知如何疎
失等語查核洪情難保非知情不肯定供現仍嚴
飭刑司設法嚴訊惟庫銀被竊至二千五百餘兩之

多新非一人所能為且相違空庫亦係鎖鑰外人何由
而入該官六等寺誥為不知殊難憑信相應請旨將銀
庫值班之騎驍校那揚阿富順即行革職以便提回兵
丁嚴審是否知情故級按律辦理並請將管理銀庫關
防之兵紅薄協領雅青阿先行文部議處所有被竊庫
銀現已嚴飭管庫各員如數賠繳貯庫令將庫銀被
竊現在審緝緣由理合恭摺具奏奉旨已錄

十一月初二日

上諭顏以燠奏清案請添末歲防稽石磚一摺黃河修
防籌料磚石均為要需自應同時儲備以期用全朕悃

茲據該河督奏稱督飭各道詳查各廳工程情形悉心
籌酌右按需用防料銀兩分別奏照數添撥除本年各
廳用剩搭料計報抵扣減辦劃還司庫外所有南片
七廳實應二成改搭辦磚銀一萬四千一百四十八兩八錢
改搭辦石銀五萬六千五百六十兩北片五廳實應四成
改搭辦磚銀一萬八千三百四十六兩改搭辦石銀二萬七
千三百兩東省三廳實應四成辦搭例幫價卸一萬
二千二百兩六成改搭辦石銀一萬六千八百兩均著准
其照數添撥以作工備所需銀兩著于山東河南司庫
儲項撥發飭令趕辦防料限年內全數完備一律

鑿查統限批汎內購料報驗倘有短少及堆垛空虛等
弊即著據實參奉賠補欽此

十一月初三日

上諭致仕大學士阮元翰林游躋卿貳久任封
朕御極以來優加倚任特昇綸扇宣力中外五
十餘年學子裕識優勤勞懋著道光十八年以老
疾乞休因其年逾七旬曲加體卹准予致仕在籍
食俸兩年科重與鹿鳴筵宴晉加太傅方期恩
施迭沛永享遐齡茲聞溘逝殊堪悼惜阮元著
加恩照太學士例賜卹所有原任內一切處分悉

予聞復伊子侯選知府阮祐著侯服闋後遇有
知府缺出即行選用廕生阮孔厚及伊孫舉人阮
恩海均著俟服闋後交部帶領引見候朕施恩用
示朕萬念旧臣在加飾典至意應得卹典該衙
門察例具奏欽此

十一月初四日

禮府謹奏為請旨事查例載朝鮮國陳奏貢物
應否賞收或留抵下次正貢由臣部具奏請旨等語
今年朝鮮國權署國事李 並已故宣恪王妃
金氏遣使參進請諡兼請承祀衣陳奏貢物現已

到京應否賞收或准其留抵下次正貢之處理合
具奏請旨謹繕貢物清單恭呈御覽伏候俞下
臣部遵照辦理為此謹奏奉旨已錄

十一月初六日

臣孫毓淮謹奏再臣籍隸山東濟寧幼失怙恃
自甲辰通籍供職詞垣迄今六載未能回里省視松
楸烏鳥私情殊難自己茲差滿回京出河南衛輝府
相距臣籍計程動止四百合無仰懇天恩賞假一月俯准
臣就近回籍祭掃頂戴鴻慈曷其有極俟假期屆
滿即當迅速北上臣不揣冒昧謹附片具奏奉旨已錄

十一月初七日

廣東巡撫臣葉名琛跪奏為老生三場完竣未經取
中循例恭摺奏祈聖鑒事竊查嘉慶十九年准禮
部咨奉旨鄉會試老生著照舊例追加十歲方准
列入欽此又道光十二年准禮部咨嗣後具奏年老
諸生務須造具詳細清冊先送部以憑核對等因
飭行遵照在案茲本年己酉科廣東省鄉試所有應
試年老諸生除年未八十並前蒙欽賜副榜現年未
屆九十之副貢生並例監年已八十報捐在十科以前
未經應過鄉試者均遵照扣除外查有順德縣恩

貢生梁光縉等共二十六名俱各三場完竣未經中
式揭曉移調閱原券文理均尚明順復咨事臣查
明梁光縉等入學捐年分並行據布故吏璋煜確查
詳覆前來臣復維詔德先昭冊網啓文明之治鴻慈
丕 殊叢書仁壽之休宏開景運宗魏科產崇華譽
髦之多少該生梁光縉等青匭勵志皓首窮經鶴
髮扶筇望有飛雲路一龍眉聯袂爭用藝亦風
簷不特士林歌桂樸之章抑且文苑集期頌之瑞
共慶昌期際遇在宜異數褒嘉除造冊咨送禮部
外臣謹遵例會同學政臣全慶恭摺具奏並將各

先生姓名年歲。另繕清單呈御。恐免謹奏。奉硃批該部議奏。單併祭欵。欵此。

十一月十四日

湖南巡撫臣馮德馨。片奏。再臣正擇摺聞。據寶慶府知府張鎮南。寶慶協副將蔣琦琛。稟報新寧縣匪徒。戕害海軍。該府等會同馳往該縣。連日圍剿。鄉勇于清江橋。駐紮查緝。首逆李姓。與夥兇盧萬先等。相使匪眾。在逆城黃龍白沙一帶地方。騷擾該府等。即于十月二十日辰刻。新寧汛千總熊。與敵石門。

汛把總方開甲等帶領兵丁鄉勇由黃龍白
沙進剿該匪等暫見兵勇竟敢率眾抗拒施
放鎗炮傷斃三名兵勇奮力直前剿殺並用
鎗炮轟擊殺斃匪徒三百餘名棄斃不計其
數奪獲抬炮二座刀械一百餘件生擒賊匪
徐順李惠洗李洪旺仇昌得將登秀方何生桂
林茂春等七名該匪等因被追殺甚緊紛紛
逃奔入城南門拒守不敢再出該府等因匪眾
尚多兵力未厚不敢追進現督兵勇將四
面圍住一面添募鄉勇並于右安隘定力堵禦

侯御勇集即當進攻等情臣查該匪等成官
擄城多急應殲除今經兵勇痛加剿殺殲獲多
名已奪其魄現在員隅一城無可逃竄一俟兵勇
悉集不難一鼓掃平除飭該府等督飭在事
文武員弁率同兵勇嚴密堵圍不得稍有疎
懈致令竄出一面再行飛催各營官兵星馳
往合力會剿務將首逆匪犯悉數擒拿盡法
懲辦外所有臣接據該府等稟報勦捕情形
理合附片具奏奉旨已錄

十一月十六日

奴才柏後阿靈阿廣林謹奏為恭聞事十二日夜
子刻奴才等聞福園門內西所失火趕緊進內督
率汲桶營各等子丑正二刻將火撲滅查問起火緣
由係因東廂房後所棚延燒連及東廂房三間北
露頂一間所棚二間詢據東廂房居住之太監李幅
稟稱經管所棚之初慶喜說有陳進喜昨日中火並
不知有無別情等語除將初慶喜陳進喜交司審
訊辦理外先此恭聞伏乞聖鑒謹奏奉旨知道了
欽此

福建學政臣黃曾鴻跪奏為恭謝天恩仰祈聖鑒

事竊臣於本月二十四日接到家信江西鄉試發臣
于祖綽中式等二十二名舉人臣當即恭設香案明主殿
叩頭謝恩訖伏思臣村同樗散誨鮮谷賤迭承高厚
之施愧乏涓埃之報臣于祖綽年穉弱首又蠢愚
殖學未深方荒勉于橫泖觀光幸領遠遊廁于鹿
鳴念儒生壽禮之傳可知欣也樂感戴鼓鐘之化幸沐
薰陶涯岸何生成彌深感德臣惟有勉其學業日助以
義方敢擗囊之箱存益如鳥資之加策多讀書而明理
仰副熙朝養士之隆俾祇行以立名度少酬壽寓作人
之感所有敬臣感激下忱謹繕摺謝天恩伏祈皇上

聖旨諭議奏奉 硃批覽欵此

直隸總督臣訥爾經額跪奏為河工通判員缺循例
揀員升署仰祈聖鑒事竊照三角淀通判羅瀛升署
南岸同知經臣題准部覆道光二十九年六月十九日行
文按直隸起限二十日減半計算應作為六月十八日
接到部文開缺前道三角淀通判二缺駐紮王慶坨專
管疏濬永定河文定下江口事務紛煩係專司管河要
缺例應在外揀選調臣與藩臬兩司暨永定河道在
下應升應調人員內逐加遴選非本任緊要即人地
未宜雖查有固安縣知縣王仲蘭年五十一歲江蘇

吳縣人由監生舉捐縣丞分發北河道光元年咨補
雄縣。丞調署永清縣。丞升補涿州。判道光十
八年秋汛女關保奏奉旨以沿河知縣酌量升用欽此
二十年丁憂回籍服滿仍赴原工借補武清縣知縣二
十六年升署固安縣二十九歲題請宣授該員志成歷
練辦事細心剛在永定河汛員各任二十餘年河工情
形素所熟悉以是升署永定河三角汛通判宣德勝任
惟歷俸未滿三年與例稍有未符但人地實在相濡例
得專摺奏請撥藩臬兩司會同該管永定河道具詳請
奏前來合亟仰懇天恩俯念員缺繁重要准以固安縣

知王仲蘭升署三角渡通判實于河工有裨如蒙俞允俟
經港三汛興滿再行保題實接給咨送部引見至該員
雖係再升人員其前任內並無罰俸案件如有本內一物
因公處分例免核計除將各罰清冊送部罰俸銀兩
飭提完解外理合會同憲督順天府之尹臣卓秉培
順天府之尹臣陸應谷合詞恭摺具奏伏乞皇上聖
鑒訓示再前道因安縣知縣煩雜容易揀選請補合併
聲明謹奏奉旨已錄

十一月十七日

臣吳文鎔片奏再浙海關每屆所收正額稅銀向

留藩庫為快撥本省兵餉之用所征盈餘向
係解部其徵餘尾銀應核定數目的酌留奏交
藩庫另款存貯以資儲備歷經遵照辦理在
案又本年六月十七日欽奉上諭浙江本省被災所
有藩關各庫銀兩概准該督撫酌留備賑
等因欽此欽遵在案茲屆浙海一年期滿計
共征收稅銀七萬八千四百七十六兩零內正額銀三
萬五千九百八兩零盈餘銀四萬二千四百六十八兩零
計尚缺征盈餘銀一千五百三十一兩零照例由該關
撥補其所收銀兩內餘正額向例給各役夫食銀二

五十八兩零又盈餘內撥補經費等銀七萬五千五百五十九兩
零外計寔征收銀七萬七千三百五十九兩零內除正額三
萬五千六百五十兩零內除正額三萬五千六百五十兩零應
仍留藩庫為收拮兵餉之用又盈餘銀未現准戶部拮
浙江京官捐賑銀八千兩又劃還二十八年添解南河工需銀
三千二百四十兩外其餘銀三萬四百六十九兩零同該關應撥
征銀一千五百三十一兩零寔共銀二萬三千兩零令無仰是天
恩俯准遵照前奉諭旨留於藩庫備賑並此次暫免將
尾銀另款存貯以濟賑卹之用出自鴻施臣謹附片具
奏奉硃批戶部議奏欽此

十一月十八日

軍機大臣會同戶部謹奏為遵旨會議具奏仰祈聖
鑒事本年九月初十日據御史謝榮棟陳請禁革積
弊一摺又附片一件同日奏奉硃批軍機大臣會同戶
部議奏欽此欽遵于十一日由內閣抄出到部查原
奏內稱大捐之設原以籌備經費外來捐生無由知其
身家清白故准同鄉官出具印結近聞傾天捐輸設立
印結公局凡捐生有雙月不論雙單月遇缺儘先指省分
數驗看等名色出結者以按名、層、勤索又添出隨封
謝禮聲明註冊各名目平色不足不准上送原摺有印實開

小捐之謚至于捐生流品身家清白與否概置不問結費
繳足即准上兌是防弊適以滋弊臣愚以為印結之
設斷不可廢除翰詹科道例不出結外准各捐生與
同鄉官相識者取具印結或無相識准託親友轉取
俾持結即可上兌不必勒交公局以兌濫索諸弊現聞
大捐之際請旨以行禁革庶幾捐生踴躍於經費不
無裨益又凡奏內稱始勤于報捐之初取結一次今
則分拆取結指者結加捐儘先遇缺註冊結取結
費皆隨時私設多夥不同即以直隸省而論如捐
一從九未入之微賤自初捐並分送捐至遇缺前

註冊止共需結費一百七十餘兩查定例從九准及月損銀一百四十兩今結費轉浮于正項又現任候補及科甲出身之員服官已久乃概令與初捐人員一律取費出給至由捐輸赴部候選呈請分撥並領咨赴部引見各員因其捐輸時少取印結于選缺領憑分發領照驗看帶引等項均令逐層補足居然立各印結公局每省各有掌管之人得費隨時分派如數目有時增改即私利說帖儼若例似此藉端勒索殊屬有干功令各等語臣等伏查道光九年十二月十六日欽奉上諭省各該衙門京官詳諭該管六部以立例准出

給之人務須與收結之人素相識認方准出結並令各該出結之人公同查核等因欽此又例載捐生具呈均以本省五六品京官印結為憑嗣後例應出結各官具令于每年開市時在戶部聯銜呈明始准出結並于各省例應出結官內呈明一二員其本省京官所出印結均令查核書押以專責成等語又道光二十五年三月初六日奉上諭給事中雷以誠奏捐輸各員請飭部隨時詳查以清流品一摺歷來捐輸大指均照例取具同鄉官印結惟捐輸各員係該生自行具呈並不取具印結此項捐生人數众多難保無隱

隱犯案改名朦之事著吏部于各員銓選到班時飭令該捐生等取具同鄉京官印結方准赴選等因欽此旋據吏部以捐輸人員飭令于投供及分發時取具同鄉京官印結方准扣限銓選其輪選到班如驗看以前未將印結報部者即暫停其驗看科甲出身人員難保在籍時無曾經涉訟隱匿報捐或帶革後改名冒考復行朦捐之弊自應一體取具同鄉各結以昭慎重等因奏奉諭旨依議欽此欽遵各在案是各項捐生之有印結印結之有公局公局之有掌管查核書押之人均係欽遵歷奉諭旨及循照吏部兩

部定例辦理擬請仍循其舊毋庸另議更張至結費一層由來已久原為例所不禁唯不准逐漸加增任意勒索向開各省會館及京師悅生堂願存堂育嬰堂一切便民義舉多取資於結費亦屬勢難禁革況例准出結各司員中矯矯自好者頗不乏人斷不至人人視為利途致滋擾累若如該御史所奏各省結費皆隨私設多寡不同誠不可不嚴切稽查以示限制臣等公同商酌中心核議其本有之費員似難強禁其本無之費豈可遽加相應請旨飭下各部院堂官諭令各司出結司員如有浮多結費即會同公議裁減並責

成查結司員認真查核俾免私有加增其呈捐人員如呈內逐層報捐祇准取印結一張不准逐層索費至已捐各員再行具呈加捐自應照例仍令取結以防捐後別有事故責照頂名諸弊所有臣等遵旨會設緣由是否有當謹恭摺具奏伏乞皇上訓示遵行并此摺係戶部主稿合併聲明謹奏奉旨依議

十二月十九日

漕運總督臣楊殿邦跪奏為河神應恩恩頒賜匾額以昭酬錫仰祈聖鑒事竊照山東臨清州境內與開北山片有金龍四大王廟二座每遇水旱災民有禱

必應本年夏間霖雨連綿衛河水漲驟臨清間幾
至捫口彼時濟東道司徒照在臨清一帶督促重
運率同臨清州知州陳寬及在事文武員弁恭
詣金龍四大王廟虔誠叩禱衛水旗即平緩重
運得以源出閘定八月初間衛河水勢連日消
落節露淺時江廣在後十三邦中因渡黃羈
滯尚未抵境該道等深恐阻淺稽誤即多備
剝艇稟請在山東境內截剝運通一面復赴
神廟祈禱數日之內衛河長水二尺餘寸邦巾艇暢
行入直無須在於東境起剝愈謂時屆交稽衛河

長水如此之旺為歷來所未有丁情極為歡欣皆
仰賴聖德感孚得荷河神默助茲據無署山東
按察司濟東道司徒照稟請奏懇頒賜匾額
前來臣查金龍四大王累荷勅封顯祐通濟昭
靈效順大王神号茲復幸著顯應合無仰懇天
恩俯賜頒給匾額以答神庥而昭祈報謹會同河
東道提督臣顏以燁署山東巡撫臣劉源灞恭
摺具奏伏乞皇上聖鑒訓示謹奉旨已錄

同日

奴才文謙跪奏為閏稅一年期滿征收正餘錢兩有盈無

紕據寔奏聞仰祈聖鑒事竊照閩此稅課每年
正額銀一十萬七千六百六十九兩銅斤水脚銀一萬五千三
百八十四兩六錢五分欽正及盈餘銀六萬五千兩共銀一
十八萬五十三兩六錢五分例子一年期滿奏報茲查自
道光二十八年十月初一日起至二十九年四月二十六日止前
任織造福善經征二百六日計征銀一十萬七千七百
二十九兩五錢八分按日核算多征銀一百二十一兩一錢三
厘內江海關代征湖縣稅銀一萬二千四百八十八兩四錢
三厘奴才于二十九年四月二十七日接任征收起連閩和
至八月底止經征一百五十四日計征銀八萬五百二十八

兩二錢三分二厘按日核算多征銀八十三兩六分內有湖
絲稅銀一千九百九兩九錢二分統計一年兩任征銀一
十八萬八千二百五十七兩八錢一分二厘除額征盈餘全
行征足外尚盈餘銀二百四兩一錢六分二厘查征存
稅銀內于上年十一月間奉撥江南賑需案同因舊
存銀兩不敷由新季徵收稅課內奏撥銀一萬五
千兩又本年三月間奉部撥解南河工需三萬兩五月
三十日準浙江巡撫臣吳文鎔咨會奏請酌留杭關
現徵存及本年續征稅浙銀省賑項遵即查明北
新關征存稅數先經批解藩庫銀七萬兩又盈餘項

下循例撥補南新關銀四千兩應解部科飯食補平
及例支券廉經費等項銀二萬六千九百四十三兩八錢
六分一厘向遵照部奉減平支給外淨存銀四萬三千
三百一十三兩九錢五分一厘復查此項銀兩前經奏
明留浙備賑奴才于關滿後即以四萬三千兩批解
藩庫其餘銀三百一十三兩零繕飯食補平及應
繳平餘銀兩容俟委員並應分晰恭摺同黃冊
另疏題報外所有新關一年徵稅期滿有盈無
絀緣由理合恭摺具奏奉硃批戶部知道欽此

十一月二十三日

陝甘總督臣布彥泰跪奏為查明道光二十七年回疆
軍需甘肅省各台站接遞摺報遲誤之員弁請旨交
部嚴加叅處以示懲儆仰祈鑒核事竊臣先後接准部
咨上年各省台站喀喇沙爾等處奏摺屢有遲誤且
傳牌排單破爛不全多未填註時刻彙奏奉旨着直
隸山西陝西各督撫及新疆經過各城大臣查明何處
遲誤即行叅奏以重郵政而肅軍務等因欽此查關
外各省摺報係由甘肅之肅州鎮永固協涼州鎮寧
夏所屬各台站遞送遵即檄行甘肅按察使分移
各鎮協營趕緊詳細查明核辦去後用各鎮快遞

不查覆屢催因應先將各鎮核附片奏奉請旨交部照例議處在案茲據臬司明說詳稱各鎮核陸續查覆前來當將各站遞送前項奏摺起數其按入境出境時刻逐加細核自關外之馮蓮子井首站起至出境之陝西定過止計程三千一百四里統共遲延喀喇沙爾辦事大臣拜發奏摺夾板四件葉爾羌參贊大臣奏摺七件烏什辦事大臣奏摺二件阿克蘇辦事大臣奏報十一件烏魯木齊都統奏報二件伊犁將軍奏摺一件參贊大臣奏十一件甘肅提督奏摺三件暨臣拜發奏摺二件由臬司分別各鎮核飭取各台弁及上司應說取

名揭帖詳請具奏前來臣查設立台站接遞關外各
城大臣摺報未容稍事遲延況當軍務之事尤應依
限馳遞其傳牌尾單雖查明並未漏填時刻亦無磨
損破爛情事而於接遞限行奏摺屢次遲悞是玩泄
屬已極應即從嚴叅辦以示懲儆相應請旨將該員
將交奏部嚴加叅處查取各遲延職名揭帖並平縣知縣
湯濟川將原叅未完丁耗銀一萬四千八百二十八兩零內據
解到銀六十五兩連前完過銀二萬餘兩共已完銀二萬
六千九百六十兩比較該縣二十五年奏銷冊報已完銀二
萬四千五百餘兩二十六年已完銀二萬六千八百餘兩二十七年

已完銀二萬五千八百餘兩完數有增無減實是止未完二
分以上銀八千七百七十八兩零另據該府查明委係寔
欠在民並無虧那情事並將原參摘頂之案卷息
開復等情前來臣查廣昌樂平二縣經徵二十八年才
耗銀兩于被參後廣昌縣已據徵解全完樂平縣
續完丁耗銀六百五十兩連前次已完銀二萬六千九百
六十兩比較上三屆完數加增尚知愧奮其未完丁耗銀
兩飭查委係寔欠在民並無虧那情事可在仰懇天
恩俯准廣昌縣知縣陳子懿樂平縣知縣湯濬川時
刻分別送部核議外所有查明甘肅省台站接遞摺

報遲悞緣由謹奏奉硃批該部議奏欽此

十一月二十七日

蘓江巡撫臣傅繩勲跪奏為災區查辦撫賑
勸捐踴躍請旨飭交臣核議優獎章程恭摺
奏聞仰祈聖鑒事竊本年江蘓省災出非常庫
藏支絀非勸捐無以接濟迭經臣等剴切示諭助
之以誠感之以誠並委大員分赴各屬善為勸導不
准稍有抑勒自查辦以來各屬紳富甚為踴躍核
濟撫卹節省帑項不少且由各紳董自行經理不
涉胥吏之手事均歸核實小民沾惠實多經臣

傳繩勳擇其最為好義者先給匾額隨時激動
一而飭本堂出力之紳董與捐數最多之富戶由司
詳請從優奏獎當將等時詳情形附片陳明在案現
在各屬撫恤一月口糧陸續放發除江屬十縣由督臣
陸建瀛奏歸等項款內辦理不計外其餘松常太五
府州屬辦理撫卹以帑項與捐項相輔而行除動庫款
銀一十萬五千餘兩之外由紳富捐輸協濟散放共
用錢五十七萬串現當接續勸捐濟入賑未幾截
數蘄州省城一處已捐錢二十萬串約可捐至三十
萬省外州縣自十餘萬串至七萬串即偏僻小

縣亦有三四萬事至一二萬事不第江蘇省民情雖
然好義而歷來未有如此次之多而且速者蓋以近
來國用之款編民共曉食毛踐土具有天良現蒙
內帑之頒人心更為震動一經勸導無不仰体宸
衷輸將踴躍未敢以力乏為辭是其義好也忱不
止誼效柔梓若照常例請身不過虛銜加級似不
足以酬庸在臣等曷敢作破格之請近市恩之名
惟當靈雨不止人心惶惶之際若非各紳富出為籌
辦則通省數百萬災黎未必能安堵如幸而屆其時
用人之力勸人之志不得不許以優獎補入士大夫今

已辦有成效若不為之奏乞天恩則是臣等欺民以
詐况現在接辦大賑用款更鉅尚須勸捐收捐與帑
項相輔而行庶不致度支竭蹶並有沿江一帶圩堤衝
破視擬勸捐備築均須借資民力必當示以招徠惟
應如何從優給獎之處例無明文亦無辦過成案雖
有以順天海疆兩案章程為請者而無成式在案臣
等不敢指請反恐厚薄之差况初次海壇章程僅有
是河迄後得有從優之旨是以該為請者若省辦法
不同銀數官俗未能一律亦復難于援引合無仰懇
聖恩俯念此次江蘇省捐輸格外踴躍非常可比

勅部臣參酌順天海疆兩省章程及各省奏准成案
減半核議自捐銀一千串以上至三萬串為止分別銀
數多寡給以何項官階或准月或準年月或不論准年
月或僅先或遇缺或花翎藍翎或京外各官職銜捐
戶如有官職者如何抵算明定章程頒發照辦俾
有遵循以後不得援以為例其捐項飭令繳貯府州
縣督同公正紳士稽查出納杜絕弊端至一千串以下
之捐之為教令是仍照常例辦理以示區別倘蒙俞
允是以激勵人心捐數必漸更充裕得以源源接濟
多一分捐資者一分中項庶于國計民生兩有裨益

臣等為民指擄羅起見用敢冒昧直陳謹會同督臣
陸建瀛恭摺具奏奉 硃批該部議奏欽此

十二月初二日

明年元朝日食着照例停止朝賀筵宴皇太后行
禮筵宴併止該部屆期毋庸呈進儀仗欽此

上諭鄭祖琛奏派委文武迭次剿捕匪徒情形摺
廣西迤上境盜匪聚眾竄擾經該撫選派文武將弁
蒞傷官兵要犯拏獲正法其餘夥匪除節次攻營
格斃不計外現在獲辦二百餘名勢窮處紛
逃散該處界連廣東難保不因追捕緊急四出竄

匿者鄭祖深嚴飭文武各員於交界要害處多派
 兵勇嚴密查拏并著廣東省派員堵截務期殲
 餘盡淨勿留存孽至復廣西提標遊擊令州營
 守備段雨南奮勇殺賊受傷殞命實屬可惜可憫
 著加恩照例將例賜卹慶遠協右營外委吳玉
 魁貴州營外委巫宜福並前在廣東不殺賊陣亡
 之慶遠協把總吳廷凡在江鎮把總黃景裕左
 營外委馬金魁均著賜卹所有文武將其在為
 出力者的保數員候朕施恩毋許冒濫欽此
 四百餘里廣
 東四千餘里

十二月初四日

諭正陽門箭樓不戒於火明年修改方位不宜著派內務府大臣迅速確寔勘估興修並著於立春以前趕緊開工其動用何項錢糧著內務府大臣屆期請旨欽此

十二月初十日

奉浙江道監察御史奴才宗室文光跪奏為預籌積貯以寔倉儲仰祈聖鑒事竊惟本年夏間江浙安徽湖北等省均被水災官蒙天恩准免稅招商販米接濟使億萬窮黎不致承離失所仰見我皇上仁同

覆載憂食元。之至意惟京都為根本重地而倉儲之設
尤以兵食為先近來南糧每多缺額今年產米省分被
水成災深恐來歲新漕自不克短絀不可不極為預籌查
道光十八年軍機大臣會同戶部議覆御史胡長庚條
陳積貯摺內請粟米折價經戶部議准又二十二年
戶部的議于俸甲米內分別折減于兵丁每名應領二
成半後米改給一半例例一半嗣經倉場侍郎奏請以
放欠盤暫行停止又二十五年奏請恐新漕抵通達
近糶米不敷開放量為變通于王公大臣官員兵
丁俸用米內均扣折一成以糶米抵給後于二十七年議

准于六丁應領撥米及二十八年用米山均折給例價經
却臣先後交清領家允准施行若在案米是可知現在
倉儲本米見有充足却臣力求搏節屢次設法變
通以實積儲因思自親王郡王貝勒貝子公滿漢
文武大臣以及兩漢世職並八旗滿漢文武官員等每
年應領春秋兩季俸米通共約計三十餘萬每于領
出來票後多有等買者而奸之商等遠相勒掇收買
若齊轉賣在所不免奴才愚見甲米尚雖議准按成
折價已有成案可遵俸米何不照議折價一律撥案而
行相應請旨勅下戶部可也于明年所有親郡王貝

勅貝子公滿漢文武大臣及滿漢世職並滿漢文武官
員等應領春秋兩季俸米仿照甲米折價章程將
應領各米色內每季應折折錢成悉由戶部核辦
仍按照例價給發俟轉歲有漕省分年各領成或即
停止如此等辦一年之內倉中約少出米十餘萬石不惟
于倉儲不無小補似較各省採買米價尤廉民食益得
又外省一切運糶之浩凡而且于奸商等勾串勒價買
粟之弊不除自銷矣奴才等見所及是否有當謹奏奉
旨已錄

十二月十二日

上諭北邦藉圖奏參知縣經征下忙錢糧延不交
清請旨革職勒解一摺山西平遙縣撤任知縣李
永年應交地丁耗羨銀一萬九千餘兩延不交出顯有
侵挪情弊當此清查整頓之時即係舊虧亦應從
嚴辨理李永年著即革職勒限一個月儘數完解

如再逾限不完即照新定章程從重各辦欽此
昔所有蒙古王公台吉等在御前行走者俱著穿
孝仍停止筵宴欽此



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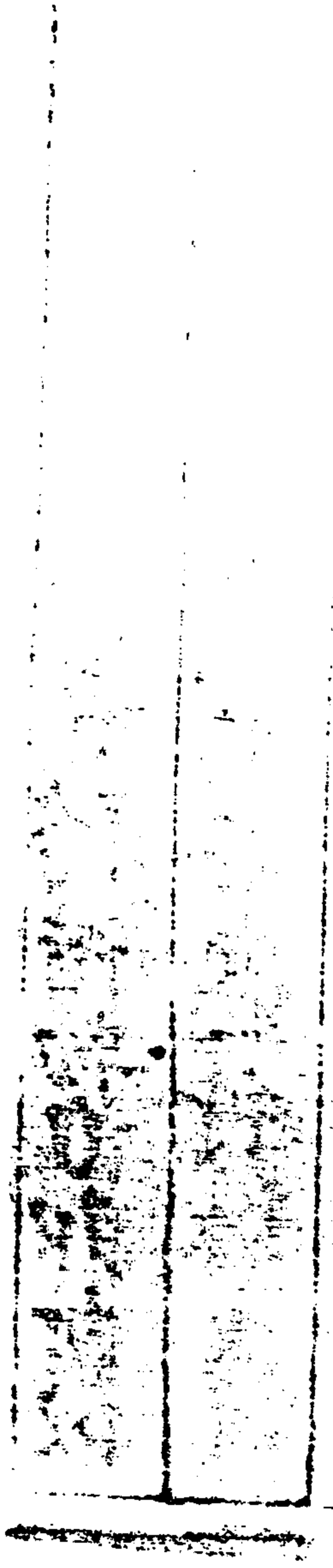
道光二十九年十二月十日

恭慈康豫安成莊惠壽禧宗祺皇太后誥曰
予以薄德祇承先皇帝冊命備位宮闈迄今皇
帝廟紹丕基孝思倍萬承歡奉養一秉敬誠
視饒問安卅年有如一日子予因得康彊愉樂
頤養天和且見皇帝自御極以來敬天法祖勤
政愛民宵旰憂勞有加無已予心益深欣慰雖
以桑榆暮景時惕衷懷尚幸體氣素稱強
健或可長享期頤共樂綏恬之福詎意昨遽宮
後偶染微疴皇帝侍藥問安如事如常惟復

予亦思調理就愈以安皇帝之心不期延至十一日申時神思漸散遂至彌留予壽臻七十有四母仅尊養二十九年因西陲底績特晉徽稱遇萬壽而祝釐迭舉慶典五福既備復何憾焉惟念皇帝遭茲大故倍覺熒然且年近古稀不宜過於悲痛務當勉節哀思一以國事為重中外文武恪恭厥職共襄郅治予灵爽宗與嘉之其喪服酌遵旧典皇帝特服二十七日而除大祀固不可疏群祀亦不可輟再予向以儉約樸素為宮壺先一切事闕典禮固不容矯從抑損至於

飾終仅物有可稍後簡約者務惜物力即所以
副予之素願也故茲誥諭其各遵行

卷九十



上諭朕等奉皇太后以天下養二十九年仰見壽考復
庶彊壽考奉皇太后以天下養二十九年仰見壽考復
庶彊壽考奉皇太后以天下養二十九年仰見壽考復
昨于初七日奉駕還宮連日恭詣請安知慈躬偶爾違
和竊謂頤養數日即可安痊詎意高年病勢日增遽
於十一日申時仙馭升遐銜恤哀舞痛何能極伏念
朕自聖母孝淑賢皇后慈馭上賓以來深荷大行
皇太后慈恩履歷庇私冀承歡奉養慶日方長今竟無
由再仰藥顏悲懷難釋欽奉遺誥喪服二十七日而除
朕心實所難安仍當穿孝百日并素服二十七日稍伸
哀悃至諭以朕年近七十旬無過悲哀國事為重敢

不敬遵遺命強加抑制本日復據王大臣會詞額懇
勉節哀思奏請仰遵皇祖高宗純皇帝成憲并勉加
所請每日奠殿後仍居養心殿所有大喪禮儀著照
忠親王綿愉定郡王載鈺太皇太后著皇太后書文慶敬謹
管理一切應行事且并著洋摺舊案悉心核議隨時
具奏將此通諭中外知之欽此

皇太后昨日駕崩禮部奏本日午時齊集又奏回服白日不雜髮三
十七個月青袍補又奏王公文武官員出入神武月景連門不准走神
道又奏王妃命婦不准過神道等儀司奏午時清入金棺忍見軍機
怡親王信王鄭親王皇上今日卯正二刻上駕

光緒二十九年五月十二日

奴才德勒克呢瑪跪奏為和闐續墾提巴什地
畝試種有效減半升料折交銀兩業經完納貯庫
所有在事捐工出力各員擇其尤為出力者願懇
天恩量予鼓勵仰祈聖鑒事竊查和闐續墾阿提
巴什餘荒地畝一茶所有捐廉開挖渠道各捐戶承
種並定則升料各章程均經奴才咨呈伊利牛將軍
薩迎阿先後奏請勅部議准辦理在案奴才于去
歲試種成熟後親往該處驗看得渠水通暢各
麥成熟較之近城培增豐稔茲于道光二十九年

八月初十日據阿奇木伯克呈繳本年減半升銀二百兩當即飭令照數貯庫經奴才隨即親詣該處周歷履勘大小渠同道均各照舊堅固渠水暢旺溝既可資詢其收成分數比試種之年有增無減是此項荒蕪之地已變為膏腴之田此皆我皇上愛育黎元裕國足民之驗也奴才檢查成案各處開墾地畝其捐工出力人等均經各往城大臣奏請鼓勵仰蒙准在案前次和闐開墾達瓦克地畝所有在事捐工出力各員由奴才奏請鼓勵奏到上諭前據德勒克呢瑪奏請將開墾達瓦克

地畝之在事捐工出力各負量予鼓勵一摺當交吏部議奏茲據該部核議具奏所有該官員書吏應得議叙之處均著無該大臣原請給予以示鼓勵該部知道欽此遵在案仰見我皇上軫念邊疆微勞必示之至立息今和闐墾阿提巴什地畝自典辦以勘丈地畝開挖渠道採辦物件督催人夫以及捐備牛隻農具種口糧均係自行輓運是捐者並出力洵屬踴躍急公乃得迅歲臣接准移交卷內據藩司詳稱查甘省內地所轄教職共八十一缺佐貳佐雜共九十二缺按各應劾二員曾于二十九年甄別過年老西寧府教授步恒裕

正寧縣典史潘甲二員其餘皆精力尚健供職勤慎毋庸
參劾由司詳請前來布衣及卷未及具卷移交到臣除將
本年已經甄別之員開單咨部外臣南經蒞任各員多
未接見容臣留心訪察隨時認真辦理所有接准移交
本年甄別教佐均未足額緣由理合繕列具奏奉硃批
吏部知道欽此

十二月十三日

上諭奕綱等奏拖欠庫租迨不完解等語直隸遵化州等
州縣應解永濟等備兩庫地租近年拖欠至二萬六千八
百餘兩之多內遵化一州欠至一萬九千四百兩為數最鉅現

經該省辦理清查所稱歸入攤墊各款作抵是否有益其餘拖欠除據報緩徵之外尚未完解者直隸總督查明有無帝混弊竊嚴飭州縣將前項拖欠租銀遵限奏定章程著落賠補迅即完解無得再任玩延以重庫款而備支放欽此

十二月十五日

諭太后皇太后母儀天下慈著徽音三十載以來
延禧垂隆尊養無隆今茲仙御升遐朕心哀痛
不能稍釋敬稽典禮宜隆謚以表尊崇著
大學士九卿會同教誥詳議具奏欽此

十二月十七日

昔明年元朝朕暫御青袍褂冠綴纓緯辦事後仍
服縞素王公大臣及文武官員均著穿青長袍褂一日並
帽綴纓緯是日凡筵前允一日執事等人員俱著仍服
縞素欽此

諭宗師入冬以來尚未優霑雪澤前經設壇祈禱旋
派四阿哥奕訥著虔詣三壇致祈現在農民望澤
孔殷朕心寔屬焦灼允宜再申虔禱以冀速霑祥
霽朕于本月二十一日天神壇虔申叩禱其地祇壇
派四阿哥奕訥於本歲壇派六阿哥奕訥俱于是日隨

朕詣壇中禱所有朕此次親詣夜行各事宜着各該
衙門敬謹豫備欽此

十二月十九日

諭本月二十一日奉移皇太后梓宮于綺春園前曾降
旨朕即在綺春園內苦次居住茲復據王大臣等會
詞籲懇以朕春秋漸高若朝夕居于苦次恐稍失
調衛轉非所以上答皇太后平日慈愛之心下慰中
外臣民之望生不得已勉如所請於奉移禮成後仍回
德堂居住欽此

同日

諭福濟陸建瀛奏通等湖河大局酌擬添塘避閘
繪圖呈覽並查湖河督等辦理避閘請分別議處
嚴議革職各一摺又另片奏酌籌築堤疏通海口情
形又陸建瀛另片自請議處各等語案奉均悉本年
河朔受淹較甚現經福濟陸建瀛周歷親勘悉心體
察以有的擬添塘避閘茲以時啟故各堤及對堤通
溜攻刷海口之處自必各快機宜確有把握著卽照所
議責成陸建瀛會同河督隨時督飭認真妥辦總期疏
通暢順啓閉得宜漕運既可進行湖河亦免漫溢方稱
妥愷經此次查辦之後明歲倘伏淤淺堪運甚或河流潢

巡撫視隆老病歸里而西也。吏具服官。舊省最久。今江蘇
省水災較重。等辨賑卹。撥捐制錢五千串。遣丁解交江
蘇藩庫。以備賑需。稍盡微悃。呈請代奏。等情。餘咨江蘇
撫臣辦理。合據情代奏。謹奉旨。已錄。

禮部謹奏為奏聞事。恭查乾隆四十二年欽奉上諭。孝
宗憲皇后喪儀二十七日之內。著照軍機大臣所議。遇郊
廟大祀。雖係遣官致祭。仍當作樂。穿朝服行禮。其餘尋
常祭祀。均用素服致祭。樂設而不作。著為令。又是年奉
旨。郊壇大祀。若負在壇。壇以外者。毋庸論等因。欽此。
欽遵。在案。本年十二月二十九日。禘祭太廟。次年正

月初八日祭祈谷壇臣等謹擬均照乾隆四十二年諭旨
敬謹遵行爲此謹奏奉旨已錄

十二月二十五日

旨本年十二月二十九日祭太廟明年正月初八日祭祈
谷壇具前期三日齋戒朕于齋戒期內照部議援引乾
隆四十二年百日內舊例御素服冠綴纓緙至致祭
之日禮畢御用服色亦與齋戒日同所有王公大臣文
武百官等明年正月初七日以應禘屆縉素之期毋
庸設外其兩次齋戒三日及致祭之日均著穿素
服冠綴纓緙惟凡造前凡百執事人等均仍服

縞素欽此

上諭陳慶偕奏現籌海方情形一摺山東洋商僱募艀勇以資巡緝所需經費著准其在守捐輸海疆經費項下借銀一萬五千兩樽節支用無許藉詞冒濫餘著照所擬辦理欽此

上諭翁心存著授八阿哥讀欽此

湖廣總督兼署湖北巡撫臣裕泰跪奏為新選知縣請留省察看一冊飭赴任恭摺奏祈聖鑒事竊照知縣為親民之官必須才識練達紉循得宜方不致有貽悞茲新選湖北通山縣知縣韓

本立係河南許州人年四十九歲由舉人大挑二等以教職
用嗣因大工勸捐出力保奏奉旨着補缺後以知
縣用道光二十六年選授鹿邑縣教諭是年五月
到任二十八年選授今職請咨赴部引見奉旨擬
依用欽此于今年八月到楚之臣于接見之下察其心
地屬明晰尚詢以吏治則為亦能諳練通山雖係
簡缺惟地處山陬民情刁悍撫馭較難現當敷正飭
之際若遽飭赴任恐滋貽誤查該員係舉人出身
年力尚強不致不堪造就自應暫行留省學習據藩
臬兩司具詳前來相應請旨將新選湖北通山縣知

縣韓本立暫行留省察看數月如果認真學習
委辦公事無誤再行飭令赴任臣為慎重地方
起見是否有當謹摺具奏奉硃批依議欽此
江西巡撫臣貴開綬跪奏為失察差役夥盜餉鞘
又未能究出寔情之知縣請旨解任訊辦恭摺奏祈
聖鑒事竊據建昌縣知縣張玉堂詳報道光二十九
年二月二十六日准南昌縣護解浙江委負博惠管
解雲南兵餉銀五萬兩到縣當經照例寄貯縣署
大堂派撥兵役看守次早據兵役稟報是夜被賊竊
去餉銀一鞘計銀一千兩會同勘明飭令兵役跟踪緝至

署後萬壽宮山上尋獲鞘壳一個原銀五封秤重五百兩
擊獲賊犯魏其招魏其炳彭景茂陳善長四名起出餉銀
三錠訊係魏其炳起意糾同魏其炳等一共四人行劫因聞
拿餘嚴禁贖去案河內該縣雇募水勇打撈無獲將
餉銀如數賠墊由司發給印花另備鞘壳裝釘交原解
委員清解前進錄供通詳飭審魏其招魏其炳先後在
監病故報稱司府委員分別驗訊詳報經司行提兵
役化証到省委員審辦旋據民婦魏范氏以差役劉
錦等栽贓誣治致夫氏魏其炳弟兄先後利殺等情
赴臣衙門具控批飭確究在案茲據該委員署南昌

府知府鄧仁堃以陳長一犯于取供後帶病守禁新建
縣監身故提訊數輩茂忽認忽翻並究出縣後廖順陳
瀛與魏其松等同夥行竊直據該縣張玉堂訪聞將廖
順等拿獲並起繳餉銀六錢解省訊認夥竊不諱犯妻
魏范氏亦以原控不實具結呈悔惟該縣先未究出請
解任訊辦等情詳由署臬司熊我舍同藩司陸元煨呈
請具奏前來臣查該縣張玉堂于寄貯縣署餉箱並不嚴
加防範以致疎失已屬玩忽且係縣役廖順等夥竊何竟
漫無覺察絕不追究迨經委員訊有端倪始據訪聞獲
解更恐有迴護規避情事相應請旨將建昌縣知縣張

至堂先行解法以便提同人証確審寔情按律各辦
以昭核寔是謹會同兩江督臣陸建瀛恭摺具奏奉旨
已錄

十二月二十六日

前任浙江學政趙光到京請安全福謝淮閑監
督恩總理喪且王大臣奏明年正月初七日兩水後上
祭時刻于初八日起早晚祭前建一刻午祭照舊
旨依議

上諭前據福濟陸建瀛奏查明南河辦理遲延寔情
請將河督道廳各員分別設處加設革職並陸建瀛自

請設處當經降旨俟查明軍艦能否故次再降諭旨
茲據福濟陸建瀛覆奏籌辦回空情形一摺並陸建
瀛楊以增自請加設等語本年河南吳城大堡啓閉皆不
如法以致河湖受淤回空軍艦不能如期啟次雖現在各
幫船俱已接續償出清江閘擴稱年內可以竣事然仍
係約畧之詞且使有漕省分不能不預籌迎兌紛紛
建議大費周章專轄及兼轄之員實是難辭咎陸建
瀛楊以增著先行交部加設加設處且看果否不誤
新漕俟覆奏到日再降諭旨至辦理有乖機宜准
陽道查文經著照議即交部嚴加議處撤任外南同知

王湘外南營守備師長鏡亦著照議革職所有各幫
船出關後能否迅速渡江分別歸次受兌各淤墊廢所
迅速挑挖深通重溝經臨果否暢行無碍該督與河
督等如有無把握著福濟陸建流會同楊殿邦楊以增
妥籌核辦該漕督所議四條有無增損迅速具奏欽此

十二月二十六日

給理喪宜王大臣奏明年正月初七日雨水後上冬時刻于
初八日起早晚各前進一刻午冬照舊旨依議理藩院
奏請派執事西藏喇嘛奉經旨留召見軍機趙光全福
奉旨旨金儀清奏恩利銀庫滋生銀兩由典置地本年應正租

銀並積年拖欠銀兩除解對外尚未完租銀共二十萬五千九百五十餘兩零著直隸總督嚴飭各屬務將前項新舊欠銀迅速催解嗣後並將按年額征租銀實力催交不許再有拖欠欵此

上諭前據福濟陸建德奏查明南河辦理運運實情請歸河道廳各員分別議處嚴議革職並陸建德自請議處當經降旨俟查明軍船能否歸次再降諭旨茲據福濟陸建德疏奏等辦回空情形一摺並陸建德楊以增自請嚴議等語本年南河吳城六堡啟閉皆不如法以致河湖受淤回空軍船不能如期歸次雖現在各幫船俱

已接續備出清江關據稱年內可以竣事然仍係約
累之詞且使有漕省分不能不預籌迎兌紛紛建議大
費周章事轉及魚鱗之負定難辭咎遂建議楊以
增著先行交部處加議處且若果不誤新漕俟覆奉到
日再降諭旨至辦理有年撥宜准楊道查文錄著照議
交部處加議處撤任外南同知王湘外南營守備師長毓
亦著照議革職所有部能出關能否迅速度等分別歸
次受先於甄處所能否迅速批挖洋通重漕經陸果否暢
行無碍該督于該漕督等有無把握著福治陸建德會同
楊殿邦楊以增妥籌高辦該漕督所請四條在案一增撥

迅速具奏欽此

十二月二十七日

掌儀司奏二十九日祭奉先殿景公行禮又奏元旦祭
壽皇殿悼郡王恭代行禮召見軍機定郡王

上諭劉訥河徐繼畲奏請將欠解兵米之知縣、丞摘去頂

戴勒限全完一摺福建省倉糧米食收則不容顆粒短

缺乃該縣等藉詞支飾欠不批解寔為沆瀣福建署順

昌縣知縣張同福既寧縣知縣李國峽陽縣丞趙國柄

迪口縣丞胡惠疇麻沙縣丞王大德著一併摘去頂

戴勒限兩箇月照數完解倘限滿解不足數者有

虧挪情弊即着從口叅辦該部知道欽此

上諭陸達瀛奏請將獲犯之總兵知州開復頂戴一摺
江南狼山鎮總兵王鵬飛署通州直隸州知州候補府何
森林前因匪徒糾搶場灶不能迅速擒捕降旨將該
員等摘去頂戴勒限緝拿茲據奏稱該員等于被
叅後督飭兵役將糾搶首要各犯拿獲解審尚知愧
奮王鵬飛何森林著一併給還頂戴欽此

陝西巡撫臣張祥河跪奏為校閱省標官兵情形恭
摺奏聞事竊照陝省地處岩疆武備最關緊要臣
于本年二月抵任查得撫標中左右三營額設兵三千

二百 十九員名除歲派西口換防實是在官兵三千九十八員名當經諄諭該管將領務宜勤加訓練不可任其驕縱並因鳥鎗為軍營利器抬炮抬鎗更為制勝及遠之具臣本標考缺抬糧先以火器為準其次放一項照依原任提臣陳偕平奏准加切精造三法白杆椿竹節珠呈驗本備有三千餘觔茲復飭備三千觔一併存貯現屆冬令操臣調集三營官兵于十一月十七八九等日親赴教場通行校閱合圍布陣如或齋整特將抬炮鎗藥挑出滿武中靶者十得七八其官兵馬步弓箭則即在臣署靶道分日閱看統計

馬步守兵中箭成數在八分以上分別獎賞記名拔補
生疎者予以責徵勒限練習將領備弁騎射均向
可觀惟查有空閒射無準之候補千總世龍不怠騎尉
李趙勇仕正均應斥退照例另覓候補千總武舉寇
文傑候補把總武舉劉謀均應革退隨營仍留武
舉經制外委賴升應降為馬兵以上各弁在標有年
力弱技荒不知練習當即咨部分別辦理臣深懼惟
武備未諳惟有寔力講求督飭各營將領倍加訓練
倘有曠操缺額等弊即行從重劾參斷不敢稍涉姑
容以仰副皇上設兵衛民整飭戎行至意所有臣閱看

本標官兵情形恭摺具奏奉硃批覽欽此
兩廣總督臣徐廣縉跪奏為查明玩視錢糧交代
之知縣請旨摘去頂戴勒限清厘以重帑項恭摺奏
祈聖鑒事竊維錢糧乃維正之供例分上下兩北儘征
解儘交代遇盤查之意向定初二參限即應清厘地方官
平日在任果能恪遵成憲謹慎奉公遇有經徵錢糧隨時
清解則交代之際自亦不難依限可結查有卸署歸案縣
知縣江肇恩于任內應征本年上北錢糧既不能依限上免
逾交卸署將屆二參交代雖已核算而短交銀兩又逾不清
交當此清查庫款起辦交代之時乃敢一味遷延仍蹈因循

積習似此玩視正項庫款未便稍事姑容且更難保三廳
柳情契茲據藩臬兩司具詳前來相應據實彙奏請旨
將印署歸善縣知縣江肇恩摘去頂戴勒限四個月分
別解交清款如仍不知愧奮即當飭查虧短定教從嚴
參辦以昭炯戒臣等謹合詞恭摺具奏奉旨已錄

十二月二十八日

上諭恭理喪儀王大臣奏大行皇太后梓宮擇吉於明年三
月二十日卯時奉移昌陵隆恩殿朕追憶茲額懇痛身極
允宜親送梓宮辨仲樵某二月二十日卯刻朕親詣几筵
前奠酒跪送即由溍春園啟慶門往黃新庄行宮梓

宗到時先赴蘆殿祇候朕跪迎奠酒仍回行宮白黃新庄
以下各站皆照此行禮至梓宮將抵昌陵之前一日朕親詣各
陵祭告仍按時在昌陵祇候梓宮到時跪迎奠酒安奉隆
恩殿禮畢回宮所有應行典禮並一切事宜著各該衙門
及直隸總督教謹豫備欽此

十二月二十八日

奕毓病痊請禮部奏初三初七等日忌辰照例素服又奏初
九日禁止屠宰掌儀司奏元旦祭奉先殿堂公行禮內務府奏
初一初九等日大高殿光明殿拜表初一日成_瑞親王行禮初九日
溥公鈞貝子行禮又奏分賞鹿鹿完竣首得知道了總理

喪儀王大臣奏三月二十一日奉移大行皇太后梓宮至西陵旨
留召見軍機鄭親王怡親王德王阿灵阿

十二月二十九日

兵部奏理喪儀王大臣奏大行皇太后梓宮擇吉于明年三
月二十日卯時奉移西陵途息殿殿進憶慈顏悲痛等極
乞宜親送梓宮藉紳樵慕三月二十日卯刻親詣几筵前
奠酒跪送即由將春園啓塞前進新庄行宮梓宮到時
先赴芹殿祇候朕跪迎奠酒仍回行宮白夢新庄以下各站
皆照此行禮至梓宮將抵西陵之前一日朕親詣陵祭告仍
按時在西陵祇候梓宮到時跪迎奠酒安奉惟思殿禮畢

回塞所有應行典禮並一切事宜著各該衙門及直隸總督敬
謹預備欽此

十二月二十九日

旨壽昌准其一体會試嗣後各省駐防文學士人現在京官者刑
部尚書臣李振祐疏奏為病後氣弱調理需時籲懇天恩
俯准開缺事竊臣猥以病軀屢蒙宸轅迭蒙膏霽假感悚交
深嗣于十一月二十二日因病勢未痊奏請開缺奉旨再賞假
一個月安心調理欽此聖慈高厚體恤逾恒一月以來加意調
攝心境漸開飲食多進惟精神尚覺恍惚偶遇寒氣即覺難
支現在假期已滿勉強當差誠恐再加感冒萬不得已惟有仰

懇鴻慈俯准開缺臣受恩深重報稱毫無斷不敢自外生
成私圖安逸倘奉 以後上托聖主福庇精力稍充即當泥
首闕廷求賞老使為此披宣滙減伏乞皇上聖鑒奏奉
旨已錄

漕運總督臣楊殿邦跪奏為節逾亢旱回空帑船挽放仍
形艱滯現任酌擬新漕免逾事宜以免貽誤恭摺奏祈聖
鑒事竊照淮揚運河淤墊回空運船藉滯各情形節經
臣等摺具奏在案伏查回空運船入運以淤墊回空
之阻滯本在急計之中臣於押運途次即咨行催辦灌塘
事宜直乃于張福口引河未能挑深僅出水乃請下游運

河不敷補注仍節淺滯前次由太平河放出頭塘船三百九十隻出運口各開度淺十餘日至十一月二十一日該管道廳由迤北完備送塘河蒲河引放蓋水入運始得浮送南下時維欽差戶部侍郎臣福濟會同兩江總督臣陸建瀛自南來工會勘妥商議定先提幫船掃放渡黃再行設法催備出江當經會同派員將塘河存船騰入太平河暫為住泊提催河北未渡船七百二十九隻于十二月初五日全進塘河其太平河淺阻各帮並太平河下淺滯之處亦徑道廳由塘河引放蓋水指高惟太平河之底本高于運河水面六尺餘寸現在引水高至一丈以外一經整拾傳船隨溜奔騰而勢

甚艱險下游惠濟福興清江等閘勢不能不挨次啓閉
唐、套放藉資掣托臣職司漕務惟以速漕為重且此次
在前回空倉部船西駕守已六十餘日即在後之幫亦有
三四十日之久本年有漕可運亟思歸次免糧即輪流減
歇亦轉望到次遣散舵水以節日用臣日擊情形深為焦
灼現嚴飭漕務員弁一俟河工啓閉放塘即押令跟接閘下
如敢稍有停滯立即嚴提了舵痛懲運弁摘頂棍責惟衛
漕甚遲各直漕糧已據糧道具報定期開兌而空船尚有
二千六百八十二隻未領下閘現在引黃濟運河身愈加
憂前出江之期尚難估計未便稍事貽誤謹將此情形附

例著各酌現在情形等議免運新漕章程額為我皇
上陳之向于十一月受兌十二月初旬盤驗過淮現在淮揚
運河湖淺自須挑挖查向來運河築堤與挑兌運淮海
和船均經奏請先行受兌暫緩盤驗存案應另挑兌堆
糧之大河前淮安二兩和船于下游擇定水深處所先行
受兌俟挑工完竣清水暢注再行提准盤驗北上其揚州
二三等和亦令依限辦理以江廣船運甚遠以須先期籌
運也現在首進和船尚未全放下閘江廣運道既遠回空
二途節逾大寒即趕緊進行恐將到次已在常年出運
出境之後查向來回空或因河棚或因中途凍阻江廣俱

等守辦通商迎幫免運之法應責成江西湖北湖南各糧道
查照成案趕緊籌議以便臨時辦免免致貽誤一江浙各
帮應另起辦赴次免免也江進淮較此一經出口即可尅期
歸次早今年起運漕糧無多現在竭力催備並令糧道先
行赴次辦俟帮船到次而轉令迅速免開跟接來淮不准
稍有耽延一現有未任下關各帮應查照成案借給銀兩
以資接濟查嘉慶九年十四年道光四年或因夢運棚戶或
因中途羈滯均經奏請借給銀兩以資食用此次回空
和中塘需滯河口已久丁蛇等倉指浩凡攜帶土宜既未能
即時銷運連次無從借貸可情苦累不堪現據各帮紛

呈借前來相應仰懇天恩俯准借給銀兩查本年回
空渡等運解計三千五百隻應照成案在於河庫道動
借撥行江庫糧道等司款委員借還道庫所有借給各員
銀兩自明年冬季起在於各丁新運糧內分兩年扣清歸
款以上數條臣為新漕等案並仰丁情起見恭摺具奏
奉旨已錄

十二月三十日

吏部議奏陸續建流揚以增處分旨留奉儀司奏初三日祭
奉先殿華公行禮又奏初七日祭奉先殿崇公行禮旨
俱知道了侍衛處更換皇神圖旨依議在見軍機處

後阿是阿

此書在上十二月

十二月二十日

十九日下

十二月二十日右聖引見三十七名前任江寧將軍岳興阿
 東摺請安禮部奏頒發外省遺詔兵部奏查衛首派
 那昌西興阿慶興之德興老日臨花山太興貴奕縉又奏派
 時應言聽從旨派巴公都察院奏派總督值年所之御
 史首派仙保恩符增齡普日太石見軍機怡親王鄭親王
 僧王皇上明日用膳辦事後出發祥門進慈祥門至大行皇
 太后前行禮跪送後仍由舊路還宮少坐出順貞門神武
 門西安門西直門倚紅堂少座由西路進出入順貞門由內

進將春園門跪迎卯正三刻豫備

庚戌正月初一日

新正月初一日欽天監奏風從坎地起主物阜年豐旨知道
了已見軍機大臣

太常寺謹奏為請旨定于恭照本年十二月二十九日歲暮有禘
祭太廟奉旨遣仁壽恭代行禮兩廡遣法寺嘉感福各
分獻欽此欽遵在案恭查乾隆四十二年孝成憲皇后
升遐二十七日持服之內所有是年二月應祭功臣專
祠因係本朝臣等與神廟不同經臣等奏明均行停
止致祭在案臣等伏思本月二十九日禘祭太廟正值大

行皇太后慈馭上賓二十七日持服之內其兩廡既享亦
係本朝臣宰與各功臣專祠無異臣等援照成案可否
停止兩廡分獻之處恭候欽定為此具奏奉旨已錄

正月初二日

欽天監奏救護日食覆命又奏呈建豐年賀表旨俱知
道了禮親王等奏請駕母庸親送梓宮一摺旨留
特登額因病請假旨償十日口見軍機處親王鄭親
王僧王定郡王

正月初三日

奉上諭挑王大臣等奏奉移大行皇太后梓宮因朕年

近七旬氣體尚未復元合詞籲懇勅朕停止親送奉安
大禮何敢不送何忍不送惟諸大臣情詞懇切若果稍減
儀文亦無以安諸王大臣之心三月二十日朕仍留緡春
園跪送後先赴廣新庄行宮每站皆殿罪行宮遠近
不一或有碍難前往之處著俯從王大臣之請稍積勞
勤每日在行宮苦宿所有苦殿前近送儀節忍痛從減
二十三日住宿梁格莊二十四日朕親詣各陵祭告按時回曷
陵祭告祗候梓宮到時跪迎奠酒安奉隆恩殿祭奠成
禮二十五日祭奠禮成即行回蹇各該衙門知道欽此

上諭祁嵩藻琦善奏甘肅省清查案件舛錯參差請

另行核議一摺著琦善督飭新任藩司揀派妥員悉心厘
剔自奉到部文之日毋予限八箇月竣款清厘核數具奏毋
稍含糊延就該部知道欽此

上諭祁嵩藻琦善奏審明甘肅知州稟許上司挾制各款
分別定擬一摺此案陝甘總督布彥大雖查無賍私重情
推封疆大員閑防不密辦理清查致多歧悞並令屬員虛
報到任聽家人售賣衣物種、粗率殊負委任著照
議交部加加該處即行回京聽候部議解任固原和州徐
采鎮原縣和縣張琅吐魯番同知托克清阿放留省辦
理清查李務並不認真查核輒隨同藩司方慕草

卒了事寔屬咎無可辭徐采張琅托克清阿均著交
部議處升任布政使張祥河前署布政使春熙督辦清
查參差舛錯在任未久亦著交部議處其隨同劃稿並
非專辦之司道府縣各員交部查取職名分別議處餘照
所擬辦理欽此

上諭祁雋藻琦善奏知縣稟許道員審係全誣等語
甘肅撤任安定縣知縣朗蔭夔因蘭州道楊能格查出
該縣倉庫虧短輒以該道沿途需索夫馬收受規費
等情控詞妄許異圖挾制寔屬刁詐現在審係虛誣
自應按律懲辦胡蔭蔭著即革職從重發往新疆効力贖

罪應繳銀兩即著落依限賠繳楊能格訊無不合著與並
未致送規費及攤派銀兩之秦州知州董平章均毋庸議餘
著該部知道欽此

兩江總督臣陸建瀛跪奏為甄勅遊擊都司請量別
革職降補勤休以肅營伍恭摺奏祈聖鑒事竊維武
職中軍遊擊都司均有操防之責必須技藝優嫻才品
出眾方足以資得力江南武備廢弛尤不可不加意整頓
查有署蘇松鎮標中軍遊擊鹽城管遊擊王夫春江
南人行伍出身該員箭射無準鎗炮生疎于水師緝捕亦
無所長又遊兵營遊擊張義貴州武進士該員不諳營

情形辦事亦復且緩又佃湖管都司章其和山西監
生損納都司該員身體疲軟不能振作相應請旨將
署蘓松鎮標中軍遊擊于王大春革職遊兵管遊擊張
義以都司降補佃湖管都司章其和勒令休致除各委
員接署外臣統轄三者耳目恐難周到惟有叩密查訪
並函囑各撫臣提臣隨時整飭不敢稍涉徇縱為此
恭摺具奏奉旨已錄

雲貴總督臣程商來跪奏為捐備江省賑需請
照案于解滇餉銀內劃抵奏祈聖鑒事竊臣籍
隸江西新建縣毘連九江與鄱陽湖最近地居湖北

下游本年感漲經臨凡濱江臨湖各州縣田畝悉遭
淹浸早晚無收臣寄佳湖鄉水比上年為大已經撫臣
分別撫綏近聞印抄復奏蒙恩旨普加賑濟小民諒
無失所之虞惟計及春收屆期尚早現當冬令為日方長
間谷價漸已增昂民食倍形支絀臣等程撥采前在
江蘇布政使任內辦理皮賬事宜因勞成疾蒙恩准
其回籍調理已令家中捐錢買米接濟鄉鄰但地
密人稠遠處未能調卸臣謹閱柔梓寢饋難安亟應
推廣皇仁以為本省紳民之勸謹備銀五千兩收貯雲
南藩庫以備江省賑需仍請照上年成案于江西應解滇

省餉銀內互相劃抵藉省長道運送之艱除移咨
江西撫臣並報明戶部查照外謹恭摺具奏奉旨已錄

正月初四日

鈕福保謝在上房行走恩禮部奏派初七日釋素服
輪流奠酒旨留又奏初七日大祭服色又奏百日後服
色旨具依議祀親王會同軍機大臣奏請停止親送
大行皇太后梓宮一摺旨留戶部奏漢世賤俸銀章程
旨依議片見軍機鈕福保

正月初四日

上諭三月二十日朕親送大行皇太后梓宮據王大臣

等復合辭具摺再懇停止前生以朕身体尚未復元
恐失調護披閱再三哀愴曷極追念臘月十一日以前
每次親詣請安荷蒙仁慈曲逮寬其禮節示以汲和並
因朕佳氣未充種一優容惟恐精勞過甚乃今音
容已渺追侍並由備止執佛相迺請王大臣等極
力勸阻白傷暮齒亦感慈恩不知涕泗之何從也教念
遺愛未寒朕若執意前往設使少有失儀既無以慰
在天之灵亦未快事亡如孝存之義是屬不得已強抑
哀懷克從請王大臣等之情朕即停止前生夙夜自疚
朕即何辭仍於三月二十日卯時由滄春園乘車回苑送

其一功應行典禮各該衙門敬謹詳查酌核具奏欽此
正月初五日

禮部奏訖初七日釋素服輪流奠酒吉筵又奏初七日
方參服色又奏百日後服色旨俱依議禮親王會同軍
機大臣奏請停止親送大行皇帝后梓宮一摺

上諭三月二十日朕親送大行皇帝梓宮據王大臣等
復合辭具摺再懇停止前准以朕身性而未復元恐
失調獲披閱再三哀愴曷極近念臘月十一日以前每
次親詣請安荷蒙仁慈曲逮寬寬其禮節示以溫和並
因朕體氣未充種種優容猶恐積勞過甚乃今音容

已泐追侍無由僅止執紼相隨諸王大臣等尚極力劝阻
自傷暮造永感慈恩不知涕泗之何從也故念遺愛朕
若執意二兩往設使古者失儀既立以慰在天之灵亦未
必事之如事存之義寔屬不得強抑哀懷勉後諸王方
臣等之請朕即傳止前往夙夜負疚朕甚何辭仍于
三月二十日卯刻由漪春園奠酒跪送其一切應行典禮
各該門衛敬謹詳酌查核奏具奏欽此

上諭董其昌湯現出學舍刑部右侍郎著彭德壽等無異欽
此

上諭欽惟大行皇帝在德懋徽季儀昭先大德神元之令

擇備懿徽以難名也取遺引遺徽永著今據太學士九
卿等敬謹擬上尊遠昭仰維慈愛忍痛撻戒謹于徽罪
十二字內酌留六字今之恭上尊遠梅曰孝和恭慈康豫
安成應天恩普皇佑允之昭垂萬禋式表尊崇崇厚悔
同欽感瞻樂典所有應行典禮却敬稽成例具奏
欵此

禮部謹奏為遵旨查明禮部奏事道光二十九年十二月二

十三日臣部具奏壇廟齋戒服色軍機大臣傳旨著另奏
欵此恭奉乾隆四十二年軍機大臣議准百日內遇壇廟大祀
均係遣官行禮御用服色齋戒之日素服冠緞纓緯帶齋

戒牌等法。今道光二十九年十二月十九日，於祭大廟次年正月
月初八日大祭，祈谷壇前期之日，齋戒。應請皇上御素服，冠
纓，後緯帶，齋戒牌。至遣官上祭時及祭畢後，臣部則例及
會典均無應何項服色明文。乾隆四十二年成案亦未詳及
今遵古制，於祭壇本年年歲暮，於祭次年正月祈谷
壇且大祭均於遣官祭畢後，請由皇上仍素服。是否有當，伏乞
聖裁。再臣部雖無例案，可憑惟未經詳明，請旨究屬疎漏，
應請將臣部堂司各官交部議處。為此謹奏。奉旨：已錄。
禮部片奏大查乾隆四十二年軍機大臣欽准百日恭遇
壇且廟大祠齋戒期內省牲親牲各員，具咸素服，齋戒。

等因奏准在案所有本年暮春裕祭次年正月祈谷壇
大祭齋戒者牲視牲各員服色臣擬照乾隆四十二年成
案辦理其陪祠執事各員亦應照舊牲視牲人員
素服齋戒謹附片奏聞奉旨依議欽此

正月初六日

肅親王病痊請安溥公致祭東陵回京請安陳等
恩賜賞匾額恩彭蘊章謝署刑部右侍郎恩

恭理喪儀王大臣奏元宵節大行白太后几筵前加祭旨
留

禮部奏正月十一日初滿月儀注旨依議

正月初七日

禮部奏借支養廉又奏朝鮮貢到物京

禮親王臣全齡等跪奏為額懇皇上傾時節勞俯鑒群情

事道光二十九年十二月二十八日內閣奉上諭恭理喪

儀王大臣奏大行皇太后梓宮擇吉于明年三月二十

日卯時奉移昌陵隆恩殿朕追憶慈顏悲痛曷極

允宜親送梓宮藉伸孺慕等因欽此仰見我皇上

大孝肫誠久而彌篤臣等寔深欽服惟是情深罔極固

本于性天休貴適中宜遵于成憲恭查康熙五十七年三

月二十三日奉移孝惠章皇后梓宮于奉天時值在

祖純皇帝之疾初愈欲親往送經王大臣等奏請勉抑哀
情停止親詣令辭籲懇即荷勉從衆請屆時親詣梓宮
前參酒舉哀出至殯宮門外跪候梓宮過後昇駕漸遠乘
輿還宮今太后奉移山陵欽奉諭旨親送梓宮臣等
伏思自遭大變以來鉅細事件無不親裁皇躬已形勞瘁
既皇上春秋將近七旬違和而後雖調攝以時仍未見聖躬
復元若聖駕親往風寒偶侵或稍有失調轉祈皇太后在
天之灵臣等再四思維惟有仰懇皇上仰遵成法俯察群情
停止親往山陵一切恭奉禮儀均照康熙年間事宜敬謹
辦理臣等不勝願誠待命之至謹奏奉旨已錄

正月十一日

太醫院奏擬補醫官龐錦雲等三員旨依議茶理表
儀王大臣奏大行皇太后梓宮奉移山陵後應否仍行上祭
旨毋庸上祭刑部遞核議現審四件旨依議兵部奏總兵
祥麟等同知互商平慶分旨留召見軍機

十四日

上諭昌凌迤西擇有佳壤地基寬廣山川氣勢深抱本松為大
行皇太后吉地今謹定為昌西凌明年歲去興工所有備辦料
物度形勢必應期敬謹將事著沁定郡王載鈺吏部尚書
文慶工部侍郎吳桂芬蔭章會同前往教導辦理欽此

上諭據王大臣等奏奉移大行皇太后梓宮因朕年近七旬
氣體尚未復元令梓宮總初朕停止親送奉安大禮何敢
不送何忍不送惟諸臣請詞懇切若不稍減儀文亦無以安
諸王大臣之心三月二十日朕仍由漪春園跪送後先赴黃新庄
行每站皆嚴非行宮遠近不一或有礙難前往之處著俯
從王大臣之請稍積勞勛勛每日在行營宿所所有差殿前
迎送儀節忍痛減二十三日住宿梁塔庄二十四日朕親
詣杏凌祭告按時回昌陵告祭祇候朕梓宮到時跪迎奠酒
安奉道恩殿祭奠禮成二十五日祭奠禮成即行回東宮該
衙門知道欽此

十四日

殊諭皇四子奕訢著立為皇太子爾王大臣等向侍朕言贊輔
總以國計民生為重此卹其他特諭

上諭朕受皇考大行皇帝深鞠育深昊天罔極聖考今屆七
旬精神壯固方為期願可卜慶日彌長上年入夏以來偶爾違
和雖氣倦稍損于前猶復皇祖妣大孝哀慕毀瘠以致血
氣大虧本日卯刻力疾召見宗人府掌令御前大臣軍機大
臣內務府大臣親將殊諭立為皇太子等刻周詳傳之以國計
為念朕痛哭受命哀迫戰兢方望聖朝之有所以聖天子之躬猶
節勞勩永保康和乘意親奉備命後病體漸愈則遂至大

漸龍御上賓捨地呼天攀謁莫及致思皇考御宇二十有
町憂勤萬幾鮮暇舉凡效天法祖勤政愛民文德武功不可殫述
至于當年數闔澤軫念痾瘵各直者偶思偏勞致帝躬親祖思膏
立沛以及籌思精所歷念河防無非為保簡蒼生之計俾仁洽朕
凡有血氣其悲哀自必出于至誠朕泣血稽顙尚思言乎惟念付
界至重所以勉綴敬獻仰承先志者夙夜兢兢斯之膏乳之有收
惶惶日深朕思痛節哀兢即位尚賴內外文武大小臣工共矢
公忠弼予卸治至喪服之制敎奉皇考遺誥令依舊制二
十七日而後朕心實所不忍當特導舊制敎行三年之喪庶幾
稍盡孺慕之忱至于郊廟祭祀大典自不應而大喪稍畧

禮身應如何遣官恭代及親詣行禮之處著各衙門臣
照向例集議以聞天下臣民應持服制仍照定例先將通
諭中外知之欽此

旨著派禮親王全齡之弟王載齡吏部尚書文慶工部尚書
特參額恭理喪儀載齡文慶本有恭理之使著改派豫
親王壽道禮部尚書惠豐會同禮親王錦翰大學士志晉英
欽謹辦理欽此

上諭昨已降旨特派禮親王全齡之弟王載齡吏部尚書文慶
特參額恭理大行皇帝喪儀惟詳錄典禮儀節較多著派
沁仁壽寺奕誌阿吳向公相心存會同敬謹辦理欽此

上諭載銓文慶現已改泚恭大行皇帝理喪制此後山陵工程即一切事宜尚需伊等敬謹辦理前經泚人前往直西陵備料興工之處著改泚魏元煊吉倫太會同吳桂彭蘊音早前前往敬謹將事欽此

上諭朕惟自古帝王功德丕著必有隆稱徽号昭示無窮此萬世不易之典也欽惟我皇考大行皇帝御宇三十年来寅畏叩恭虔勤場勵每歲郊廟大祀躬親昭恪展敬陵庙盡制盡倫遇皇祖仁宗睿皇帝皇祖妣孝淑睿皇后忌辰必建感洒泣愴懷彌日孺慕終身侍奉皇祖妣大行皇太后悃志承歡三十年有如一日

尊養兼之終始無虧大孝朕誠是千古所未有至于聖謨廣
運勤勞不几夕惕朝乾有加無已節以制度俟以持躬
當御極之初即特頤手諭加拜色貨利之誠以身作
則垂訓方來寡慾清心致興學一切遊觀玩好
德并尔自居潛御教勇邁倫躬履神槍殲除賊匪
嫺騎射而發必中的諸我兵而備祿不羨與定四鄰
剽擒延香尚四城先復一鼓蕩平綏藩服而際燧偕來
柔遠人而烽烟永息愛民如子一視同仁遇水旱偏災
無不思膏立沛勤租斂粟惠濟滂流肆赦省刑
好生德洽整飭吏治敷滕宗文獎忠節重篤勳者

育人材而厚風俗天心助順自威必通忠志成城無思不
服此難名之美善宜揚盛典于尊親顧予冲人嗣膺
大統維聖德丕謙衝之致而永懷承祐啓之思詳考
彝章直升謚号著學士大^上九卿會同敬謹擬設以聞
用付朕歎揚謨烈怙戴尊宗至意欽此

上諭批夫大臣奏三年之喪難以舉行請仍依旧制以日易
月一摺覽奏愈增悲痛朕受皇考大行皇帝鞠育深恩
並親承副專之重雖哀慕終身尚難仰報慈恩萬一
豈持服三年遽謂盡哀盡禮且三年之喪違乎天子禮
經所載振古如兹若朕以日易月於心定所不忍除臣民

服制仍各欽遵舊制外朕恪遵古制持服三年稍伸孺慕之忱至郊廟宗廟祀典朝儀仍可于持服中舉行並不相妨其如何舉行三年之喪仍著各該衙門詳稽古典禮妥議具奏欽此

正月十五日

內務府奏請升殿日期旨著欽天監選擇吉日又奏三祭時刻旨早祭辰初二中祭午初三晚祭申初三

禮部初喪此祭儀註旨見軍機處部王特登額

內務府奏改祀請大行皇太后神牌之大臣旨派明訓軍機大臣奏派稽古堂系禁城內推撥

郡王車五中山柏校又奏紫禁城各門值宿旨派巴雅爾
豐仲花山太珠勒亨希興阿哈芬貝貴那日瑞昌
奕縉阿彥恭維祿

內務府奏撤門神劄聯又奏三日後遇大祭躬親上
食旨留

旨見軍機潘中堂惠親王阿靈阿又慶定郡王禮
親王睿親王瑞郡王特登額翁心存

十八日

親封恭親王等謝恩禮部奏本月二十六日升殿受
賀旨依議旨見軍機徐有壬鄭親王怡親王僧王

定郡王者昔英杜受田恭親王等文慶栢梭明訓阿
灵阿廣林

礼親王軍機大臣九卿會奏郊配廟附二条旨留礼
部奏派輪流讀祝旨派圖柔阿德瑞又奏本月二
二十二日殷奠二月初六日初祭初八日大祭旨依議又
奏請派開宝之親郡王旨派六爺穿青長袍褂
冠綴纓緯又奏奏書御名一摺

旨見軍機孫瑞珍悖郡王定郡王瑞成郡王福珠洪
阿喀拉心王等

上諭各省督撫益政向有呈進方物現在諒陰之中食

睿嘗所不安著通渝女直者督撫監政織造關多等一應
有敕藥印停止食品亦不准呈進俟三年之後再降渝
旨欽此

旨值朕嘗之珠子華祥尚宗瑞和永安俱著賞給藍
翎侍衛仕大門上行走慶寧松寧俱著賞給柏唐阿
文瑞著坐補本前護軍和帶繼升俱著賞給本
前馬甲欽此

旨恭親王醇邸王俱著裁去內請達著加恩在外請
達哈之珠子上行走欽此

上渝朕長兄大阿哥早年荒死逝皇考深為悼惻

崇是追封多羅貝勒今朕嗣承先統緬惟同氣
倍切愴懷着晉封為郡王其應行典禮着宗人府
會同禮部內務府酌議具奏欽此
上諭朕惟致孝務極夫尊上堂造福世緒于美備功奇
履載並遷協健順之符德厚生而成同極深闡揚蒸
敬惟孝穆皇后孝慎皇后孝全皇后作配皇考懋
坤儀孝全皇后誕育朕躬親承廟復懿德咸孚于
宮靈徽音永式于邦家朕追念恩慈痛發威慕茲
恭奉皇考太后皇帝尊慈宜並追崇敬上尊慈用
展孝思式垂萬禔該衙門詳察具奏欽此

十八日

上諭道光二十六年三月皇考特降諭旨以二書不偏諱將
來體亦借上二字仍著毋庸改避亦著毋庸缺筆其下一
字應如何缺筆之處隨時酌定以是著為令此等因欽
此今朕謹遵成命將御名上一字仍舊舊書寫毋庸改避
下一字著缺寫末一筆書作訖字以從改避之意其奉旨以
前所刻書籍俱毋庸議欽此

上諭朕年奕訢、前旨封為恭親王奕訢、著封為醇、即王奕訢、
為封為鍾、即王奕訢、著封為孚、即王奕訢、百曰釋服後並著
加恩准其帶用紅絨結頂冠朝服塔花俱准用全黃色欽

此

上諭嘉慶二十五年皇祖仁宗憲皇帝大皇帝考選成例
停止各省督撫督撫提鎮藩臬及監政關差織造等來
京叩謁梓宮今大行皇帝升遐其各省督撫提鎮軍部
統副都統提鎮城守尉並感宗侍郎奉天府尹等此
兩路將軍大臣並學政監政織造關差等均不必奏請來京
叩謁梓宮致瞻駭守各該員等惟當竭誠盡職以期安負
委任不在儀節虛文也將此通諭知之欽此

旨總理喪儀大臣軍機大臣內務府大臣御前大臣忠親王莊
親王悼郡王瑞郡王成郡王岫貝子勳貝子德貝子鈔貝子

車王四額駙德貝子六額駙中山巴清德特穆爾阿巴清阿德冲
額五額駙俱著穿百日孝所有王大臣官員等俱大祭後均著
釋服將孝服焚化欽此

正月十九日

禮部奏額駙聖事又奏照例奠喜宜齋釋院遠殿奠祭文內
闕奏二十日二十一日額駙用寶旨俱依儀禮部奏早祭御
祭後早晚祭請派王二員旨派克勤郡王成郡王又奏派
輪流奠酒旨派醇郡王恭親王醇郡王

掌議司奏二十一日二十日祭先幾景公華公行禮旨
知道了召見軍機定郡王金慶文慶河是阿

上諭本日禮部奏朕登極日期及頒詔典禮一摺覽奏甚
增感勵惟念皇考以祖廟丕緒傳副朕躬勉從所請欽天
監所擇吉期于本月二十六日己未巳時舉行登極頒詔
鉅典該衙門遵照舊例敬謹預備欽此上諭古稱三年之
喪達乎天子持服特其一端昨據王大臣等請依舊制以日
易月業經降旨明白宣諭朕受皇考大行皇帝深恩同極今
猝遭大故哀痛方深惟有恪守禮經藉伸永慕非以持服
三年適為盡孝也今王大臣等援引舊章合詞奏請覽奏
彌增感勵敬得嘉慶四年高宗純皇帝大喪皇祖仁皇帝高
帝係持服百日嘉慶二十五年皇祖大喪皇考高宗純皇帝高

特服百日俱因臣等籲請再三未遂聖志今朕孺慕
雖殷亦何敢有逾成憲不得已勉從請縞素百日
仍素服二十七月該王大臣等不必再行瀆請至三年
內茶遇郊社宗廟祀典朝儀一切服色著王大臣等
查照成例敬謹辦理欽此

軍機大臣面奉諭旨達元年号用咸豐二字欽此

正月二十日

礼部奏二十二日殷奠礼仪仅總理喪仅王大臣奏二十
六日几筵前上茶膳服冠綴纓締旨依議又奏二
月初二日奉移大行皇帝梓宮請皇上在東華門跪

送東卡門跪迎旨留台見軍機親王克勤郡王

秉性卓申_國定郡王杜受田孫瑞珍

上諭批恭理密仅王大臣奏二月初二日卯刻大行

皇帝梓宮奉移圓明園正大光明殿請朕步送

東華門外乘輿出神武門先至圓明園祇候等語

朕仰受皇考顧復深恩昊天罔極且自揣年力正富

謹當恭隨灵駕親送至圓明園稍伸哀戀之忱欽

此上諭朕長兄大阿哥昨已降旨建封郡王因思二阿

哥三阿哥早年殤逝皆係朕兄宜切同懷追念寔深

悼惻二阿哥三阿哥均著建封為郡王應行典禮著宗

閩臣順府天

人府會同禮部內務府酌設具奏欽此上諭訥爾經
額奏請叩謁梓宮一摺直隸地方緊要此時毋庸
前來俟大行皇帝梓宮奉詣山陵時恭辦橋道之
便再行奏請陞見欽此上諭陳慶偕奏審明捕
盜不力之總兵請旨革職一摺解任山東登州鎮總
兵德通前因督防海洋而不力奉旨摘去頂戴解任交
該撫審辦茲據陳慶偕奏稱該總兵雖無托故延
延情弊惟所轄洋面被劫重案迭出無一獲自難
稍事姑容德通著即革職以爲督捕不力者戒欽此

道光皇帝喪儀注

禮部謹奏為恭進喪儀事恭照道光三十年七月十四日
 大行皇帝龍馭上賓所有治喪一切事宜臣等詳查臣部例
 例教謹恭酌儀寫清單恭呈御覽是否有當伏惟命
 下臣部行文各該衙門遵照辦理為此謹奏請旨一百日
 內上諭批奉用藍筆各部院奏章俟十五日後具奏二
 十七日內奏疏文移均用藍印

一王以下文武各官間敬宗室覺羅等公主福晉以下鄉
 君奉恩將軍妻恭人以上民公夫人以下佐領三等侍衛
 妻以上宗室之女等俱成服在京之外藩公主福晉格二等
 類附王台吉等及外國貢使均令成服其二十七日内至京

和碩某親王
 多羅某郡王
 多羅貝勒
 固山貝子
 鎮國公
 輔國公
 鎮國將軍
 輔國將軍
 公主
 福晉 郡王
 額駙 尚主
 者

者一住成服二十七日後至者男去冠屨女去首飾三日

一宗室覺羅及滿漢大臣官員領事筆職者均准成服

一專司壇廟堂子奉先殿壽皇殿坤寧宮祭神殿凌

寢一應祭祀事務官員內監及出征官員之軍營辦

事人等均停止孝服其有父母新喪子女出痘者亦

暫免成服仍百日不薙髮

一齊集處 近御王大臣乾清門侍衛等在乾清門

內五旗王以下八分公以上內大臣內閣大學士前鋒統

領護軍統領上三旗都統副都統內閣學士等三

旗侍衛間散宗室覺羅進衣官員在乾清門外

五旗都統副都統八旗官員各部院滿州漢大臣官員在宮之外任大臣官員凡應齊集人員在紫雲門外俱分班排立各命婦不齊集日在紫雲門外官員在德宗門外排立每日三次候捧官用官員獻時隨班舉哀行禮

一在內公主福晉等在景山柵欄外乘馬進神武門至
 蒼生辰門下馬進內在凡造殿內行禮五旗王等福晉
 即主等由景山柵欄外乘馬進神武門至德宗門下
 馬進四方儀等命婦應進內者由景山柵欄外乘馬
 至神武門下馬步行進德宗門內在凡造殿內行禮

右行禮其不應進內之命婦等于隆寧門外齋集內每日三次通班舉哀行禮

一第四日王舅勅貝子公等公主王福晉等在老私第齋集
部院官員在老公署八旗及閒散官員在各衙門喪服二十七
日以初喪日為始于每日齋集時均齊集恭理喪儀王
大臣守衛執事各官喪服百日近弘宗室二十七月內不嫁
要遠弘宗室及在京王公大臣文武官員期年內不嫁娶
二十七月內不依樂不宴會在京文武俟補俟選官
員教習進士舉子貢監司業監生吏典僧道官俾冠去
纓緯穿素服在順天府齋集三日早晚舉哀在京軍

民人等男去冠纓女去首飾素服二十七日百日不嫁娶不
作樂二十七日不祭祀自公室以至軍民人等均百日不

簪髮

皇太后喪
具奏是錄

一、工部寺廟各令撞鐘三萬杵

太學士臣穆彰阿跪奏為遵旨敬謹詳訊具奏事

道光二十九年十二月十五日奉 上諭大行皇太后母儀天下懋著

徽音三十載以來延積垂蔭尊奉隆今茲仙馭升遐

朕哀痛不能稍釋敬稽典禮宜隆謚号以表尊崇

著太學士會同九卿詳議具奏欽此臣等敬稽舊典

詳奏彙章欽惟大行皇太后德配乾元功符坤厚備福

壽有七十四載合九州宮國以肝歡尊親三載統四極八
荒而來貢奠燔禋長揚神武于迓郵隆福 晉親洪
額于薄海慶典頻頒至德難名非臣下所能擬設
徽丕懋惟聖主斯克尊崇謹酌稽謚法字義進呈欽
定再查乾隆五十二年恭上孝聖憲皇后尊謚奉旨將歷
年加上徽号有按例酌減及應增加字樣敬謹詳設經大
士舒赫德等議奏于孝聖憲皇后八字內擬留六字又
照例增加四字冠以尊謚二字共敬列十二字今恭上大行皇
太后尊謚其原晉徽号十二字內是否酌留六字增加四
字以符定制之處臣等未敢擅便謹分晰繕單伏祈聖

敕為此敬謹合詞具奏奉旨已錄

札親王臣全齡等謹奏為再行籲懇皇太后慈哀
情稍節勞勩仍遵成憲俯順群情事本月初二日
內閣奉上諭奉移大行皇太后梓宮朕仍留滯春園
跪送後先赴黃新庄行宮每站苦殿距行宮遠近
不一或有艱難前徃之處著俯從主大臣等所請
稍節勞勩每日在行宮苦宿等因欽此臣等伏
讀之下仰見皇上至仁大孝恣本朕誠何敢再事統
續實惟念皇上雖已俯鑒金下情稍減迎送儀節然自
黃新庄至山陵徃至樂及卜日自孝陵祭先親詣隆

是殿祭奠舉凡升降跪立皆極辛苦規禱聖躬
尚未復元誠恐節哀過甚偶失調護關係繫
重況聖祖仁皇帝前因是疾已曾停止親送梓宮
成法泐然臣等敬謹援引潛誠籲懇甘冒不諱之
名忍哀可鑒敬求皇上酌遵成憲俯順輿情停止
親送往山陵用以上慰大行皇太后在天之灵下副臣民
之望臣等不勝激動悚惶待命之至謹繕摺具奏
奉旨已錄

禮部謹奏為請旨享祭查乾隆四十二年經軍機
大臣欽准百日内恭恭遇壇廟社稷日壇俱遣官行禮

皇帝遇齋戒日素服冠綴纓締帝戒齋^上牌等語道光
二十九年十二月二十四日奉旨本年十二月二十九日裕祭太庙明
年正月初八日祭祈谷壇均應前期三日齋戒朕于齋戒
期內照部議援引乾隆四十二年百日內旧例素服冠綴
纓締至致祭之日祀畢御前服色亦應與齋戒日期
等因欽此今本年正月初十日時享太庙二月初五日祭社
稷壇均應前期齋戒三日三月初八日祭朝日壇前期齋
戒二日俱在齋戒會皇太后百日期內皇上遇齋戒之日並致
祭之日臣等敬擬請皇上御素服冠綴纓締日及否有
當謹奏奉旨依議欽此

正月二十一日

王大臣奏二十六日升殿几筵前上祭上哀又奏初二日
奉移梓宮請駕送至翠山旁門又奏百日後奉移山陵
日期旨留

左常侍奏派升殿前朔吉祭天祀崇社之親即王旨沈
莊親王怡親王克勤郡王成郡王

禮部奏頒發各省詔書

禮部奏請於轎子旨仰依議

召見軍機御前大臣定郡王惠親王特登額文慶阿奕阿
上諭劉韻珂奏請守總兵休致一摺福建等軍鎮總兵陳

述祖性情懷懶緝捕之廢弛難勝專閫之任著勒令休致
所遺建寧守領總兵等事三稅補授欽此

上諭恭理喪儀王大臣奉特寬奉移山陵請敬謹誦吉等
語所有奉移暫安龍泉浴佛殿之處著俟秋間再行
奏請誦吉欽此

上諭皇考六行仁壽妃嫡女侍官闈格恭淑慎均宜加
崇位號以表尊宗琳貴妃著晉封為琳貴大妃常貴人
著晉封為常嬪佳貴人著晉封為成嬪祥貴人著晉
封為祥嬪順貴人在著晉封為順貴人奉答應尚恭應
奉答應那答應著晉封為常在所有前事宜各該衙

門察例具奏跪具奏欽此

上諭悻郡王奕誥著於恩在內連行走百日釋服仍准其
戴用紅絨結頂冠朝服蟒袍俱准用金黃色欽此

上諭本日禮部奏本月二十六日祭極典禮請停止舉哀
一日並經恭理喪儀王大臣等援引成憲合詞籲懇朕
曷敢踰著仍照例停止舉哀一日欽此

上諭貴妃侍奉皇太后極素著允崇稱號以申敬禮謹
尊封為康慈皇貴太妃所有應行典禮例預備屆
期獨吉舉行欽此

文行皇帝殿奠祭文 翰林院製進

維道光三十年歲次庚戌月初朔越日孝子嗣皇帝
謹昭告於皇考大行皇帝神位前曰寢明定省瞻
爰日之方長帷殿禁褫遽終天之抱憾尚食易
履造之設更侍膳以何從垂衣警玉几之陳歎
趨庭而無白深恩罔極孺慕難窮忍痛陳詞如
卒告真欽惟皇考大行皇帝仁孝昭乎中和慈達
敬天勤政健行獨運夫乾綱法祖誠民渾澤頻宣
予與命緬卅載宵衣旰食帝軫念天崩痛屆七旬
景福崇祺仰遊齡於中外乃以夏勅亟喪致屢聖
慮之焦勞加之哀慕綺春復盡孝思而與之煢方冀

春回寅津迓麻天和印卜志眷辰居漸臻康泰何
期仙與奄忽上膏五內俱摧萬方失怙懷國討民生
訓稽面愴新潮神切聖慈之貽藐躬滋惕遺弓是勸
難酬願復之恩主豈維度永長人天之隔謹以牲牢
酒醴敬展哀忱伏冀慈灵俯垂昭格

奴才奕格東林多爾濟善壽遊苑奏為體察情形遵議
留駐綠營兵丁應領制衣裝束員銀擬請仍照舊章貴格
以符定制而示休恤緣由恭摺具奏仰祈聖鑒事奴才
等竊于道光二十九年九月二十日接准兵部咨開本

部核議具奏科布多各營大臣整成等奏請將換防
綠營兵丁併雜更搜等情應如該大臣所奏辦理再該
大臣奏請綠營留駐兵丁與內地派來遠道奔馳者其勞
逸迥不相同且查舊例滿州營留駐兵丁按名減半支費
給制裝銀十兩綠營留駐兵丁按名支費給銀三十兩相取
之下未免過優請俟換防時派來之兵仍照舊例支費給製
裝銀二十兩其留駐綠營兵丁照滿營留駐之例減半
支費給銀十兩以別勞逸而昭公允等語臣等查該大臣
所稱此項銀兩雖為行裝而設至留駐兵丁可否酌
減查關兵丁應領之項歷行年久一經核減恐有弊窒

得之邊臣部殊難悉採應請旨勅下烏里雅蘇台將軍
體察情形奏明理年情具奏奉旨依議欽此欽遵因前
來奴才等詳查三部別內載直隸宣化山西大同沁州烏
里雅蘇台科布多二處換防屯兵丁每名賞給銀二十
兩又官兵除應得賞銀外兵丁酌借銀一十兩又兵丁
應需鹽菜口糧因自起程日起至殺虎口之日上按
日分別支給其口外應需三個月鹽菜亦由省支給口
糧米石就近在大同府支領等語再查烏里雅蘇台
科布多二處換防滿營兵丁每屆三年更換一次留駐
者賞給製裝裝銀十兩綠營兵丁每屆五年更換一

燕行日錄利

取留駐者賞給制衣裝銀二十兩歷久運辦在案奴才等
體察馬里雅蘇台科布多係屬極邊地方嚴寒一切食
用物價增昂而兵丁日領鹽菜銀三分作為用度此係
實在情形也奴才等查該大臣原奏內稱緣營留駐
兵丁與地派來遠道奔馳者營送迥不相同且查滿
營留駐兵丁與按名派半賞給制衣裝銀十兩今緣營
留駐兵丁按名賞給銀二十兩當今之時未免過優
請將留駐緣營兵丁照滿營留駐之例減半賞給
銀十兩以別費送而昭公允等語奴才等該滿營兵丁
係屬三年更換緣營兵丁係屬五年更換並

賞銀原有區別再內地並未六丁雜係遠道奔至但
該六丁由內地起程沿途日有應給路行蔬菜口糧其
留駐六丁係因差使奮奮勉復行留駐連班是以原
擬賞給銀二十兩係屬令其終補在防五年衣履
稍示鼓勵之項遵辦有年今若一照核減不能該
兵等日形拮据且與定例之中言及有未符是日奴
才等再四思維惟有邀懇天恩將烏里雅蘇台科
布多二處留駐係營六丁應領賞銀仍照舊
章賞給以符定制而示體卹所有奴才等休恤情
形遵議緣由是否有當謹奏奉 硃批該部議奏

欽此

正月二十二日

悼邸王謝在內廷行走

內閣奏表式詔式一摺

掌儀司奏二寸五日告祭

奉先殿舉公行禮告知道了

恭理喪儀王大臣奏圓明園添設教練大臣侍衛

汲桶各丁等旨依議

召見直親王定郡王悼邸王賈楨

上諭如皇貴妃承祀皇祖多年迭經皇太后加崇位

帝現在年益最尊允宜特進隆稱以申敬禮謹
尊封為如皇貴太妃所有應行事宜該衙門分別
具奏欽此

正月二十三日

正藍旗代奏刑部員外郎恩齡謝康封如皇貴太
妃恭理喪儀王大臣奏二十六日潛春園上哀又奏正天
光明殿輪流值宿之王公旨派克勤郡王成郡王綿
岫綿勳載銓有公又奏嗾經二十七日太常寺奏三
十五日迎輝殿告祭旨派豫親王札舒奏尊上孝
穆孝慎孝全謚号旨留翰林院卷擬撰告祭天

地宗社祭文旨依設旨見軍機曾國藩定郡王者會英
吉倫太文慶阿靈阿

奴才奕興樂斌跪奏為回民聚衆械鬥拒捕派員
帝兵擒拿首夥凶犯多名恭摺奏聞仰祈聖鑒事
竊奴才等前據遼陽城守尉綿詢詳報屬界奉西
湖火連寨地方有回民劉耀興山東即墨縣民人
劉泳和等因爭奪木筏起衅各聚衆數十人互相
鬪毆一案屢經劄飭該界官防衛不依與阿知州方
彜祥先行摘去頂戴撤任留絹等因奏蒙聖鑒在
案正在派員前往接替查辦之際旋于十六日未刻

批本西湖地方舖民魏翰臣徐約馬士達三人
進省奔赴奴才奕與前刑臬訢回民劉耀等
又復糾眾前刑往報仇伊等忍受連累等情奴
才等以訢四造匪民屢次明日張胆聚眾械鬥是
屬目無法紀若任其仇殺無已誠恐藉端乘勢
滋擾殊與地方良民大有閼碍隨另派懷領海
明由省城選派兵丁三百名推乃帶槍箭前會同
遼陽城守尉綿詢並就近世帶同前派佐領張明
懷奇克慎等分路前往該處彈壓緝捕茲據
該校領等稟報督飭弁兵于十九日馳抵本西湖

大嶺北峒山子處分布堵緝差兵探得該匪等於十八日晚間復行械鬥一次該回匪等將即墨縣匪眾圍困廟內互有殺傷因回匪人數众多將即墨縣匪民攻敗除傷斃外餘皆乘隙逃跑僅剩回匪二百餘人仍在該處街面擾害舖戶人家並有傷斃良民多名該峽領等聞報於二十日黎明會同督率弁兵前進午刻抵至該處該回匪等始則團聚不散及至官會奔前進該匪等退出街中佔據棧城華炉舖門內安設槍械拒敵官兵毫無知懼該員等分兵將華炉舖牆院圍繞宣諭

開導令將馬首各犯綁縛呈獻罪該匪等肆無忌憚
敢由院內向外亂行施放鳥槍將兵丁打擒十名幸不至重
該員等隨督飭弁兵合力圍攻一齊施放槍箭因內外
槍火交加房屋燒燬該匪等乘空逃遠數十人該官兵等
齊擁立剛奮勇捕獲將回匪首犯劉耀張得順等八十人
名起獲槍械共五十五件並接據該處鋪民于德馨等
控訴被劉耀等殺傷多命焚屍滅跡詐去錢文等情一
併飛報前來准將緝捕各犯並起獲兇器親身省奴才
等復查該京為根本重地風俗向稱淳樸茲本西關處
乃有匪民因爭奪木伐起卹肆行糾亂屢次械鬥互相

仇殺殃及官民至如員帶兵前往已屬敗壞不畏法及至派員
帶兵前往彈壓請拿該匪等不知畏懼復敢亂行肆放烏
槍致傷官弁遂竟推捕實屬兇大惡極此案兇犯差非
審明畫法懲辦殊不足以昭炯戒奴才等除委員並行文
奉天府尹分地方官搜緝餘匪暨首犯各犯務期一獲解
案審辦到白視獲各犯人數眾多案情重大其中有些脅
從之犯必須詳慎推鞠以免枉縱相應請旨勅下奉天府
尹并會同奴才等研審確情按律擬辦臣等伏乞
禎知所儆懼為此恭摺具奏奉旨已錄

臣陸建瀛 臣楊以增 跪奏 本年回京 軍紀 全十一月

十五日行抵境臣楊以增頭二兩塘塔未經竣工各節陳
但河北擬將先渡船隻太平趕趕尾和帶備渡經飭差
侍郎福沙到浦會勘始行走議于十二月初五日掃數渡
黃茅措奏報在案頃即查照舊章物板套塘陸續放出
清江關一千餘船節撥揚州鎮江等府報有出江入口數
目視時後黃六部儘先裝載其浙江尾船亦即接續備
出統于本年歲事屆滿建瀛委員弁沿途嚴催歸次受免
新漕以歷年各少有漕船開待日期計等尚不致候推回
空歲秒始完完屬辦理遲延相應請旨將臣沈達瀛臣
楊以增交部議處謹附片奏具奏奉旨已錄

礼部謹

奏為礼部奉恭照

皇帝登極

頒詔禮部是日早步軍統領勒所

禁城諸門內閣會同礼部鴻臚寺官設

宝案於

太和殿

御座之南正中設表案一於

殿內東楹之南設

詔案一於東楹之北又設筆硯案一於

皇帝登極

儀仗

皇帝之室學士奉茶奉太監學士後由

乾清門至

太和殿內茶設於

御座南正中案上退鴻臚寺官引和碩親王以下
入八分公以上在丹陛上文武各官在丹墀內咸
衣朝服各照品級按翼排立朝鮮國使臣立於
西班百官之末屆時禮部堂官奏請

皇帝服縞素由東側殿門出入中殿左門於
几筵前祇告受

命行三跪九叩禮：畢

皇帝由東門出進側殿禮部堂下轉傳宮殿
監督領侍等奏請

皇帝更禮服宮殿監督領侍等預將

乾清宮中門垂簾內垂奎儀衛預設金輿於
乾清門正中禮部堂官率欽天監候時官詣
乾清門告時

皇帝由

乾清門左門出

陞輿禮部堂官恭導前引大臣十員後扈大臣
二員豹尾班執槍侍衛一員佩刀侍衛十員

隨行至

保和殿降輿禮部堂官奏請

御中和殿陞座鴻臚寺官引內大臣侍衛內閣翰林院詹事府

起居注禮部都察院侍班導從執事各官按班不贊行
三跪九叩禮畢侍班官先趨出外朝就位立禮部堂
官一員進至檐下跪奏請即皇帝位○駕興○道引○翔衛
如初

皇帝御太率殿陞寶座南向即皇帝位○

午門鳴鐘鼓不作樂○儀衛官皆○鳴鞭○下三鳴鞭

鳴贊官贊拜排班鴻臚寺卿引王公亦丹陛上鳴贊官
引文武各官導朝鮮國使臣於丹墀內排班贊進贊進
贊跪王以下各官及朝鮮國使臣俱跪贊中興王以下各官
及朝鮮國使臣行三跪九叩禮贊贊退王以下各官及朝
鮮國使臣退復原位立大學士進
殿左門執東案奉

詔陳於中案次退由西面立內閣學士進就中案北面用
寶訖退禮部堂官進至階下大學士奉

詔由闈東出殿中門授禮部堂官禮部堂官跪
興奉至丹陛正中案案上恭設行一跪三叩禮興復奉

詔書由中階降禮部司官奉寶盤跪接候

詔書安置雲盤內興慶儀衛張黃蓋由中路出

太和門文武各官等由

昭德門

貞度門適出奉儀高官贊鳴鞭帶下三鳴鞭

皇帝起座至殿後進輿由後左門至

乾清門外降輿由左門入還東側殿易服還宮次大學士率學士茶奉

皇帝之寶送至乾清門交存

大內是時奉詔官奉

宣書至午門外安設龍亭內行一跪三叩禮定儀衛校尉昇
亭香亭在前龍亭在後樂部以樂導引而不作

御仗前引禮部侍郎司官迺至

天安門城樓設香亭

詔書龍亭於正中奉詔官行一跪三叩禮奉至高臺黃案上
龍亭香亭移設於

天安門前正中文武各官於金水橋南按翼排立鴻臚寺官贊
排班贊進文武各官皆排班香老頌催稍後另為一班俱北向立
宣詔官登臺面向立鴻臚寺官贊有

詔東宮跪宣詔官宣清漢

詔書訖復於業退贊中興衆行三跪九叩禮奉詔官奉

詔書置於案內依儀懸繫由金鳳口中御下禮部司官接受仍
安設於龍亭內由

大清門出仍以樂導引而不作

御仗前引至禮部望

門排列香案禮部堂官率司員行三跪九叩禮恭鑄

詔書頒行天下為此謹具

奏聞

恭照道光三十年

皇帝登極接欽天監擇得正月二十六日巳正初刻恭請

聖駕臨殿

一月恭杏二維正十三年九月

高宗純皇帝登極臣却照例奏請陳金輿於

乾清門正中奉

上著安輿於左傍欽此謹附片

奏聞

正月二十四日

禮部奏升殿禮節一旨依議又奏亦捧宴之大學士上日弘卓中

堂內閣奏二年六月二十七日詔書用寶首依議

臣等軍機處親王定昂王奕鐸文慶阿美阿相儀禮等

旨令爾沁扎薩克親王色翁端魯布等將照前甘肅考二十
七日其所請跪送梓宮之處著不准行欽此

臣等聞綏化奏稱江省連年災歉戶鮮羨藏今歲又被皖
浙等省搬運過多致米價未能平減查上年江西捐米章程
以後米一石二斗由糧船運至京倉准作銀三兩刻下市買糧
價較上年貴錢千文且連年之浙江安徽均開捐輸米賑事
例每米一石作銀三兩三錢以省若不設法變通難期濟耀因
因思前准部咨酌議捐輸米石今江蘇設有捐理以是京
倉業內以粳米每石作銀三四三錢並准將順天捐輸新章
議叙此次江省捐米亦係解運京倉事同律江西並無粳

米應照舊章以核米加二斗算可及仰懇天恩俯念江省米
貴循照江蘇捐米之例准以核米一石二斗由糧船運至京
倉作銀三兩三錢核算之則米並順天指輪新章給予議
議叙以期衆情鼓舞踴躍輸將茲據糧道鄒鳴朝會同
藩司陸元娘詳請核奏前來臣謹附片具奏奉 硃批戶
部速議具奏欽此

正月二十五日

瑞常和色本由朝鮮國封王回京請安

侍衛處奏冰圓明園值宿之散秩大臣旨派
景崇承志巴阿爾綽克托克
額威福綯

善宗人府擬派從公溥公康公補進王六班
恭理喪儀王大臣奏圓明園宮門外東西外
如意門不准穿牙走出禮部奏初二日啓奠
奉移事宜

武備院奏焚化靴鞋撤袋裏卷儀衛奏御輿
轎片顏色恭理喪儀王大臣呈進儀仗式樣
俱依議禮部奏頒各朝鮮詔書可否派員
前往旨留

旨見軍機處常和色本定王栢校文慶阿靈
阿鄭王怡王僧王

恭理喪儀王大臣等全齡等跪奏為請旨事
二月初二日卯時恭請大行皇帝梓宮奉移圓
明園正大光明殿暫安臣等擬請是日皇上
由乾清宮步行恭送至東華門外皇上跪候
梓宮過後與皇上乘輿仍進東華門至蒼蒼
震四夾道出神武門由間道預往圓明園恭
候梓宮到時皇上出圓明園宮門至東枕象木
外跪迎輿引入正大光明殿安奉後皇上奠酒
還飛雲軒倚戶謹奏奉旨已錄
禮部謹奏為請上日率查創載列聖大喪

奏遣正副使頒遺詔於朝鮮國等語又查
嘉慶四年高宗純皇帝遺詔嘉慶二十五
年仁宗睿皇帝遺詔均經派員前往在案
再查光道十三年二十年冊謚孝慎皇后孝
全皇后祀成頒詔道光二十九年頒祭大行
皇太后遺詔均經臣部奏准外交該國使臣
賚回亦在案此次恭頒大行皇帝遺詔除
琉球緬甸越南暹羅各國應照向例交與
各該督撫轉飭外至遺詔頒祭於朝鮮應
否奏派正副使前往抑或交該國使臣帶回

此二案當
在大行皇
帝頒遺
詔等禮部
奏下

之處伏候欽正如奉旨派員前往臣部另行
開單奏派為此謹奏請旨 旨留

正月二十六日

內閣呈進詔書掌儀司奏百日後坤寧殿添換
祭器旨依議禮部奏傳駕升殿旨知道了召見
軍機定郡王惇郡王

直隸總督臣訥爾經額跪奏為敬瀝下忱恭懇
聖恩俯准奴才入都伏謁梓官叩觀天容仰祈聖
鑒事竊奴才于本月十七日接閱邸抄痛聞大行
皇帝龍駕上賓伏地悲拜五年推梨嘗棗字句

在城文武官負昂自成服仰維大行皇帝以海
三千年聖位神功編周宇也我皇上至仁大孝哀
動寰中凡有血氣之倫無不同聲感泣惟是
大寶躬膺萬方景仰宜于憂勤之際稍節
哀思上紓在天付托之靈下慰溥海臣民之望
不勝激切叩懇之至奴才荷蒙大行皇帝覆
轉生成至優極渥自簡任封疆以後每恭遇
謁陵典禮無役不從朝夕仰瞻天容親承聖
慈訓示捐糜頂踵莫報涓埃瞻仰微忱情
其極惟有仰祈皇上天恩俯准奴才入都叩謁

梓宮俾伸哀慰之忱于萬一即奴才地方應
辦一切事宜更當秉承聖訓諸有遵循與
遠省督撫各臣賊役攸分謹滙誠籲請恭
摺具奏奉旨已錄

臣禮親王全齡等謹奏為奏聞奉旨恭照大
行皇帝梓宮奉移圓明園正大光明殿奉安後
所有奉移山陵一切事宜應預為敬謹辦理惟
查龍泉峪均戌山辰向無乙午本年庚戌明年癸亥
山向均不相宜臣等公同商酌擬請百日後恭奉
大行皇帝梓宮暫安龍泉峪鄉儀殿俟壬子

年山向大利再行永遠奉安地宮所有臣等擬請
緣由繕摺具奏恭候命下臣等再交欽天監選
擇奉移山陵吉期奏聞行知各該衙門將應行
辦理一切事宜敬謹照例辦理謹奏奉旨已錄

皇帝登極恩詔

奉天永運皇帝詔曰我大清篤承天眷粵自太祖太
宗肇建丕基世祖統一函夏聖祖世宗高宗仁宗德威
化神重熙累洽我皇考大行皇帝臨御天下三十年宵
衣旰食郵傳勤求熙績致厘工朝建祗庸深恩厚澤
洽於寰區用是中外乂安羣黎蒙福二旬期崇錄迄

洪永膺多祐並意正月十四日崩立朕為皇太子甫
經半日龍取遊升即以神器屬於藐躬朕自維薄
德深懼弗勝顧念列聖諮詢皇考付托天位不可久
虛勉抑哀忱恪遵成命於正月二十六日^六祇告天地宗
廟社稷即皇帝位以明年為咸豐元年仰紹前徽撫
衷寧惕溢茲新綸之布用推錫類之恩所有應行事
宜條列於左

- 一在京在外諸王以下至公等以上俱加恩賜
- 一內外自公主以下至格_之各加恩賜
- 一內外滿漢文武大小官員俱加一級

一內外大中各官除各以現在品級已得封贈外凡
陞級及改任者著照新銜封贈

一文官在京四品以上在外三品以上武官在京在外
二品以上照現任品級各落一子入監讀書

一內外文職自四品以下武職自三品以下降革留任
及住俸罰俸處分准其開復

一會試額數俟禮部臨期奏明人數清貴酌量廣
額鄉試大省加三十名次省加二十名中省加十名滿
洲蒙古加六名漢軍加三名

一各直省入學額數大學加七名中學加五名小

學加三志

一國子監貢監生及各官學教習免坐監一月

一各省儒學無論府州縣衛俱於本年以正貢作

恩貢次貢作歲貢

一每府州縣衛各舉孝廉方正各一員以六品頂

帶崇身備詔用務期採訪真確毋得濫舉

一歷代帝王陵寢孔子廟里及五嶽四清等祀應

遠官致祭者照舊例行

一官吏兵民人等有犯陰謀反叛逆子悖殺祖父

母父母凶亂毒妻殺夫奴婢殺家長一家非死罪

三人採生折割人謀殺故殺真正人命遺毒惡鬼魅毒
藥致人強盜妖言十惡等真正死罪不赦外軍
務獲罪德匪逃入亦不赦外其餘自道光三十年
正月二十六日以前已發覺未發覺已結未結者
減赦除之有以赦前告訐者以其罪之

一各省軍犯人犯查明配三年清在安靜守法及
年逾七十者釋放回籍

一各府籍內務府及五旗包衣人等凡侵貪押移
一切賂刻應追銀兩實係本人家產盡絕者查
明准予豁免其分賂代以及牽連著賂者一概豁免

免

一凡官員因公賒罰等項而其子孫又代祖父者賒者查明豁免

一護營官兵有因出征及被灾借支俸餉者免其扣還

一滿漢兵丁有曾經效力行間因被傷年老閒住者除例得優卹外查明酌加恩養

一各省有同堂五世及親見七代者除例賞匾額外查明各加恩養

一天下之本農為重各府州縣衛軍有勤於耕

撫務本力作者地方官不時加獎以示鼓勵

一除五旗色衣佐領下披甲人等不帶外八旗滿洲

蒙古漢軍軍獲軍披甲人繳手出軍各賞一月錢糧

一軍民年七十以上者許一丁侍養免其雜流差役

八十以上者給與九品頂帶九十以上者給與八品頂

帶百歲以上者給與七品頂帶二百二十歲以上者

給與六品頂帶百歲至二百二十歲以上者均仍題明

給與建坊銀兩

一各處養濟院所存蠲寡孤獨及殘疾無告之人有

司留心以時養贍無致失所

於戲膺茲繼体用惠錫於埃地極予仔肩式撫綏
夫兆庶諸王文武大小臣工其各抒忠悃贊鴻猷
以昭我國家億萬年無疆之祐布告天下咸使聞知
正月二十七日

太常寺奏派祭先師孔子等廟上日先師廟派杜
受田保極文昌廟派賈楨陶樑閔帝廟派有
公常志先醫曾廟孫瑞珍乘太張鎮

內閣會同九卿奏請加大行皇帝謚号上旨留白見
軍機老目英睿親王周祖培花沙訥杜受田恩華
保昌魏元娘定郡王三火桂彭蘊章

上諭太學士九卿會同議上皇考大行皇帝尊
謚曰成皇帝廟號曰宣宗上配列聖永極尊
崇欽惟皇考澤普延接覃敷聲教功垂靈
宇宙丕顯光華備至德以難名寔群倫所共戴
今廷臣所擬詳慎公允于皇考建中立極之宏模
洵相符合深快朕懷者此天下萬世之公論非
朕一人哀慕顯揚之私願亦非臣下尊親頌美
之私情也謹按所奏恭上尊崇廟號所有應行
典禮該衙門敬稽成例以聞欽此

上諭朕紹承大位應欽遵皇考大行皇帝聖諱

惟宮殿廟宇旧名及省郡州縣名亦宜如何分別避易之處著禮部詳慎妥議具奏欽此上諭朕元配薩克達氏應建封為皇后所有應行典禮該衙門察例具奏欽此

上諭朕惟禮先報本微祿務極乎尊宗義在制宜孝思不迺夫典則雍正十三年皇曾祖高宗純皇帝恭加工列聖列后尊謚欽奉聖諭崇先特典後世子孫如得奉為成式是以我皇考大行皇帝于嘉慶二十五年恭加工列聖列后尊謚已加至三十二字者未敢復設加工朕紹承大位祇遵成憲

敬念詔謀具有列聖尊謚未加至二十二字列后
尊謚未加至十六字者均宜恭設尊崇顯揚盛
美該衙門詳稽典禮敬謹奏聞欽此
禮部片奏恭照皇帝登極前期一日迎暉殿
几筵前應請一躰遣官祭告遣官由太常寺
寺奏泚祭文由翰林院撰擬祭文內恭書御
名所有泚出之告祭官及各執事官服色臣未
請擬素服冠綴纓絳其行礼之節由臣部酌設
行文太常寺遵照辦理謹附片具奏奉旨已
錄

大行皇帝遺詔

正月十五日

奉天承運皇帝詔曰朕蒙皇考仁宗睿皇帝覆載
隆恩付畀神器臨御天下盈三十年仰惟列聖家法一以
敬天法祖勤政愛民為本自維薄德敢不朝乾夕惕惟
日孜孜故自御極至今凡披覽章奏引對臣工听倉庾
夜三十年如一日不敢自暇自逸並躬行節儉為天下先
嗣位之初即頒手諭首戒聲色貨利一切游觀玩好稍
淡侈靡之事禁絕勿為北溟海臣民所共見溯自西
陲小毒出師捷成夜斂鞠平何敢自矜或累追後東南
瀕海遠區因貿易而致紛爭朕惟古之君子愛人為

大河思無事赤子怪罹鋒鏑是用捐小忿成大信綏
撫才遠於今十載率使毒蝕自消民夷各安生理此
朕蒙上愛民之德衰至今日而庶堪共諒者也至水旱
成災朕密自愧致累吾民所夕憂勞不惜特發帑金
拯民疾苦凡疆臣請蠲請賑無不立沛恩施送未屯
膏月朔澤已飢已溺之懷亦中外所共見待奉皇太后
正及卅年娛志未歡敬謹同懈博供盡禮差先慰老
朕體氣素強自上年春夏之交偶爾違和加意調攝
總未復元去臘還宮後漸遭大行皇太后大事猝踊
摧傷漸形漸弱邇來氣益上逆病勢日臻迨維在位歷

三十年壽登六十有九。復何憾。顧念統緒至重。豈宜博
簡。元良。續系大業。本日卯刻。特召見宗人府宗令御前。
大臣軍機大臣內務府大臣親降硃筆諭旨。立皇太子奕
訥。為皇太子。並諭王大臣等同心贊輔。無恤其他。乃降旨。
甫匝半日。神氣漸散。豈非天乎。皇太子秉性仁孝。植德貞
醇。少無欽承。付托甚重。皇帝位以嗣。天統天生民而立之。君
使司牧之。惟刻矢爰勤。揚勸於以。為人安民。亦係我丕基。
至於視人之法。鑿空衡平。妍媸輕重。自見。惟無私乃克有
濟。兼顧中外文武臣僚。精白乃心。圖勤厥職。用輔嗣皇帝。
乾隆之治。則朕懷益慰矣。喪服仍依旧制。二十七日而除布。

告天下咸使聞知

禮部謹

十二月日

奏為奏聞事恭照大行皇太后遺誥例由臣部恭鑄騰黃
頒發各部院八旗衙門既順天府等處其或京內屬各衙門
及新疆等處並各省城守尉等衙門俱交典兵部轉發各直
省督撫等衙門應查照乾隆四十二年成案由兵部封交各省
提塘遞送遺誥至日直省文武各官率紳士耆老摘經素
服出郊跪迎至公署安設行三跪九叩頭禮跪讀宣讀畢三
舉哀復行三跪九叩頭禮文武官均成服二十七日三日內率紳
紳士人等朝夕舉哀命婦等亦穿素服二十七日直省官員

百日內不嫁娶期年內不作樂直省軍民人等素服二十七日
一月內不嫁娶百日內不作樂官員軍民人等以宮中大事之日
為始均百日內不薙髮其頒發朝鮮之遺誌應查照歷屆
業封交該國年貢使臣查員回遺誌至日朝鮮國王率羣臣
素服恭迎止鼓樂至頒發琉球緬甸越南暹羅各國文冊各
該督撫轉發外藩蒙古諸部交理藩院照例辦理為此謹
具奏聞

禮部謹

奏為奏聞事恭照大行皇帝龍馭上賓應行恭頒遺詔
臣等謹查則例內載應由臣部恭鑄謄黃頒發各節院八

海衛門暨順天府等處其威寧所屬各衛門及新疆等處並
城守尉等衛門俱交兵部轉發至各直省督撫等衛門向例派
員賚送詔書全日直省文武各官率紳士耆老稽顙奉服出郊
跪迎聖公署安設行三跪九叩禮跪聽宣讀畢立舉哀
復行三跪九叩禮文武官均成服二十七日三日內率紳士人
等朝夕舉哀命婦等亦穿素服二十七日直省官員百日
內不嫁娶期年內不作樂直省軍民人等素服二十七日一月內
不嫁娶百日內不作樂官員軍民人等以家中大事之日為始
均百日不葺髮習樞提鎮等官進香之處均行停止等語又
例載遣使頒遺詔於朝鮮國使臣由臣部奏派道詔至日該

國王率群臣素服恭迎止鼓樂使臣不受宴饗其外藩蒙古
諸部由理藩院派員責往儀均與朝鮮國同等禮再查會典
內載乾隆四十二年奉准頒發直省遺誥成案由臣部封文兵部
轉交各直省提塘遞送不但可省驛馬之煩而各直省得以早行
持服成禮等因又道光十五年九月奉上海向來頒發但亦
中書筆帖式等員齎赴各直省嗣後著由驛頒發毋庸派員
前送欵此致遵若在京此次恭頒大行皇帝遺誥除蒙古諸部
應交理藩院辦理頒發朝鮮臣部另行具奏外所有頒發各
直省遺誥應清遵照乾隆四十二年成案並道光十五年諭
旨由臣部封文兵部轉交各提塘遞送仰外直省官員得以早行

持服成禮為此謹具奏聞

正月二十八日

翰林院奏啓真祭文侍衛處奏擬派桂良保
呂栢校圓明園輪流值宿禮部奏派祭社稷
壇朝日壇服色旨俱依設又奏派門橋奠酒
之王公旨派勳貝子太常寺奏派致祭朝日壇
社稷壇成郡王克勤郡王宗人府奏奉移梓宮
附近隨行旨派莊親王勤克郡王惇郡王成郡
王勳貝子奕縉載成各載鈔緡善景崇康公扶
公有公溥公綏公崇公掌事奴才奏初一日致祭奉

先殿崇公行礼旨知道了戶見軍機定郡王綿
岫特奏額載鈔顧蘭薇阿灵阿文慶栢梭
欽差大臣臣福濟臣陸建瀛跪奏為恭報差竣
起程日期由驛具奏仰祈聖鑒事竊臣等奉命
籌辦河塘事宜已將酌設情形節次會奏在案
查回空軍艇計共三千零五十隻自上年十二月初
五日全數渡黃以浚由洪澤湖啟次或由淮楊運
河出江業經揚州等府縣陸續稟報截至本
年正月初十日等日前後催出二千七百餘隻其
江浙尾帮中二百餘隻亦於十七日掃數啟入運河

揚帆直下約計旬日內外均可啟次檢查嘉慶
十四五等年成案例正月二十七日出江並未貽誤
開兌以此比較似本年新漕尚可趕辦臣福濟于年
初即可回京覆命因新漕重運甚關宸厪未敢
草率即會臣陸建瀛與河臣楊以增往來河湖
之間將清江浦塘河太平河張福口引河太平引河
天然引河逐細指飭工員趕緊挑挖務期一律
深通並將清江閘河淮楊河閘段淤積之處嚴
飭迅速掃挖俾清水易于攻刷不致留為隱患
如果遵照估飭實是力奉行非但重空漕艇造行

無阻即所省挑費亦屬不資較之停運辦工
寔是為有益無損除寬深丈尺查造旧誌新增
清冊以及工費若干分別開銷罰賠另由河臣
核寔奏咨外臣福濟拜摺後即于十九日起程
北上臣陸建瀛亦暫行回省清厘積積再赴
清江與河臣親赴各工認真驗收斷不敢稍涉
含混致負聖主慎重河防之至意所有臣等差
竣起程緣由謹會同漕運總督臣楊殿邦恭
摺具奏奉旨已錄

五月二十九日

禮部奏會該知貢舉丁巳日所花沙徇肉祖塔又
奏所前往朝鮮頒聖副使旨所全度朕順
又奏和祭大祭禮節恭理喪儀奏漆餅梓
宮吉期喪儀衛奏奉移梓宮照料儀仗古
所將拍齡四務所奏夫光明殿拜表宗公行禮
召見軍機賈棟侯相定郡王惠親王卓中堂杜
受田蔣柏齡

雲貴總督臣程商米雲南巡撫臣張日晟跪奏為滇省
昆明疎屬本年麥收歉薄辦理捐賑事宜業經完竣
現在秋成豐稔民氣恬熙遵旨請獎紳民以昭激勸恭

擢奏祈聖鑒事竊查滇南省會係昆明縣管轄地方戶口殷繁甲于通省該縣山多田少鮮有蓋藏上年箱正揭花俸被凍颺結實未能完結今夏麥俱吐穗連遭陰雨漢致歉收糧價增昂民食殊形短絀臣程高采前於巡撫任內會同前督臣林則徐達屬捐慮並城紳富量力捐輸以資賑濟當將籌辦緣由具奏欽奉上諭林則徐程高采奏滇省麥收減色民食維艱現在勸捐控卹援奉請給獎勵等語此次雲南辦理賑務各官紳等從後准照海疆捐輸章程給予獎勵該部知道欽此行滇欽遵在案臣程高采與前督臣林則徐暨在省司道府縣先捐銀五千

兩並據閩邑紳民等繕濯急公亦共捐銀一萬七千一百二十
兩設局籌辦因近省州縣產米亦屬甚多散給窮黎非僅
存所能涉事一經採買勢必長奇凡間藉獲極貧波處轉
形會貴殊于大局有妨查小麥春麥南豆等糊均州糊口隨即
分飭近省各屬領銀收買糶糶挽運先擇公正紳耆各就本
城本鄉通行確查戶口印結簿冊糧票將貧戶住址丁口姓
氏逐一詳填其糧票印交貧戶收執仍將印簿票根送府查
驗以三麥重收斗斗在有參差是以用秤較準斤兩大口每
日半斤小口減半定為十日一散某日給放某城紳貧戶先
期榜示通衢自五月初起散至八月底止共散小麥春麥六

十八萬五千四百七十斤南區三十七萬二千三百三十三斤並
放制錢四千五百二串六百文共合銀一萬四千五百五十八兩
零此次城鄉各口均由紳耆督確查核放委屬無隱無遺窮黎
已悉惠宜之惠除在省各員捐貲掩郵係分所應為不敷
仰邀甄叙外各紳民沮敷桑梓慕義樂輸洵堪嘉尚指
銀自一千兩以及一百兩以上者謹繕清單恭呈御覽應
應請勅議查照海疆議叙章程分別給予紀錄職銜頂
戴其有捐數在一百以下並志在官職不符議叙者即由本
省酌給花紅匾額以示獎勵抑臣等更有請者滇省建步
皆山從茲外來商販保運水旱徧災遂致市糧下竭之甚分投

採買脚費已屬不貲且稅運需時緩急更難定恃查以前
省城紳士曾捐有谷石等貯雲南府舊倉作為義谷平糶之
用因為數年久遠積糶賣未及買補歸還該紳士等收存
價銀有發典生息者共計一萬二千餘兩現已飭令趕行買谷
並此次捐銀項下尚餘銀七千五百五十二兩零應請一併購
買谷石添貯義倉庶半年預備積儲即敷歲市足資接濟
實于民食有裨現在府倉移建城內其城外舊有倉廠
俱屬閒曠擬即分借廠座文該紳士自行經營作為積貯義
倉以節紳民另行營造之費所有義倉收貯各石及糶存
銀兩每年由某呈奉報明總理並將收存確數張貼義倉公

局俾眾共知仍隨時開報地方官核實摺查概不准徑吏
 胥之手此係省垣紳民捐輸辦理應請先其造冊報銷將地
 方實在情形及核辦緣由合詞恭摺具奏奉硃批該部議
 奏片單併發欽此

正月三十日

禮部奏派文會試搜檢之王大臣旨派以壯
 親王克勤郡王卓^{秉恪}中堂和色本瑞常豐^豐仲
 恒春靈桂曾國藩劉鈺王廣蔭保昌侯桐
 孫葆元慶祺文瑞朱鳳標錫齡趙光李^滋函
 內務府代奏武德因伊女晉封^廣貴人謝恩

侍衛處奏派文會試搜檢之侍衛旨派特克
慎德與阿希拉布肅慎園明園奏奉移梓
官到園後添派大臣輪流值宿旨派希凌
阿阿彥太慶與與貴貴惟祿希與阿禮部奏
遺詔交朝鮮使臣寄回兵部奏發部臣沿
途不准勒索駟站戶部奏准楊道查文經
虧空應請照例訖處旨留刑部遞速核訖
減等六件旨內留一件餘依訖旨見軍機大臣
定郡王卓秉恬孫瑞珍魏元煊朱鳳標阿勒
清阿王廣蔭文瑞栢梭阿靈阿文慶

上諭王大臣等會同戶部遵設清查各省倉庫
章程酌擬五條呈覽著照所擬辦理惟有治法
貴有治人各直省經此次清查以後自應痛除積
習力杜漸虧但恐不肖官員以為寬其既往安
莫息可俾邀圖便已私仍前軌法何以肅法紀
而儆官常特再明諭各督撫大吏督率藩臬道
府正已率屬各勵廉隅則屬吏自知儆畏仍隨時
認真稽核務須激發天良不憚煩勞不避嫌怨
查有劣員因循玩泄漸致新虧視憲典為具文立
即卽行參辦倘該督撫等毫無覺察或甘為

徇庇經朕訪聞確官定不但平員應置重典定將該管各上司從重治罪朕惟知仰遵諭旨法在必行決不寬貸將此通諭知之欽此

二月初一日

莊親王由東陵致祭回京請安阿彥去謝補進圓明園江西九江府知府崔光笏謝恩倉場奏稅課盈餘銀兩戶部奏查抄查戶鈞家產恭理喪儀王大臣奏請

經日期量素供獻旨著素供理藩院奏西藏喇嘛領領膏又進月摺旨知道了禮部奏派文會試搜檢旨意旨麟光劉位坦謝榮埭翰林院奏初祭大祭表文各見

軍檢定郎王莊親王鄭親王怡親王僧王崔乾為德誠朱
 寧奕毓送順皇上明日用膳後出乾清門乘運門東華
 門地安門跪送大行皇帝梓宮後乘輿出德勝門由土道進漪
 春園空門大行皇帝太后前奠祭行禮畢由內還園至東書
 房辦事召見大臣候梓宮到出入賢良門東槐木
 外跪迎梓宮引進出入賢良門正大光明殿安奉奠
 祭畢還飛雲軒卯初二刻預備

二月初二日

皇上于巳正到園都察院差抽查漕糧之御史旨訖
 喬邦憲韶源都察院提督府各進甲米進城上只知通子

召見軍機

上諭陳慶偕奏堪明各州縣衝被災情形懇分別緩征新
舊正賦一摺山東濟南等府所屬州縣衝本年年夏秋之間
旱潦未能悉均且有被雹被虫之處收成情形歉薄若
將新舊錢漕照常征收民力實有未逮加恩著照所請所
有被水較重之濟南府石佛莊等九十五村莊惠民縣方家
等約一百五十村莊陽信縣美一等園等七十八村莊被水
被災之樂陵縣新莊等九十一村被水之海豐縣河營等堆
等一百三村莊魚臺縣五皇二廟等五十九村莊應征本年
錢糧漕米漕項河銀臨德等倉攤征堤工等項並青黃

不接業內原緩上忙新賦及二十八年未完民欠舊秋實原
緩錢漕均緩至三十年秋後整征舊各按最先年分依次
啓徵以紓民力該部即刊刻謄黃通行曉諭務使實惠及
民毋任吏胥舞弊用副朕軫念歎區至意該部知道欽此旨
本日恭請大行皇帝梓宮之校尉民夫加恩著該衙門按數
數每人賞給一兩重銀鏰一個由庫儲司給發欽此

大學士臣錢謙益等跪

奏欽奉上諭朕惟自昔帝王功德正若必有隆稱顯赫昭示
言窮此萬世不易之典也欽惟我皇考大行皇帝御宇三十
年來寧思嚴恭憂勤惕勵每歲郊壇大祀躬親祀格辰

數陵廟畫制畫倫遇皇祖仁宗睿皇帝皇祖妣孝淑睿
皇后之居必追感麗泣食飲彌日孺慕終身侍奉皇祖妣
大行皇太后嫔志承祫三十年有一日尊養無至終始無
虧大孝肫誠實千古所未有至于聖澤廣運勤勞萬幾
夕惕朝乾有加無已節以制度儉以持躬當御極之初特
領手諭嚴聲色化負利誠之以身作則垂刻方未寡款清
心致之典學一功遊觀玩好概從屏斥不自居濬邸智勇
邁倫躬仰神槍鐵陰賊匪嫺騎躬而發必中的詰戎兵
而備豫不虞戡之四維剝推逆裔四城克復一鼓蕩平彼
藩服而屏盡皆棄守遠人而烽烟永息愛民如子一視同

仁偶值水旱備災。無不思膏立沛。蜀祖發粟惠澤。清流肆
赦者。刑好生德洽。整飭吏治。敷睦宗友。獎忠節。而爲勳者。育
人才而厚風俗。天心助順。有感如通。衆志成城。無思不服。凡此
難名之美善。宜揚盛業。于身親顧。于冲人嗣。膺大統。雖聖德
極。漢冲之致。而亦振承佑。啓之恩。詳考勳業。宜升謚。稱著大學
士九卿會同。教謹議擬。以聞。用副朕。願揚。漢列。之。佑。數。尊。崇。至。意。
欽此。臣竊惟。崇光。象。矩。宣。金。隆。視。廟。之。儀。謙。德。鴻。軒。薦。玉。美。
升。園。之。祥。譽。成。頌。信。揚。素。度。以。傳。風。武。烈。文。偉。赫。靈。符。
在。靈。日。登。三。有。式。昭。萬。無。私。恭。聞。甲。檢。之。徵。宣。著。至。地。之。頌。
欽。惟。大。行。皇。帝。紹。天。闡。經。亘。地。稱。美。天。之。眷。眷。三。代。法。祖。

漢于七室。聖人髣髴大孝通寰。是于履中中庸之極。求哀
益政。孜孜簡日之衰。側燭觀書。炳一歌。聖之制。名光。喪。儉。身。
作千儀。高。杖。垂。銘。手。宣。回。戒。申。威。垂。慶。保。商。界。以。行。運。子。
惠。蒼。生。念。九。成。而。履。震。興。三。正。俗。於。五。遊。官。遠。機。教。宗。蘭。
升。育。士。聖。神。泆。宙。重。二。方。之。御。崇。均。禱。承。啓。孚。基。億。紀。之。
章。丹。式。道。皇。上。紀。衣。維。志。稽。皇。無。求。章。澤。撫。慕。王。藏。冠。心。
儀。聖。降。垂。大。名。以。告。爾。聖。首。未。臆。言。臣。等。職。附。升。飾。情。殷。
晉。著。履。并。風。紀。于。皇。流。帝。跡。比。德。難。名。揚。麟。筆。于。乾。構。坤。
模。師。詞。尊。聖。臣。等。敬。擬。恭。上。尊。造。六。字。併。徽。稱。二。十。字。
而。稱。六。字。伏。祈。欽。定。俟。發。下。後。臣。等。再。行。會。同。九。卿。恭。

摺具奏奉旨已錄

二月初三日

禮親王等奏止痛五塔爾巴哈台參大臣扎拉芬太等

請刻衷全儀衛奏請賞給校尉銀兩數目內閣奏遵上孝

穆孝慎孝全皇后謚稱旨留又奏進封皇后謚稱旨加

德^不禮部奏^不否前^不刑部奏^不各省^不致參^不五^不獄^不四^不滂^不旨^不留^不內^不閣^不 孝

呈進實錄日期旨著於十二日呈進都察院奏承得查

保甲旨知道了召見軍機定即生庸親王惠親王卓中堂

阿灵河柏後圖伽布扎拉芬太李蕊

軍機大臣面奉諭旨文武各衙門向例在圓明園輪流值

日之處至自二月十二日起照舊輪班值日欽此旨各衙門應行引見人員著于本月十二日起帶領引見欽此
烟庫從督臣裕泰湖北巡撫臣龔裕瑞

奏為遵旨揀員調補省會首府員缺恭摺具奏仰祈
聖鑒事竊臣裕泰內閣抄出道光二十九年
十月二十三日奉上諭湖北武昌府員缺前已有旨著該
督揀員調補所遺員缺著遠昌阿補授欽此臣等
伏查武昌府為省會首府管轄十州縣二衛政務殷煩且
時有委審委辦事件非精明幹練才守兼優之員不足
以資治理在於通省知府內詳加揀選查有荊州府知

府明憲視年五十六歲滿州廂藍旗人由監生遵武陟事
例捐納等帖式補缺後歷升步軍統領衙門郎中道悅
二十六年京察一等奉旨記名以道府用是年五川保送
御史七月奉旨湖北武昌府遺缺知府十月二十七日到
省旋補今職現經奏委署武昌府篆務查該員富寧
勤明辦事穩練以之調補武昌府知府實堪勝任所遺
荊州府知府員缺應遵旨即以達昌河補授再明等係
遵旨揀送調補毋庸查叙各罰案件理合恭摺具奏
伏乞聖鑒謹奏奉旨已錄

二月初四日

抽查漕糧衙吏辭源喬邦憲詳劄等儀奏
初七日忌辰祭奉先殿華公行礼又奏添派溥
公輪流改祭奉先殿礼部奏仁宗睿皇帝神牌
請加謚号字樣又奏大行皇太后二月滿事宜又奏
追封皇后事宜恭理喪儀王大臣奏初八日春分後
早祭改辰初之刻晚祭改申初之刻午祭照旧中正殿
奏恭遇大行皇太后大行皇帝孝穆孝慎孝全皇
后忌辰奏經旨俱依議旨見軍機處親王惇郡
王恭親王定郡王文慶韶源喬邦憲
宗人府宗令多羅定郡王臣載銓等謹奏為

會訊具奏事道光二十九年十月十五日奉旨諭前批
王大臣會同戶部籌設各省清查倉庫現已陸續
將次奏齊惟政貴核寔是其應如何彌補曰欠力
杜新虧不致有名無寔之處著原設王大臣會同
戶部再行妥設章程具奏欽此欽遵于十月十七日
由內閣抄出恭錄知照前來臣等覆查各省清
查之案業已陸續奏到將次齊全凡係因公挪欠
銀米批該督撫等徹底查辦或勒限以追或扣
廉放款或節經費以為彌補或令分賠以示創懲
務在積欠有著不致徒托空言惟思彌補日久

數目既有多寡之殊年限遂有遠近之別雖各
省情形不同勢難畫一而辦理之法總以挈其
綱領分款籌故為第一要義臣等節次按照
各省章程分別覆奏均經欽奉諭旨遵行飭
知道辦該督撫等果能各就該定新章實力
整頓已立限者不使稍自遲逾應扣廉者不使畧有假借
其兩提經費若務令按款補完若應分賠者悉令照數
呈繳但肯實力勻得自可漸收成效仍應請旨飭令該
督撫將扣補進賠各項即白道光三十年為始半年一奏
明彌補若干進賠若干由戶部按冊稽查隨時撥用如逾

限不完或完不足數均照該省奏定章程將玩世各員據
實劾參及掌管之藩司據實劾參按律送處惟在而欠
既已剔清新賦更當核實是臣等詳查例冊如証以提
解盤查考核各事宜俟晰條分本極肉逐如該藩司
平時既不講求臨事復多隱諱意存見好設法通
融以致日久玩生州縣等官遂有恃無恐轉相挾制
而督撫大吏又以錢糧責在藩司瞻顧因循得託了事
此後若不痛加振作力挽頽風恐不數年間一切倉庫
錢糧又復續有虧缺更費周章臣等謹就例載條
款悉心參酌議定章程五條恭呈御覽伏祈聖鑒一

官墊民欠名目宜永遠禁革也查各省州縣征收錢糧
例應儘江儘解即有民欠未完亦應實力催征不准絲
毫挪墊臣等檢查此次各省造送清查冊內尚有墊完
欠名目是該州縣以欠作完藉以規避處分而該上司並不
據實之查參以致相率效尤日滋流弊伏思州縣官馬
肯自出已資代民完墊不過挪動庫款敷衍目前
而剜肉補瘡虧數日積迨經豁兌即歸入民欠
項下下律請蠲是但顧州縣之處分不顧庫款
虛宕弊端莫大于是經此次清查之後不准再有
官墊民欠名目以杜虧那倘有此名色應成該藩

司四行奏辦如不奏辦即將該藩司及督撫由戶部一併查奏已征未解流弊宜永行革除也查戶部別例內載各直省征存錢糧按限將寔是征寔解細數造冊送戶部一面查明各州縣如有已征未解者即行批寔是奏倘有疎漏即將該督撫藩司叅處又州縣征存錢糧必係解到司庫始准以寔是完奏銷如止報征存未經解司者奏銷冊內不得列作寔是完免處分是立法本極周至果能寔力奉行自無虧那情弊大經次此清查之後應專責成各省藩司遵照定例飭令各州

縣將上下兩北錢糧截清數目隨徵隨解該藩
司縱以寔存司庫確數造冊報部不得批州縣
報完者列入寔完異免屬官処分如此則但云
已征即無未解倘再有已征未 之款是藩司被
人欺混有意姑容經戶部查出即將藩司即行叅
處責令補完入冊並將容隱之督撫一併查叅
一那新掩旧之弊宜四行禁絕也查直省州縣
征解錢糧例應年清年款儘解司庫設有上
年未完款項亦應完寔是力催補足數征解年
數乃來州縣征解錢糧上年倘有未完之項即

那本年征存之銀以補身缺勢必將本年挪移之項又待挪補于來年似此因挪成虧愈積愈重久之無項可補釀成巨業積習相沿殊堪痛恨經此次清查之後舊虧既已設法追賠彌補則州縣應征一切正雜錢糧應責成各省督撫飭令藩司按年汇报請款不准稍有尾欠以為日後整頓地步並隨時吊查一絲簿串根如有挪新掩舊情弊即行指名嚴參從辦一交代限期宜嚴行稽覈也查各省州縣交代例限甚嚴惟近來均不依限結報或以賤換冊結為詞即符逾限處分推諉于事致難任人員以致逐年累月交接不清迄至救生愈多移轉出次經

查清之後該督撫藩司自當破情而違奏前議章程
凡遇有新舊交代歲筭各屬總將實銀谷依限結報如
查有微存未解以及虧挪流攤監抵等弊立即嚴行各辦
倘該上司有賒徇迴護抑勒後任出結等情無論本員控
告及別徑發覺除將該上司從嚴懲治外並將不行各
辦各上司由戶部一併從嚴參處並令將所屬州縣無論
現任署理于何月日到任何時卸事核實詳查隨時咨報戶
部以憑查核一藩庫實存銀兩除存留例支外宜悉報
撥也查戶部則例內載各省庫貯錢糧每年于春秋二季
將實在存庫銀兩造冊報部戶部核明數目存留

本省支用及協餉外餘悉解部充商餉歷經遵奉辦理奉
稽查近年以來不特請留：備者分國云餘銀解部
印留收者分其撥冊實存銀兩奉旨指項留支解者餘銀
撥解京庫者亦屬寥寥：惟此次清查之後各省藩庫正項
款項除撥用及例支外其實存銀兩應令各該藩司逐數
造入季冊報撥由戶部分別嚴行核定指款撥解不准另
立名色率請存留如另立名色存留之戶嚴查以行掩飾
以實庫存又戶部每年於年案內照數各登記行令人撥
款項終當嚴催報撥統啟是用倘再仍前延宕任催罔
意一經查出即行功指嚴參以狂肅挪而嚴核以上五條

臣等會同等議嗣後辦理新賦如果墊欠永絕証解相
符屬庫錢糧毫毫無掩例限交代不令逾違加以春秋
季報銀數核實撥一毫德歲如此上下相維何致有若
此實據之法不在得人是在全賴各直省大吏督率藩司
道府正己率屬各以身先不憚煩勞不避嫌怨同心協力共
挽頽風自可杜新虧而除積弊况此次各省清查凡因公
虧缺人員未已渥荷恩施寬其既往倘舊欠尚未等故
新虧又復連接則是不肯州縣等散法營私白干罪戾
一經查出但本員應置重典即該管之知府司道督撫亦
應由戶部據實上殿奏請旨從重懲處以肅綱紀而重課

賦謹將臣等會議緣由繕摺具奏是否伏乞皇上
 訓示遵行再此摺係戶部主稿合併陳明謹奏奉旨已錄
 二月初五日

熱河圍場總管那福德到京請安吏部奏咨南府知
 府花詠春升署濟東方武臨道學例不符恭理喪儀
 王大臣奏奉移大行皇太后梓宮安奉隆恩殿事宜又
 奏奉移大行皇帝梓宮清皇上在西卡木流送又奏奉移
 孝陵皇后梓宮安奉正殿刑部遞減等月摺旨俱依
 議戶部奏並更換烏雅監督旨並孫葆元雍和宮奏
 北佛樓供奉大行皇帝金命聖牌並員指香上以明訓

禮部奏龍泉峪四時致祭改用祀帛又奏春德皇位西一
切致祭事宜旨依議召見軍機阿靈阿文慶柏後惠豐
禮親王孫保元老曾英那福德之孫王

傳門搜檢奉 會日法三卷十四

旨沁河勒清河瑞昌花山太廣興何裕永哈芬員益章定福那
昌阿齊太桂良車克慎興貴多爾洛那木凱

巡牆御史

旨沈善琳文光怡康增齡曹履太陳壇余文鈞夢兆林

搜檢侍衛

旨沁罕毅阿伊常阿常山碩慶

上諭恭辦昌西陵工程著添派訖柏後基溥會同魏元煊吉倫
恭吳桂彭蘊章前往敬慎將事欽此

旨三月二十日卯刻大行皇太后梓宮奉移昌陵隆恩殿
暫安廟期朕于倚春園大宮門跪送仍步行恭送紅橋
用伸哀悃候梓宮漸遠朕進福園門還飛雲軒侍立欽
此

刑部謹奏為遵

旨速議具奏請旨事軍機處交出江西學政張芾奏查
明副將知府被劾各款據實密陳一摺道光三十年正月
十二日奉硃批另有旨欽此同日奉旨諭張芾遵查副將知府

被系各款一摺為刑部速議具奏欽此欽遵交出到部該臣
等查得各奏內稱高臣于道光二十九年十二月初五日奉
軍機大臣字寄道光二十九年十一月二十四日奉旨諭有人奏
副將廢員營務狎僂繼子並知府侵蝕公項玩視人命各一
摺又片奏該府尅扣賑項監責災民等語據梅江西袁州副
將達崇阿性好演戲不知操練以幼童食糧充兵又縱伊子
城市馳馬錫傷鄉民並縱娶王姓業徑受聘之女為妾控
告有案又九江府知府劉熾昌藉端侵蝕義倉銀兩又諱
盜勒令事主改呈復于辦灾時勒刪丁冊尅扣賑銀並因
賑灾逐民濫行杖責各等語著如所奏文武官負種之軌

法懲私均屬貪鄙謬妄豈幸職所能敬享也應確究辨
著張芾接奉此旨各按所奏情節即逐層明察情詞務得
確情據實密陳原由凡奏者抄給閱看准此諭令知之欽此
遵旨寄信前來臣當即遴委候補知府金安世飭赴袁
州署銅鼓營同知事知縣靳丹書馳赴九江各按所奏
情節密行訪察札飭現署九江府知府邱建猷會同委
員靳丹書查取各案去後臣復詢查巡撫藩臬衙門文
卷連日仍留訪察皆有端倪茲據委員金安世靳丹
書先後稟省稟復一切知府邱建猷亦因公來省臣
面加詰問並據呈出各項案卷臣逐款查核以維刑罰

大概相同如原奏所稱副將達崇阿惟好演戲一款查得該副將達崇阿並未自制戲具惟時常差喚戲班演戲其子福壽等兵丁周之騰等連魁等道同演唱幻臺倉糧一款查該營兵冊內張虹蛟等十三名均十七歲于禮和等七名均十六歲別無幼童充額該副將于兵丁操練未能勤加校閱又乘坐煖轎一款查得該副將平日均係乘馬惟宜春縣有登佈里等處封禁之山向應每月會同該府汛查一次該府將因山路崎嶇乘坐小轎實屬違例又從子馳馬擊失墜時有縣民劉智行不及走避被馬踢傷經袁州府陳兆溶驗得劉智行額顛底腮俱有傷痕植單

飭醫批唯提訊據監生劉其望等以劉智行傷痊具結在
案此外別無被控傷損等據又從子趙慶王姓之女為妾一歎
查本年十二月初一日有王潘氏即張潘氏有巡檢藩司
衙門具控即經控臣曹開綬飭差升任臬司陳啓邁提
訊臣當向該司查取供詞緣王潘氏即張潘氏係已故宜春
縣巡檢王瑞麟之妻親生一女潘氏後又再進粵袁州外委
張炳太為妻仍携前夫之女控養張炳太於道光二十七年
十月病故其女年甫十三歲並未受聘把從幸文魁外委
張對槐為媒許配劉符達崇河之子福壽為妻並立婚
書得受財禮錢二百串制不辦衣物是月劉符達門用執

事花轎迎娶嗣後潘氏曾進署看視一次現聞其女已
生一子又聞福翁另行聘親將其女為妾屢欲進署查
問被兵丁周雲騰毆打是以上控把總辛文魁外委張樹
槐得相同推稱不知福翁另娶妻室將女作妾情事臣委
員全安世所查則稱達崇阿本係為子男妾嗣因知係職
官之女改為正室補給婚書因潘氏情性異常不許往來
以致挾嫌上控等語情節參差殊難憑信現經臬司差
提福翁將張雲騰來省審訊應俟提到日由控臣督同
藩臬兩司訊完臬公辦理又藉省赴差從兵訛詐一款
此稿未完

接續前稿查該副將係道光二十六年因欽差
尚書賈尚阿閱伍奉調赴考謝連年並未到
省惟查道光二十七年十二月有兵丁張兆林因查鹽
與艇戶爭鬧到官經該縣訊明艇戶李冬成並
無帶私情事將張兆林照擾害商民例枷杖
外落完案該副將之不能約束亦可概見臣
查該副將達崇阿身任武職二品大員不以操
防為重輒敢無事演戲且縱容子弟兵丁演唱
並種滋事定屬昏懦荒謬有玷戎行又原奏
所奏知府劉熾昌侵蝕義倉銀兩一類查九江

鹽義倉向係該府管理道光二十三年二十五年亦
年由鹽道庫共領銀一萬二千兩買谷一萬五千
二百六十七石又動項彌補谷九百石共一萬六千一百
六十七石于道光二十七年全行碾米運京二十八年
水災紳士著領經該縣鄭長所稟明該府查以
此項谷價銀兩鹽道庫尚未補齊無款可支委
無侵蝕情事傳訊紳士譚瓚即譚用侯供稱道
光二十三年七月該府外銀四千兩在伊所開恒太錢
店換錢六千四百串委員採買伊並未經手亦屬
寔情惟義倉之設原以備災應令作速領款補

貯以重倉儲又玩視人禽請盜改呈一款查得道光二十八年十月初六日九江北門外譚福太錢店夜間被盜劫去銀九百七十一兩零毆傷店夥劉金鸞傷斃店隣譚琦經主譚哭次日報官該府令確查駐紮教始行報呈通詳該府訪聞係革役孫亮之僕馬老四行劫孫亮因案擬革尚未招解該府令其捕盜免罪旋批孫亮將馬老四拿獲又續獲王快活帽利等十三名到案僅供盜銀二百七十餘兩起贓單餘兩該府遂令專主換呈領贓孫亮亦減為杖罪後因犯供游

爽稟請蘇省適江蘇咨報獲犯李有采任政錄
等供認行劫九江城外錢店查與譚匪人被盜日月
銀兩相符譚匪赴臬司具控前情經臬司委南昌
府等審明馬老四等均與此案無涉亦非李有采餘
黨應歸另犯竊案辦理李有采等犯已經蘇江撫
臣奏明正法該府劉獄司于此等重案輒令擬軍
革役妄拿多人遽免其軍罪雅馬老四等犯皆係
匪徒而罪名生死所關該府並不虛心研鞠平甫詳
辦若非江蘇緝獲正犯幾為輕罪失入致令真兇
漏網非尋常錯謬可比雖經臬司委該府會審



隨同更正定是不足以贖其各刪減丁冊尅扣賑銀一款
查簿司案卷道光二十八年九江府領撫恤銀一萬二千
兩計大口四萬二千九百三十九口每口給銀一錢八分共銀
七千三百九兩二錢小口一萬九千六百十口每口給銀九分共
銀一千七百一十五兩四錢總共大小口六萬一千九百九十
九口給撫卹銀九千四百四十四兩四錢一分餘銀二千五
百五十五兩五錢八分作修隄之用擬委員靳丹書
等查得道光二十八年夏間該處江水大漲四鄉災
民紛入城該府劉熾昌給散口糧每人二三百文不
等共給錢一千餘串起倉存平並無冊籍可稽其各

鄉戶口由地保造冊該府將冊報浮冒地之保廖
名江板責一百掌責一百曹世璜張佑元各杖責
數十張守珩並未受責該府遂將各鄉丁冊逐
加刪減該處于三被水最重者名曰水鄉被水較
輕者名曰花鄉水鄉大口五萬五千零四口每口給
錢二百文小口一萬八千七百八十一口每口給錢一百文花
鄉大口三萬二千五百七十一口每口給錢一百五十文小口
一萬八千九百九十一口每口給錢七十五文共大小口十
二萬五千三百四十七口給錢一萬九千一百八十八串合
銀九千四百四十四兩零均交各鄉紳士具領分散

餘銀二千五百五十五兩零已于修理封廓隄工動
用造報是該府並無尅扣入已情弊尚屬可信
惟詳報藩司之案何以戶口大相懸殊若云多銀
小是以減放何以又餘銀二千五百餘兩別作修堤
之用查該府劉熾昆現因俸滿赴部引見請
旨飭部就近傳訊又濫責災民一款查係道光
二十八年除夕該府因災民在街坊索錢肆鬧喚
進署內杖責二人餘人散去渡江尚無濫責情
事又豎立德政碑一款查得該府署前鼓樓
下墜有一碑係道光癸卯年十一月閩郡士人公立

文內係稱該府倡修堤工書院等事臣查該府劉
燾昂雖無蝕倉儲賑項重情而辦理命盜重案種
種乖舛且散放撫卹銀兩多未妥收復以現任知
府任聆紳士立碑沽名亦屬不合以上該二員被參
各款臣既經查明不敢稍有瞻徇謹處寔密陳請
旨定奪至各該管上司皆有失察之外各應行附參等因
具奏前來臣等查向來臣部覆各省奏案均係
按照原奏內所擬罪名並詳核咨部可供指是否
允依分別准駁其未經定擬罪名之案亦按照供
招核其情節以應得罪名始行覆奏歷經辦

理在案此次袁州校副將達崇阿九江府知府劉燾
昌被參各款奉旨飭交江西學臣密查具奏雖未
批取具該員等供詞而業已查詢明確奉旨交
臣部速訊應即按照原奏所查該員等被參款
蹟以應得之罪查此案副將達崇阿被參各款
除伊子福壽娶潘氏之女為妾一款現經該撫督
同兩司審辦應俟具奏到日再行核訊其餘所參
該員操演不動無事演戲縱容子弟兵丁演唱
並兵丁訛索未能約束各情既批該侍郎張蒂
逐款查明屬實是該員身在武職三品大員並不認

真操防種之荒謬寔屬有玷戎行僅予斥革不足
蔽辜應請旨將現任袁州協副將達索阿即行
革職從重外往新疆克當苦差該員事犯在本
年正月二十六日以前俟查辦官犯時再行請
旨核辦至九江府知府劉熾昌被參各款內除譚
福太錢店被劫一案業已批該府隨同臬司更正由
江蘇撫奏結其餘各款現經該侍郎逐一查明
該知府劉熾昌於散放撫卹銀兩多未妥核復
以現任知府任聆紳士立碑沽名亦有不合查該知
府劉熾昌身應表平于地方撫卹事宜未能妥

愷復以倡修堤工書院任聆紳士立碑實是屬違制相應請旨將現任九江府知府劉燾昂先行革職以示懲儆再查劉燾昂被奏款內以動用倉谷及賑務戶口不符兩款為重如該知府所管義倉將所存谷石于二十七年間全行碾米運京查義倉谷石係備地方災賑之用何以碾運進京維擬該侍郎聲明該員尚無侵蝕重情難保非另有挪移情弊又二十八年辦理賑務詳報藩司戶名何以與實放戶口大相懸殊若云人多銀小是以減放何以又餘銀二千五百餘兩別作修堤之用擬該

侍郎奏稱該員因俸滿赴部引見請旨將部
就近傳訊臣部查核吏部覆稱該員業于上
年十二月間領照赴任應請旨飭下該侍郎抑
或飭下兩江總督查傳訊明二十七年動用倉谷
是否立有文案抑或另有挪移別情其詳報
戶口何以不符有無意存朦混情事並取具
該員供詞切實是叙明按律定擬具奏如到日
再行核辦至原奏內稱該管上司均有失察
之咎應行附奏恭候命下臣部移咨吏兵二
部照例辦理所有等語先行速議並再請查

訊緣由理合恭摺具奏奉旨已錄

山西道監察使臣鮑繼培跪奏為籌買熱河
米石以裕倉儲恭摺奏聞仰祈聖鑒事竊惟
江浙等省夏間水災仰蒙皇上天恩迭加賑卹凡
屬災黎無不共戴生成惟本年蠲緩既多來歲有
漕起運短少京倉為積貯所關尤宜先事籌
劃曾經給事中臣劉良駒御使臣福昌等先後奏
請採買北糧均奉部議准行臣查本年北省秋成豐
稔熱河地方有承德府屬之平泉建昌朝陽赤峯
四州縣所產小米尤多約可援買十餘萬石臣前在熱
御

河刑司任內深知詳悉該處文武各員一應領俸米及旂莊營汎兵餉皆係小支放刻下該處小米每石價約制錢二千文每銀一兩約易制錢三千三百文由熱河陸運至京每石運費約值一千文通計每石僅止銀一兩四五錢左右較京師糧價銀價大為輕減惟采買必須現銀前經部議所有清查案內各員應繳之項應令該省督撫查明數目剋期繳清妥為籌撥奏明在案特此款執力難一時繳齊則撥項亦必動需歲月相應請旨飭下直隸督臣趕緊查明現在各屬已繳若干即派

安員解交熱河都統轉行四州縣迅速採買運
京嗣後隨繳隨拵隨買隨運務期米石源源
而來該處既免谷賤作農之虞亦無 指市餉之弊至
東河南等省既經部議准通亦應奏聞請旨飭下各
撫臣等遵照辦理即將運銀入都之費作為運京
入倉之費以免格外開銷如果京倉寬裕此項米
即可隨時搭放米年米餉亦可漸致平減而閭閻群
黎含哺鼓腹矣臣為籌備倉儲起見是否有當
伏乞皇上聖鑒訓示謹奏奉 硃批戶部議奏欽此

二月初六日

嵩藻

祁中堂由甘肅查辦事件回京請安前在廣西藩司

司雲麟病痊請安大學士九卿會議郊祀廟社禮卷一

摺四閱頒發外省賀表圖樣戶部奏浙江省停運丁

糧旨知道了召見軍機孫珍阿勒清阿卓秉恪中堂瑞郡

王濟親王御前大臣之那王惠親王老曾英杜凌田周祖培

翁心存貢植朱鳳標惠豐雲麟祁嵩藻皇上明日

辦事後出福園門走慈福寺進漪春園宮門至大行皇

太后梓宮前行禮致祭畢由內還飛雲軒用饌東書房

召見大臣知正三刻預臨

奉御筆保清轉補翰林院侍讀學士毓檢補授翰

林院侍講學士欽此

上諭山東濟南府知府員升際要着該撫于通省知府內揀員調補所遺員缺着西拉納補授欽此

上諭程高米奏請揀發副將一員參將二員遊擊三員都司二員米黔差着兵部於曾任綠營候補選人員內照例揀選帶領引見候旨發往欽此

御筆王等所奏知道了但爾等雖失小節究屬忠悃之誠而陳字思雖為薄言起見于大体實屬年課仁壽載銓載恒瑞華僧格林沁陳字思均著一併文名該衙門議處欽此

二月初七日

西拉納謝放山東道缺守恩

恩華由西陵查道回京請安

齊親王等謝議慶恩

毓檢謝放翰林院侍講恩

禮部奏大行皇帝初滿月禮節又奏弘大祭後輪祝奠

酒之王大臣旨沙禮親王莊親王仁壽克勤郡王瑞郡王

成郡王勳貝子縉貝子載鈐溥公休公綿山恭親王醇

郡王又奏致祭白龍潭玉泉山旨沙德興廣林召見軍

機西拉納定郡王齊親王曾國藩恩華文慶僧王怡親

王鄭親王

皇上親授白袖頭

上諭朕泣請皇考文行皇帝殊筆直諭訓誡精詳鑒至
伏誦悲愴慟絕五中諭今母庸升配升祔二條事關明經
典鉅天下萬世觀瞻所繫是用轉諮廷臣令王大臣等會
同九卿翰詹科道詳考典禮務求至當茲據集議以聞事
稽古人郊配后稷以來唐宋及明或三祖並指或數帝分配
我朝聖相承均經升配郊壇永崇禋祀第配位迭增而壇廟
之規制有定敬繹殊論若世世視為坊例率行增置豈有
背于古訓爰難示信於後人再四籌思不能不加以限制

仰見聖德邁光起復前古而所以為萬世慮者至深且遠今
禮親王金齡等仍遵列聖成憲朕詳加披閱因思尊宗之
典莫大于嚴父配天如我皇考之德洋洋綸同符列祖而遠
停升配維條仰遵遺命朕心實有難安展轉詳思應照王
大臣等所請郊壇大祀俟祔廟禮成後恭奉皇考神牌升
配並遵隨制定以限制嗣後郊祀配位億歷萬年總以三祖
五宗為定自朕躬以下不復率行並恭錄皇考殊諭首條
及朕此次諭旨懸奉南郊齋宮垂示久遠著為成式世
遵敢或循罔戢萬不准再濫更張而皇德克廣孝思實于皇考
之功德允稱而于朕謀盡格則地周詳之意亦庶允稱慰

夫禮經三昭三穆與太祖之廟而七宗宋儒朱子謂一世
不祧之廟如用之文武世之商之成湯三宗不在數中則天子
七廟特禮之常制非合不祧之室而言我皇考功德隆威名
宜對廟稱宗向應恭侑山陵禮成後祇稱神主升祔以致
孝享而盡宗事凡此仰稽旧典循順輿情至漢周詳萬世
所當效法向朕權衡審慎務求悛于天理人情之至以下
副四海臣民尊親愛戴公心為我皇考在天之靈當亦默
垂鑒格也所有應行典禮各該衙門屆時敬謹詳察具奏
將此宣諭中外知之侍即曾國藩所奏頗有是處其餘京堂
及科道等所奏各抒己見殊少折衷若措均不發還欽此

旨感京將軍奕興奏請來京叩謁梓宮一摺奕興等
庸未京致此

御前大臣載垣等跪奏為請

旨交該衙門嚴議事一遵接奴才于召對時與陳亨恩語言
辨論奴才等原為國家大体起見不敢因小節而平國政是
以舉措失儀不勝恐懼之至伏祈皇上天恩將奴才等交各
該衙門嚴加議處為此謹奏

二月初八日

福濟由江南到京請安

慶祺前往西陵查工請訓

都察院奏派文會試專司稽查之堂官旨派王
廣蔭倉場奏銅斤交局

由閣覆崇大行皇帝尊謚廟諱徽稱一摺旨依
議召見軍機處親王福濟和淳杜受田慶祺

上諭朕仰承皇考副托之重競圖治深恐歲務
紛繁措置未能悉當敬念列聖御極以後得頒詔
旨求言蓋一人之聰明智慮或有未周必公聽並觀
而後上下之情通措施可期于允協矧朕德薄何
能虛衷延納博採謹言特此通行曉諭凡九卿
科道有奏事之責者于用行政一切事宜且此旨

得據實直陳封章參奏俾俾處務不至失理而民
隱得以母私上聞諸臣務須盡心洋博毋偏母私凡有母私於官方吏
治國計民生者各抒所見切實論奏以副朕集思
庶益之至之意欽此

○禮親王臣全齡等跪奏為這懇保衛聖躬勉
節哀思事本月初二日奉移大行皇帝梓宮于
圓明園正大光明殿皇上步行恭送復痛哭跪
迎臣等仰見聖容哀毀逾常悲痛過甚竊維
大孝本自性成臣等何敢以抑情之請再三瀆懇
惟念皇上皇上以繼體之重當積瘁之餘國計

民生關繫甚鉅且嗣後祭奠儀節正繁惟冀
皇上念天祖付托之重惟臣民依嚮之誠保護聖
躬強加抑制臣等不勝惶悚激切待命之至伏祈
皇上聖鑒謹奏奉御批朕惟念付托之重故不
自知哀傷之至所奏知道了欽此

二月初九日

福濟遵旨據寔是覆奏禮部奏宣宗成皇帝初滿月事
宜旨俱留又奏二十七日朕色又奏進封太阿哥三
阿哥謚恭旨留又奏孝德皇后二滿月致祭旨派成郡
王又奏頒賞朝鮮國回貢刑部進減等項審五件慎刑

司連減等一併旨得依議掌儀司奏十一日巳辰致祭
奉先殿崇公行禮提督等衙門各連甲米進城又連餉
勒到京召見軍機大臣王惠豐阿勒清阿柏蔭文慶
阿灵阿

上諭朕恭讀大行皇帝祇謁西陵時留貯龍泉峪正殿
存記奉休筆詒瞻東北永慕三彩雲山密通嗚呼其慕
興慕也欽此仰見我皇考感念松秋孝思不置密遺訓
昭示來茲朕花痛終天期先繼志望佳城西悲愴親手澤
之如新尋繹再三彌深感痛所有龍泉峪陵各應即敬
補慕陵當和淚濡墨敬謹書寫命武英殿鑿工鑄

刻以彰聖慕而慰先灵欽此

臣義道錦愉志日英惠疏奏為請

旨事恭照三月二十日卯刻大行皇帝太后梓宮奉移昌陵
隆恩殿暫安屆期在大行皇帝百日期內臣等謹奏擬
請皇上是日詣大行皇帝太后梓宮前酌奠酒三爵每奠行一
叩禮立于左恭理王大臣等率執事官及該尉入請小
昇舉茶奉梓宮慈皇上恭導梓宮出綺春園大宮門
升大昇舉皇上于東北隅西向跪禮部堂恭奠舉奠酒三
爵每奠行一叩禮畢初班校尉請梓宮慈行時皇上興于
皇上仍進綺春園宮門由內還圓明園以奉移奉安及沿

達一切禮節臣等會同禮部另行具奏外謹將臣等擬請緣
由恭摺具奏請旨奉旨已錄

臣陸建瀛等片

奏再臣等接准軍機大臣字寄道光二十九年十月二十八
日奉上諭本年江浙安徽湖北等省被災之區均極寬廣江
西湖南各地均多偏災現經各該督撫紛紛奏請蠲緩錢糧
分別賑贖朕無不悉照所請立沛恩施因思東山崩漕額緩既
多若不預為籌裕京倉則三十年北地數十萬人口食從何
而出現在各省被災因多較重之處其並未成災者尚復
不少僅將蠲緩所剩之漕先運北上尚恐河事為此割切

諭知有漕各督撫各就地方情形或妥籌採買或勸
令捐輸或由河運或辦海運就積貯之多寡酌米價之
低昂運京補漕虧糶之不敷裕倉儲于不匱
中外同身樂利之休方慰朕意斷不可存心吟咏或推諉
于帑費或以藉口于歉年竟置官倉短絀于不聞該督
撫經朕特簡封圻受恩深重當此災重漕虧之時既應
以本省籌畫為急尤當以神京拱衛為先清夜捫心其
能恬然自安乎勉之朕將北拭目俟之矣將此各諭令
知之欽此統誦之下曷勝惶悚伏思本年有漕各省皆
被水災江蘓災情尤重漕糶獨多而天庾正供急

嘗嘗籍祿當興道司熟商已久日夜凡有可以補偏救敝者不敢稍存畏難瞻顧之心當于勘災之時嚴督印委各員將可之熟田校實查辦不准絲毫隱混現在校定上元等二十六州縣尚有應徵熟田漕糧已屬照舊尚啟徵起運米數俟查取另行奏報其餘各州縣或全完成災或成災八九分不等所剩熟田無幾皆自是連災區照例不能不一体緩征毋令之計除指輸採買和商之事外別無籌裕之法指輸則二十七年海運講有成效惟米價今昔迥異必而量為變通昨經專摺繕具奏一俟奉到諭旨即當設局辦理採買則視今江省米少價昂一時無從可籌

此年款應俟來年麥秋後察看情形機妥辦招商則
于二十六七年轉運有業因米色不純江蘇又開捐米事例
部中奏請暫行停止既在京倉積貯更短于以刑捐輸招
商一列並行自可漸期充裕惟米色應如何恆選米價應
如何給發在當酌中核實俟之踴躍樂從方收實效臣等
職任封圻受恩深重當此京倉乏絀之際但有人心宣忍坐
視惟有彈竭愚誠次第籌辦以致仰慰宸衷庶除飭司道
籌議定業再行具奏合詞附片陳明謹奏奉御批覽欽此

二月初十日

鈔見子由西陵致祭回京請安

業爾羌部申辨大臣達三請訓

內務府奏三月二十日奉移

大行皇太后梓宮專直

理藩院奏蒙憲王公賞遺物謝恩

召見軍機處親王文慶老日英鈔貝子達三

皇上明日辦事後出福園門步趨福壽寺由石路進漸春

園宮門

大行皇太后几筵前躬身祭畢由內還園飛雲軒用膳東

書房召見大臣卯正二刻豫備

和碩禮親王臣全齡等跪奏為遵旨敬謹會議事正

月十六日欽奉上諭朕恭請殊尚遺命四條內除聖廟
建立聖德神功碑及對酌各件供奉收貯謹當遵行外至
諭今毋庸郊配廟祔二條事關尊崇鉅典朕不忍遽
從不敢遽定著王大臣會同九卿翰詹科道敬謹詳
晰妥議具奏欽此臣等竊謂祀以德隆禮因時制祀有
甚宗廟鄉食大聖禮或通宜維諸今則若夫周建明堂
非云乎法古漢世廟宣為之昭敬况我大行皇帝親經
德泆九有承天之詒諸符天道配天之典乃契天心豈可
遂闕其章乎學子日天眷古者固有世廟之制桃廟之說然
我朝自太祖太宗世祖聖祖世宗高宗仁宗以至大行皇

帝聖相承遠超前代是光祖列非斯廟享壽母千古
未有之事德何疑千古未見之禮德既攸同禮無容異雖聖
不自聖特著訓辭而臣等幸承職守竊瞻高厚何敢自益
愚忱莫揚美善或謂上儀不愆大典稽如不無緘口之愆
實有封心之愧臣等竊以為仍行郊配廟祔之禮于以昭大
行皇帝謙德之稱光聖德之不顯以洽我皇上尊親之至
意禮當時宜庶幾報德所有臣愚昧之見是否自當
謹奏奉旨已錄

二月十一日

上諭朕順是使較煩前經派往朝奠頒蒞遺

詔着敗泐德興作為副使協同全慶之明往
欽此

二月十二日回發

石山齋記
天

石湍燕記序

東人之聘上國記遊者多矣連篇累牘舉皆夸張於某山某水某地之奇勝以至樓台塔廟舟橋市鋪之觀魚鱗雜沓指不勝僂而獨於大人先生之談論文章莫之多聞豈併世之好劣於慕古異物之玩優於同人而不幾近於過泗州不見大聖耶余嘗病其有目無睹者雅矣今讀石湍日記前人之所夸張者固有焉而只記其事其公事之暇訪黃榭齋之門典其父子兄弟及錢倪孔楊諸名勝一觴一詠陶然兩忘而喜可掬余乃擊節三歎曰蓋此江蘇之地靈人傑無異廬陵之獨產歐陽儘所謂當今芍藥廳而

况諸公譬諸查梨之各美蘭蕙之同芳石湍乃能咀其英
采其華盍然有得載而東歸則留館四十日賢於醉夢之
虛度六旬讀至榭齋翁九州八厯五嶽四登之句語頓覺
禽尚寥、東平子伊江雜感又何其雄憤慷慨也每於其
精悍之眉睫輪困之腔血未嘗不掩卷噓唏而亦將大有
望於來後甬歲辛亥之季夏中浣宗人醉夢菴有海百
涵序

正使權判書 大肯號士整 年庚戌以 純宗大王同甲當

副使金參判 德喜號奎堂 年庚申以歲幣軍使故為堂品 明洞

書狀閱翰林致庠 號素陵 年乙酉 小貞洞

上房裨將崔昌秀 譯官

李元善 譯官未科

鄭遇吉 譯官未科

伴倘權 絳 字子霞 號星山

姜

乾糧官趙龍始 譯官

副房裨將權時亨 號石湍 前五衛將

安國源 譯官折衝
字士深

李熙昌 譯員汝
字順汝

伴倘趙顯宅 出身後
字維俊

安忻 白面
字碩甫

乾糧官安東暎 譯官
庫直金守默 京僊馬頭鄭
文圭灣人

三房裨將金聖榘 譯官

伴倘韓

安 進士

乾糧官李希新 譯官

首譯秦膺煥 知事



燕行錄一

庚戌十一月二十四日晴是日即渡江日也北風如射朔

氣通骨開東而起整頓行李換着衣笠箏箏娥在傍而助前

余之客灣時有所親故今來舍其家治行一任其手頭戴白銀雲月黑涼戰笠兒戰

行中軍身穿貴州衣漢羊皮周衣上穿灰色八兩紬細縷

飛戰服腰繫青天色未紬纏帛足穿灰色洋緞履鼻鞋手

挾豚皮馬蹄袖蓋赴燕之行雖國哀中必以華服渡江而

今年則大國亦國喪也故用淺淡例而行皆着灰色與玉

色打扮已畢早飯絕罷與箏箏娥作別去留之情自不必說

自余到灣以後居處飲食莫不盡心周旋比諸生而客地

稍免坦謁同行人或嘲余以并州故鄉今當萬里之別緒
戀之懷不下於離家時也各囑平安說話未了今同人京下

僮性淡

清人余之前到時信使者而為人甚勤宗且嫻漢語故從願率去

入告驛人馬已

等待

余以兵幕主管一

余即起身出門跨馬入謁使家亦

改着黑笠玉色袍一行上下都是一樣打扮相顧相笑各
嘲好風神俄而執事入稟三吹隨即發行使家依舊坐下
了獲轎一行諸人各騎了馬次第進程閃出南門扶路左
右觀者如堵所謂各房下人勸馬殺一似啞者之學唱耳
不堪聽蓋使行時各班下人初不以官隸陪把自前以來
兩西沿邑游食之徒或為觀光或為買賣左請右囑罔此

名色故其生疎如此不覺令人失笑轉抹灣角終到江頭
帳幙連雲人馬如林上三房典本俸已先來待使將校輩
搜檢一行公私包服衣籠篋轎一搜覓甚至有自巡營
來營吏要規咨文桶上使典書狀拿入那吏詰責其無嚴
彼我相交搜檢禁物自是古例而近來潛羨之弊越甚不
得不如是而稱以出疆使臣萬里行裝一任捕校輩手中
恣意搜覓景色之羞痛已無可言而其中亦多未及搜見
者這間奸弊難保必無何益之有搜檢畢自本府進餞別
床此是例也行酒總罷三使臣次第渡江中江有半水處
以蘆葦填塞三行次皆以步輦過涉許多追從如例落後

只以若干人平具色前進行李草，不言可想京灣知舊
面，告別一渡此江便是異國悽悵之懷人我同然年前
余之在灣時送使行于此處稔經此境今日他人之送我
亦何異於昔年我之送他人乎將臨渡有三個轎夫持一
座步轎來傳簫箴書請余乘行此則慮我柵外寒苦自灣
將發再三苦勸而余以不可異於他人固辭不從矣退後
送此萬里送人，情容或然矣且出見江頭無人不乘此
亦近年謬例一因情勸二為防寒舍馬就轎轉渡三江敗
蘆枯荻四蔽如織中通數條大路但見柵市往來之人馬
回顧龍灣已不見人惟有統軍兀然于遠，地城角此地

此懷宗難按住約莫行數里自三江南邊蘆中跳出四五
個胡人爭覘我行或以手指着說甚麼或來揭轎帳納頭
唱喏仍隨後而行口裡喃喃的說不心招性淡問其來由
荅道此去山稜有一神棚每當此時則入燕驅人輩以紙
錢粟包來此賽神以祈無事往返故彼輩每於使行渡江
日預先來待收神錢去了云行轉抹至九連城嶺頭更
顧東天統軍亭縹緲雲端如人之登高送遠若過此嶺則
亦無見矣自連城約行十里望見山隅空地上有數三處
草棚人烟遍地這便是今日中火車站也三使臣各有歇所
以草結幙一行諸人環坐平原各討點心馬頭輩各持羹

飯罷自灣帶去又以一尺小木作盤形覓飯于飯頭洞區一名索羹

於湯杻籠作湯諸具盛以杻籠再以一尺小楪討饌於厨者

紛來進以其初站也故湯飯饌種俱堪落肚自前燕行

人皆云九連城午飯有別味云此則無他無人家彼地山

谷中有如此食物且維灣初站肚飢之際衆口共吞如農

夫之野饁稱曰有味者執力固然矣飯罷催程而行所經

各處山氣之秀麗野壤之膏腴果如所聞而間有清溪斷

山佳木成林往往如聞鳴吠之聲可惜等棄了好座地方

也自遼東見失之後彼我國日將西沈行抵温井坪宿所處

有温泉距灣為七深山空谷伐木開基結棚構幙遠望

十里即露宿處也

見炊烟四起人馬逆填洽是一大村落三使臣下處則以
長木蘆席作屋再以黑毯揮障下置房堦前開窓戶卽一
房舍置堦之例自己巳春一行人所處或以人字設幙或
以一字結棚下掘土坑積炭埋火以長木橫布其上設
鋪陳頗有熏氣下隸輩則斫木衝火往向火禦寒或以
行服環作依據如是徑夜云夕餘後三使臣典數三人緩
步周覽或問居處之寒煖飲食之飢飽如軍行之慰撫
各點燈燭耿度夜乾糧馬頭以一條脯一箇藥果來饋
此亦例也云金僮守默以溫燒酒一盃勸余禦寒數語
而去趙先達顯宅本房伴備來訪各叙行懷少焉卽歸

棧到深更雪風逼骨霜花滿衣波院之聲四起其寒苦
若此矣此時家國之戀何人不切若使家人得見今夜光
景則以婦女輩柔弱之心必不免下淚也間有吶喊之聲
此則防虎古例而那地近成平野無虎患已久云當日渡
江啓便付家書

鴨江將發寄贈蕭仙

典爾何多送別緣此行非意鴨江船人稱三口堪為

樂路隔千重忍向前慰有征衫勞手作勉存安信

著心傳臨分剝說明春約不似無期往昔年去

余作渡行有別
而不意有此行

過九連城路上口號

繞渡三江是別鄉九連城外路途長無情搖落千年樹

這事空虛百里方朝暮星槎勤使

命

比年使行頻數故云

古今

皮幣揣偏邦回瞻故國家何在惟有雲山萬疊蒼

二十五日癸丑晴達夜焯、堇交一曉曉聞初吹報警

起視之霜花凝結頭髮為白一夜徑苦可謂甚矣介

來見問夜來苦狀仍言使道行次等待步輦當到娘子

山還道而使家姑未乘行令監乘轎自此還送令監則

乘使道餘件豈不輕便乎余從其言將送轎夫呵凍作

書許多情話未及盡叙未明時自廚房饋早飯吃罷

入謁使家因房埃之過熱未能穩寢云仍往上三房各
問寢處之便否上使笑道君得無鳳妓之思乎夜未
魂夢幾度來去余答道雖無今夜之苦萬里濶別不
無餘戀况露宿于此處夢想不得不煩惱上使亦笑
開東時三行次、第進程所過金石葱秀諸山皆是
名山石色蒼潤峯巒奇絕往、山開野闢有舊時
人居基地卽所謂魚龍堆湯站等諸處也自溫坪
宿所約行數十里有葱秀三使臣以下一行皆停行
觀光山勢則與我國平山葱秀彷彿水石反多不及
處也云行間望見一座大山橫截西北有龍飛鳳舞

之勢真是鳳凰山那山中有安市城卽唐時蓋蘇文所據處而太宗敗績于其下云或云安市城在遼北此則非也或云遼人稱大鳥曰安市鳳為鳥之大者故鳳城謂之安市城未詳其是否行到柵外望見山勢漸平野山尾通暢遠地有無數人家連牆接櫛森及人家一箭程地設木柵以為兩國徑界狀如我國馬場院木柵入其內三使臣皆住轎使通事請門于鳳城將鳳城在柵內三十里地每於使行前期一日送通事報門則鳳凰城將使人代行來待于門內主管俄而門開處無數彼人簇立兩邊一個個頭着黑帽子身穿青長袍都是一樣爭先觀光搖頭點指

言笑喧藉其中或有英俄人灣商譯員執手相款皆是知

面者也余則初塘獨言初及彼之人一語不能解得還

覺發樹爵門內東邊有一座廳事以金字書揭懷綬遠

人四字其內設座頭有三四人躡坐其容兒衣服稍

勝於常朝前有多人侍立行中首譯秦知事與任官

皆先令列立於廳事前余召性淡問躡床的為誰答

道鳳城將平通官來此把門云下處軍官趙成躡

校使家等內新延通引陞校者而自願為下處軍官放

料軍官前金使金時洛自灣府差送者也

道三使臣入下處諸人隨後而入三行次例有定處

也入其室詳見其制度則專以堅緻為主初不連簷

作屋後三面皆用磚壁築壁至簷而止令柱在壁裡所謂壁裡安柱也前一面竟壁皆是窗戶自外見之則似或黝暗一面窗戶都是通亮故入其內反有勝於我國人家窗戶之多矣蓋作舍之法自屋梁至簷自簷至地分半尺量水道如建鈴決無滲漏之弊非但瓦家草屋亦同制蓋草則或用蘆葦或用黍粟荦而不編不織平均鋪藉堅如蓋瓦四面屋角用瓦鱗布見甚整齊炕制則不似我國房突皆以甎壁築突如土階形假如三間之室作二間炕則每於窓壁下置突餘一間為空地或布簾其上多設倚卓以便躡坐上炕時

始乃脫屣令因在內每燒炕輒抱薪入室論以所見
必有滿室烟煤而無一點烟透出來其造埃之法甚
妙又或以一因通三四間曲埃皆有熏氣不似我國單
間房埃之不通火氣匠手之嫻鍊亦可知矣統入炕
內有一個人排設燭台爐卓之物一應使喚對答如
流我人必呼之以掌櫃的彼必答應余問那掌櫃之
稱性淡答道彼人家莊專以櫃床為主故無論某家
呼主人必曰掌櫃的云俄而有衆多彼人送相往來
納頭獻款口口皆稱老爺俄人方言平安來又問道
貴姓甚麼幾塘阿오엇는지蓋其初面例套語也凡於

言語醜酢雖未通解都是一面如舊故問于馬頭則答

道此輩皆是看車為生即所謂看車的如掌櫃或有

此處居生的或自山海關內持車來待的其殷勤委曲

可想其工於趨利也到柵 啓便付家書灣札出付

柵中營每使弁自營府定送軍執事入柵舉行

二十六日甲辰晴當日留柵飯後上判事馬頭吳興周

張宗周皆是灣通事善漢語者而吳則大監分付平素與任官同往頒飭城

胡人例給物種無事頒給云晚後三使臣周覽柵內各

處余亦從行先至路東關帝廟殿宇雖不甚宏麗彼人

之崇奉關帝大加於我東廟北有龍王廟財神廟娘

娘廟皆是求財禱福之所而間行中人所言私家屋
房皆有闕帝財神供奉之龕室云其崇神之俗甚駭
矣出其廟徑大路周行街路上往來者皆是常賤之
類或有荷兩角桶汲水的或有夯貨唱賣的其擔行
之法皆以肱膊大的長杠兩頭垂繩懸吊桶如轆轤
一般樣一肩擔荷其法甚便雖過衆人簇之中無碍
滯之弊大勝於我國支機負物又或有驅騾驢馬匹
者紛云往來此則看車的輩而其驅蓄之法驟與驢
皆不衡勒一人或三四匹如驅羊其善御亦如此言語形
容無非生疎也三行次則各歸下處余則與牲泆周行間

里詳察其風俗家舍制度小大一樣而瓦家則初無夫
瓦只以女瓦鱗次覆蓋蓋所見甚方正雖草家簷樑極
整凡於人家近處猪圈牛柵灰符糞窖各有條理少無
縱橫不正者行至一大家此是南商都會之店舍也入其
室床卓排置與私家不同各樣東西彼人方言曰堆積
如山有數個掌櫃的見余合手唱喏請余就座有甚
麼說話使性淡答道性淡年前數次赴燕粗解彼語耳有一個火伴
之使喚進一鍾泡茶又以烟茶要吸蓋其待客之例套
也余不通言語殊甚沒味即起身辭歸回路入看車
的都家有百餘輛車兒擺列在裡面馬槽上綁住

無數驟兒車制則同而奢儉稍異衆車夫見余面、
納頭爭道吾的車兒多體面體面彼人方言奢侈吐其中或有
能解朝鮮言語者此則多年往來孰習見聞故也
回到三街彼我人滾成一堆現甚麼光或齊聲喝味
或排肩奔競余從人叢裡鑽將窺見有兩個破落戶
鼓漢一持獲鈎一仗月刀一上一下來、往、各逞其
才此所謂使槍棒的類也左右現光者皆擲錢而
賞之還到客寓崔相郁以其所親車夫來薦卽山
海關內撫寧縣人姓劉名宣者也余見其人生得
面鬚蓬體胖身短年可四十有餘外樣雖無可

規見其眸子仁順頗有溫良底意思故完定以送而
車賈則待價定依他例笑給云聞傳說則衆車夫欲
加討車賈以牛馬骨大會舉盟使不得一個人先出
車賈此所謂彼人骨契而都是近年紅蔘有勢故
也今番車賈似有太過之慮云當夜灣便有新洞書
春成灣致以崔相郁馬夫入柵告歸故其便付答
二十七日乙巳雲陰下雪終日不止當日仍留書狀生辰
卽再明與余同日也若難柵則無可接之所自副房欲
預待當日早餼分付措備矣將進之際有奉京書
信三房又遭三寸叔母服制不能進接還甚沒色此

京信卽灣府巡檢回便而家中太平云村北三數里許有姓河的富家我人多往見云那富家卽此處販商發財致屢萬貫產有子八人文武俱全亦有貨賣的使家將往現其家上使則年前副行時已經規光三房以重制未往使家獨往余與安令名國源本房禮幕聯鑣而行使家乘步輦是日也北風蕭蕭雨雪紛紛所往處雪景亦堪一賞余顧士深笑道何處有卧龍先生乎吾將幙三人風雪中將往那裡訪甚麼人耶士深荅道今安必無如卧龍者而吾輩敢比劉關張三人乎相與笑語而行尋到一處其家在鳳

鳳山安市城西麓下基址甚軒敞前後左右皆是合
抱不交之木間有叢林茂松雕甍粉堞隱映於瓊
花玉樹之間活画出好遠一座雪景指點可謂村野中甲第
才到門首有四五個家丁或有規光的使房馬頭耦
耕媪田人問主人在家那家丁答道朝往柵市姑未
上庄又要玩家舍其中有一個瘦小漢引至一家門楣
上施以金彩隨那人轉入中門有數個了鬘把守內
室中有幾個婦女從門縫裡張見一行從家丁入一
室此是客堂排布凡百別無開眼者又問可規處則
那漢指着墻後一大家仍出門將往其家崔相郁來

到此人與主人有親再與崔君隨庄客閃過牆角至
門前左右現有幾堆積柴山一般也似高大其傍又有
糞堆與柴齊等其下有一座打麥場周圍幾近數百
步四面皆用短牆環築置一小門堅閉使豚犬不得放
屁及到門首門外正面處以壁築坎高形作遮障使
不得自外窺見離牆粉堞四面環匝入重門左右楣上
刻木鏤金施以丹碧那門內左右各有翼室雕窓紋戶
令人眼顧兩邊皆有六畜圈柵驛驢馬牛犬猪鵝鴨鷄
群不可勝數真個是富家排置內中門以無梁屋造成
無梁屋制初無梁脊有內外裕門外門則無時不開閉
尾行直越圈如車屋

內門則緊之闔上或其家有事之時或高客來訪則只
開門扇不然則閉之兼為內舍遮障左右兩面作虛通
以便常時出入見我行尋訪輒開其門正西面西向處有
內舍南邊有客室北邊又有炕室四五個丫鬟列立于
內室門外室中有數三婦女或抱兒而立或只含烟竹相
顧指點喃喃說甚麼言語嬌軟如燕語鶯囀其中年少
婦女頗有動人之顏色衣服制度與外下大同少異上穿荷
花般樣坎肩頭上亂挿七寶假花堆髻挿簪與美人
圖所見無異令髮卷曲簪必直挿蓋此則平居常服而
若盛飾則不如是而已云又有一個老婦女年可七十有

餘而顏光極豐頭尚有花必是偕老之人

彼俗寡則無花偕老則雖

老也

插余問崔君道這老娘為誰崔君答道他是河富

室人而有子八人的福德老婆也余道觀其外樣可知其

多福之人無論老少雖不出門見客殊無內外之態此或

非清人家法耶

清女不避人云耳

北邊炕室琉璃通明處有一

個二十餘歲少婦從琉璃窺視其容兒姿態極其

丰妍真有驚人之色余問于崔君答道他是此家二

郎之妾以色擅名於瀋陽以東云那庄客引一行入客

炕以制甚宏麗淨洒床卓等物皆以花梨檀香之屬為

之炕上鋪一幅紅氈無連幅之痕枕簾亦以各色氈刺

繡縫造滿壁上書函好多奇絕炕壁以一字布掛山水
圖柱聯八隻再以真紅絲作橫十字形絡之彼人所謂
聰屏也其外許多排布不可勝記此不過鄉村富屋北
京人家之奢麗推此可知而以余初塘眼目料之雖北京
富家未必勝此少庄客請使家坐客位，余與士深坐
間壁交倚進茶訖猛想得主人既不在家日又向昏仍
陪使家而歸少主人送至門外那室中婦女迸出中門
排肩爭覩口裡喃喃說道彼人之不嚴內外推可知矣相
與策馬而還日已昏黑雪尚未止當夜復束車裝
二十八日丙午晴是日即淮柵日也自曉頭柵中渾動各

自裝發已時軍令早餘總罷京鄉家書出付灣便灣書未
及出付使崔相郁來看裝車完了臨發自灣新洞送廊漢
鶴雲作書告別兼送煎鉄沈菜果品使之日夜入來。伴
之頭上霜花如雪蓋明日卽余生日也為念異域苦楚送
此以慰送者之誠意來隸之苦狀俱是辛勤此地此事亦
足為稀奇也忽作答仍送回伴來種付今同使之帶去
前站一行中裝車已畢三使臣次第蒞發上副房仍以護
轎進程三房自此乘車以豹皮覆車屋上表而異之三房車
例自行中等待云耳一行諸人各乘車臨發情緒有甚於
渡江日也余之車夫劉宣扶余上車崔君有未了事追後

趕上云而車貫則給銀二十四兩比前論之加給四兩云
仍即上車詳規其制典裝載之法兩輪車上作圓屋一似
我國四人轎屋大小亦等外以青三升包裹內用赤狐皮
毛帳揮之後面裡頭裝衣籠兩隻一俾行中所用雜上盛
以杻籠繫裝在車後頭車方席則以白三升二疋連幅
置彈花十斤縫造灣人所云馬流子蓋車行若遇險路則
掀動攪亂將一身子風鈴也似住定不得故必厚藉預防
渾身椎撲之患又以三升作綿椎車內兩邊比頭處分懸
預防車掀頭觸車簾則外用青三升縷飛帳內以狐皮粘
付中通兩手般大的琉璃窓靜規其裡面雖惡寒瘴風放

下門簾則決無寒苦且於灣上得一領羊被襦衣灣人所云可也
言揮裹一身寒從何入但乘車者戴笠非所可論所以行
中人必以笠子替戴馬頭入站時覓着云揮項亦不能接
在頭上故皆以額掩懸纓緊束也行兜饌盒等各項緊用
之物都莊在車方席下板上其中可容一個身屈伸一車
上內外所載之物稔為二駄而前頭所載車夫行裝亦不
些也駕以兩騾一匹則背上駄着小木鞍以懸皮駕在車
前兩杠之間如獲轎駕法一匹則在右杠外以拇指般
大的兩條繩索後兩端係在輪上橫杠前兩端終在騾項
狀如我國耕牛之駕耒前騾拖之後騾駕之前後并力車行

自疾一行中衆車一字兒先後其驅法則車夫坐在車前
左邊以兩脚下垂手持一條長竿其長近三把將一條細
皮繩係竿杪上長亦三把有餘此所謂車鞭也其用法亦
嫻若使我人用之則似不能措手一揮長鞭前後驟一時
喫打各自盡力可謂善御法也欲停則必曰暫住彼人話
使驟住脚則必曰留彼人方其外許多御畜之方言不
能盡解欲遲則必曰慢的欲速則必曰快的欲小便
則必曰撒尿彼言外欲大便則必曰出空彼言道路平坦
其疾如飛令人甚安每遇石路則把全身掀動精神眩晃
骨髓儘暈少或放心則兩頰逢打又若內顧則鼻梁必傷

古聖人車中不內顧之戒必以此也將行之際見友車夫執鞭箕坐浴如漁者之垂釣竿也自柵雉後使家欲觀光鳳城遠路作行上使年前已經看過三房則重制之故不得觀光余與初行諸人陪使家向鳳城約莫行數十里東北遙望處有一座大山勢如龍蟠鳳翥問于性淡則答道北邊是上龍山東邊是鳳凰山或稱龍鳳山云又行十里許望見平原上有一座城人烟爛熳樹木叢匝此是鳳凰城也行到南門外人居相接市井櫛比通衢左右列各色舖子物々備具往々立幟豎標又有金字牌額高各四五丈刻書那裡來的甚麼東西俱全又以各舖中應有物件

模樣或插簷端或掛門上假如烟竹舖插烟竹樣子鞋靴舖掛鞋靴樣必欲使買東西者雖不問知其為何物舖彼人之便於事為類多如此也轉入市街男女童叟填街擁路爭先現光間有糕糖果品唱賣者成群踉蹌如我國鐘路列立軍之挽執鄉客不勝紛踏也及至十字街頭彼人簇立如堵路西向南處有一座丹青西閣其制甚嚴卽鳳城有名龍鳳寺也有數個人緊把門不許我人鑽入此則那寺僧徒見其容兒服着則頭髮披了一個畫剃頭着與帽有異狀如蓮葉包裹所穿衣服如我國小周衣其色甚黑廣袖直裰與俗人不同那箇僧徒牢拒不納此是討

錢之計使上判事馬頭約幾兩錢笑還始乃開門一行陪
使家將入寺門無數彼人一齊攔入如科場中負門禁之
不得下人輩口皆言借光猶言借路艱辛入門那把門
的旋卽闔上使不得攔入眾人稠會雜亂紛競彼我一般
入至外庭兩邊各有一座高樓朱碧燦然左額曰鳧鵝懸
木魚右曰雷鳴懸西鼓中門上以金字額碧霞宮三字入
其門一座法字甚宏麗門楣上有慈生育萬保我後生等
扁額內有三位金佛龕卓排布極其奢侈又過一小門有
一殿扁以便是西天四字其內有無數羅漢其東又有無
名法字才開門扇有一大土塊其色黃赤此立當門如無

通路金甚驚恠不知甚麼東西隨指路僧抱壁環入定睛
看時不是別物乃土成的假山背而作局竒峯恠岩宛然
是屋中金剝山腹嵌空處設一卓安一位金身佛像跣足
而坐又有一個金身侍立峰、谷、皆有小小人像用金
絲打扮或有乘雲駕雲霧的或有騎鸞騎鶴的或捧幢幡羽
蓋或持玉笏金牌恍如活像亦一竒觀而無題號雖未知
何許佛名此或非金粟如來雪山脩道之像耶復出其門
過一墻角庭中有一間二層樓銷金鏤彩制度極侈內有
六椽匝臺下層刻蓮花上刻雲龍皆用金碧雕飾前面有
萬壽無疆四字其傍又有清書四字其上又有六字清

書階下兩邊各有數丈宮碑以輒壁筆碑兩傍上東碑刻萬年流芳西碑刻永垂不朽等字其銘忙未詳看又過一小門西邊有二層法宇下層有法雨天花四字上層有位奠北辰四字下層則牢鎖不開上層則有一條雲梯一行拾級而上高可六七丈前面以鉄網作罽毼形自簷至檻縱橫罩絡內有一金佛四頭八臂前有無數香包其傍有佛經幾冊也仍下樓許多樓觀殿宇因日暮站遠未及周覽將出轉至庭西方丈有三五個都利合手唱喏以數種茶果相待隔壁炕裡有人教放下門簾余揭起簾子看時有一個俗人煎茶余欲入見問其人之為誰背後有一僧攔住

道不能。余答道甚麼不能那僧道這室中坐的潘陽
官人適因公幹來此害心疼現住此處將息不要做對人
說話備們看甚麼馬頭笑道這官人必是清人本不與我
人相閱雖見無味云一行上下復出寺門將向城中過去
竟被房馬頭錯過路頭徑出城外大路所經街坊被人視
光便成人海間有婦女輩從門縫裡張見衣服佩飾容兒
色態頗有可規行過一處門扇開處有三四個婦女並肩
而立其中一個女子年可四十有餘生得體胖身長顏兒
白勝雪眉目清如水真箇是好表人物余捲簾相看不覺
轉睛那女口裡喃有甚麼說話以怒眼猛看余問于性

淡荅道被女不好見老爺之熟視他頗有慍辱之說余乃
覺得仍催車前進車夫笑道老爺甚麼緣故熟視別人之
室婦被言倒逢他口氣余書掌道以其初見物色故只為
詳視並無他意被他口氣此後則再不敢如是看車的笑
道不怕被言無傷他如在家時外人誰敢着眼看他
他便出門怎麼不看他真箇是不曉事的潑婦仍呵而
笑余荅道備說誠然相與談諧而行余以初塘之故彼
人言語索難知道被言半日之內聞車夫所言則或有
理會者或難解處車夫能識字以手指劃掌而書是可
問荅而且其話頭被言皆是水滸志語錄也余嘗粗解於施

耐菴書所以類能易解日暮時抵宿站卽四台字彼云三
上三房已先到矣是夜典安士深趙維俊同炕舍甚狹窄
難容也夕飯後上使招余問君能投牋否客夜苦長吾欲
與諸君消夜余於尹惠泉所傳得知上使之有消遣癖若
曰有知則必難免逐日被召故仍答以非但投牋雜技為
名無一學得上使笑道君欲供謀耶余答道案不瞞大監
說真箇不知仍歸宿炕。狹且冷三人相與枕藉士深搜
衾袋中得一黑帽懸纓戴着蓋慮炕室多風作此預備件
而余之難京時主閣大監有教云入彼地後每遇炕臨宿
或勸着帽慎勿從其言余於赴燕時為馬頭漢之所勸着

帽而宿反致風痛一晝夜大疼寧冒寒而睡少年着帽必致風痛余見士深之帽燕行人之必帶此物必是古例也二十九日下未朝陰晚晴開東軍令黃家庄五十里中火通遠堡四十里也宿當日身余生日也異域劬勞之感益切廉速趁早登程灣饌亦無意覓喫自四台子道路甚不平那黃家庄身店村以其中火車站也故通三房同入一處店舍頗不草。有一個瘦老的婆子對卓前茶應接如流行中人多亂面猛見得壁上有一物似琴非琴又似瑟琴而亦非余問于那婆答道這是琵琶奈恍惚覓得卽詩傳圖中所見也床上又有一物似瓶非瓶又似有耳茶鐺而亦

非余又問之那婆初無荅辭以水灌其耳提起傾倒那水如注雨般滾將出來余甚恠之取而詳視瓶口罩以累孔鉄瓦形如耨機以水灌其耳而傾之水從众孔裡出來如雨注下始知其澆花之具也而已厨人告炊一行諸人各點床卓或三四同卓或五六並床各送馬頭于厨房以小木版受餽湯各一甌饌則以單碟具色為例也各以所帶行饌助餽友人同喫還似有味雅棚以後行中供饋餽米專以胡米實用三行次以朝鮮米進排胡米餽與我米餽無異以其田稻也故米性燥鬆專無津氣帶熱則猶可喫過不然則寀不堪落肚余則自京雅發時已有分付一甌

餘依使家支供例為之故連喫我米餘稠中所見雖或有

碍以余短口萬里長役不可拘於小節隨到隨喫將昏時

抵通遠堡那店甚處方狹窄一夜容膝極難余則其安

忻字房傳信同炕安士深典趙維俊同炕李熙昌本房工幕

典林宗守行中西員字天同炕夕飯時覓灣人所送煎骨

沈萊典同行諸人分喫諸人或朝余好福力云皇曆貴客

官李野字稚出來傳道北京無事但紅參失執勢云此

則專由於別使行中潛參之多入也我行中持參者莫不

表胆余則初無所持之物有何憂喜之動心乎稚榘時付

家書故雖無寄信異國旅次得遇同洛人見其東歸自

不無長羨過懷也

十二月初一日戊申半陰開東軍令連山閭

古鵲

開五十里

仍宿可今日所經店舍舖棚稍成樣一路上或有丹青
大家門前立朱紅長柱狀如脚幘柱刻木為龍頭施以金
彩橫插柱上又以木尾塗紅刻當字填金用鉄鉤掛在龍
頭余不知其何狀問性淡荅道此是典當舖云是日天氣
甚陰酸里數稍遠申後抵連山閭店舍甚廣且大一行車
都入一店猶有餘場余甚壯氣而夕餘尚遠搜出行箱得
飴糖與棗栗姑先免飢仍感寒症身家甚不平以若多
病善飢將何致遠耶預切愁悶也夕後與性淡暫往上

房回路因闔上店門從前頭入彼云前頭下廚房熏氣滿
室惡臭觸鼻問此何穢臭厨人答道彼俗多用石炭此
是石炭燒臭也其臭極惡能令人反胃也又見無數胡人
環坐一處前布一紙如我國昆吾版各出錢紙且與且受
問這是甚麼模樣性淡答道此漢輩皆是看車的每入站
雜技成習其中或有脫衣典當者甚則賣車賣驢視若
尋常云雜技之弊彼我一般余問道若然則吾的車夫
亦能雜技否性淡道小人與他連日同行詳察其為人真
箇老索之人且不見他飲酒雜技為老索初行甚所幸
喜者也仍歸下處身疼越甚夜深後煎服正氣散未

得穩睡

初二日巳酉朝陰晚晴鷄三鳴軍令甜水站五十里中

火娘子山三十里心宿當日站有會寧青石兩大嶺故鷄

鳴起程副三房以步轎踰嶺

三房則自前乘車故自濟府例待步轎而副房則有雙轎

初無步轎等待之例矣近年初例今番亦未待耳

近上使仍以雙轎越嶺一行乘車之

人皆由虎狼洞踰大高嶺其險不讓我國烏嶺那虎狼洞

生得山高谷長人家稀少便是名不虛得石路亂坑冰碛

膩滑車輪相拍一身如墜風船住定不得東倒西歪精神

眩亂且余感崇巔緊千辛萬苦始得上站那甜水站亦山

峽小店村店主即姓哈名萬祥以大車賣貫為生今行亦

來到柵門受去車卜姑未抵到其妻則工於刺繡云而其
容兒殊無可視領下有一箇大瘤年可四十有餘一行諸
人皆親熟使其子面、納頭視那後生時年甫六七歲其
拜法屈一膝而坐以頭叩未屈膝上仍起彼人琴法皆如
是云三行次要見繡品那女從櫝中出數三隻枕隅足堪
用之會嶺左右皆有閻帝廟或云顯聖於其處云午後
踰青石嶺岩石皆青黑如我國青石嶺而其險則猶有
甚焉昔我孝宗過此嶺有歌調甚悽切云才踰青石
山勢漸平夷及到娘子山稍有野意昔唐太宗東征過
此地迷失道林木中遇一女子與之合歡聞鷄鳴而起視

之乃石仍建鷄鳴寺名其山曰娘子山西望處有駢蹕
山古庚寅鄭相珣奉使過此被虜圍住其時女真清
祖此所謂建州虜在白頭梗路貢行不便其後改貢路從
山西也明時入寇遼東也內浦海美浮海而入山海關云當日余之感託越添夕
餘少喫旋吐達夜苦痛煎服不換金散一貼灣通事與
轎夫明日自此還送強病作家書從此以後則家信亦
難相通悵悵之懷甚於難灣而余病頻發尤不勝愁荒
也夜深後隔壁人家有擊缶唱歌報問于從人答道此
處多看車的家眾車夫會于這家飲酒作歌云而
其節調都不能解得甚麼報也

初三日庚戌晴開東軍令王寶珣四十里中火曠水寺三十里止宿當日將發濟通事金孝奉輿轎夫告歸付京灣書信此地情緒字難按任况感崇漸緊早飯不能下箸只以粟米飲一鍾代喫悵然登程前至中火站即王寶珣也使厨人湯飯少喫仍先請約莫行數里有冷井又過一山稜眼目漸新乾坤忽坼望見得平原廣野四無碍阻心神爽豁此所謂遼東七百里坪耶余生垂四十年始見天地之廣大稼穡而所云東人至此必欲一大哭者誠然矣蓋遼東為太白之尾勁氣與灑西相等其俗好用兵自古為戎馬康莊今清以後遂空

其地人居稀之挽近以來人民偏側居生倏大廣野無聞
田云正行間口括一律有云

王寶始前催秣馬遙看何處是遼東備經危險千山
盡緣出平夷萬里通始見乾坤那裡大還疑日月
這邊同而今快覺吾身小浩、茫、若箇中

仍催車前進入遼東城一行人多從城外大路直向宿
站余則因遼城規光囑車夫先詣遠處的望見遼城處
在平原廣野狀如空中掛錦果然是好一座華表千
年古城郭也又吟七絕一首有云

遼東城外住征車累、荒墳夕照斜仙鶴千年不

復返無人識得舊丁家

未至城五里許有高巖叢有數處水畚此是高巖人所居古蹟也行至城外有木廠舖卽木匠所居村左右兩邊都是木物棺槨橫卓無所不存彼人造棺法前高後低形如小艇皆以白楊木爲之或加朱漆或西物形其規不一也大抵自此以往所往處人家所植之木專主白楊其木性甚柔兼剛一體木用皆以此木為主其形則與我國楊木無異但皮色純白易生易長類空所用我國何嘗無此木耶我國所謂白楊非此木也昔箕子之東封也見遼人之性剛爲其柔俗教種

此木仍以成風無處不植云及到城門此必是東門也外
有壘城制度甚宏壯築城之法不用瓦石專以甃甃
墨成所見非但方正堅緻比諸我國攻石事半功倍絕入
重門人居櫛比市廛稠疊左右舖棚比鳳城更加幾層
旗標牌額金彩煒煌各樣東西無物不存往來人馬磨
肩接踵正行間路西邊有一座衙門甚侈麗問看車的
答道這是遼東提督府余嘗聞遼人見我人則成群聚
黨擁路追逐多有偷竊之患云今日余獨先詣使性淡
今同隨後而預於城外再三申飭慎勿放心另加顧察矣
及其入城也市童街女排肩而隨如波奔市熱前日所聞

規光則無論某處必使上判馬頭先去等待卽傳例
而自乾糧廳例給銀子以備規光時用情取其刺為
滌草料賴云余卽下車使令同性淡看守車兒與
兩馬頭入廟正門設而無開閉從夾門入外庭正門
樓上有摘錦樓三字金額入重門正殿左右層階複
道皆用雕石紋軌縱橫築成屋宇棟楹金碧玲瓏
恍如新起者余問此廟建在何年吳興周荅道初
建則已久而道光年間有勅教使遼東提督重修
此廟稱為天下第一壯麗云內正門上有光被四表四
字金額其餘帝德廣運日月爭光威振華夷許多

果不虛矣余視稼齋燕記有云其奴長福隨至遼東城
中以兩手緊掩目傷人問其故郡長福答道曾聞遼
人能拔食生人目不得不緊守此誠千古絕倒之言今見
今同之顧瞻恐懼有若失之者然似未必勝於長福之沒
費亦堪一笑也問閼帝廟在何處車夫答道城外頭也
彼言仍驅車出城門制輿東門無異此則必也南門過
一石橋數箭程通衢上有無數胡人千百為羣簇立
如堵此是規光我行者也望見一座宮闕此于郊原雕
蔓入雲粉堞連空這箇是閼帝廟彼人必稱廟堂
彼言至門之前上判事馬頭預先來待矣蓋使行欲

行侍立左右後壁下旌旄鈇鉞依仗等物森列如麻
左右兩傍各有一位塑像另龕崇奉雖未知為誰若
非與平兩人則無乃黃馬兩將乎三面壁衣上圖繪皆
是當時事蹟自桃園結義至麥城遇害歷歷圖寫也
殿庭左右廡各有一塑像左是張翼德右是趙子龍
翼德廟中有一壯士受縛之像問于守廟人以掌書道
他是督郵被鞭之狀而他人日記有云蜀將嚴安被縛
不屈之狀未知孰是庭右一隅又有一小宇此則財神廟
云周覽幾畢三行次第來到彼人童叟幾百攔入
如市觀光為之不便余身疼轉甚肚中又飢要討食

扁額不可勝記正殿楣上有元精當中四字左右有至
夫至剛至聖至神各四字入正殿之字之宮崇宏傑
雖天子所居未必勝此有一位塑像儼然中處高可
數三丈腰大數圍頭戴十二雲旒寶冕身穿西洋雲
錦黃衣袍手持尺餘象牙笏前面揭起黃羅簾子鋪
龕上以黑線繡寫中天行宮四字塑像極其壯大但以金
塗面如有鬚之佛像可欠重來本色與我國東廟像
彷彿前排床卓不皿罇之物亦多奇貨異寶金珠玉石
無物不具床之內面列插六枝長箭此則行軍令箭
左右各有四五個奇形塑像或執戟或仗劍作兩

物無處得來適千金

灣隸余在灣幕時所使房子亦
上京願赴故囑吳興周平來買

一鍾白燒酒來饋小飲仍先行右挾遼城西行數里車夫

要我者一看以手指一處余揭起車簾看時有一白石柱

屹立于路左平原上高近數十丈余問道這是甚麼

樣石柱車夫答道此是遼東白塔老爺未嘗聞麼余

道是正以身家不平不能就看遠察其制下以斷石雕

刻上以築輓磨鍊用八稜作而其制度極巧似非人力

所及下層周圍計可為三十餘把或云華表柱即此塔

亦未可信也夏過白塔直向宿站遼城西北十里許有

一河名曰太子河

俗傳燕太子
避秦逃此云那河不甚廣大而冰堅成

陸也將暮時到暎水寺亦一村店

南也有舊新城云

自柵

至此八站謂之東八站初更時三行次上站余痛甚
夕餘不能下箸以粟米飲代食當夜服藿正散一貼
初四日辛亥晴余感轉緊曉頭服橘貝地黃湯一貼
臨發喫湯飯少許日出軍令爛泥堡二十八里中火十里
河堡二十七里止宿所經店幕與村落都是一樣茫
茫大野望無際涯真箇是大國地方車中口號七絕
一首有云

行、遼野望無邊初見人間一大天若使高麗勤
守此吾東未必小如編

自柵以後每遇人家近處輒有小龕室或斷石為之或築壁瓦為之其前必植紅榦此則皆是神室而如我國鄉村水口幘也凡寺刹神庙彼人通稱廟堂其制都是一樣不必枚記彼人糞田專尚馬屎一路上過去處童叟老弱必荷簣手持鉄鈎狀如人手掌長柄取糞每於路側列立而待來騾去馬若放屁則輒爭頭刮取甚至有隨車趕馬放便收取終日行程無一點糞屎彼人力農有甚於我國日晡時至宿站即十里河堡那店狹陋一行董容當夜又服地黃湯而寒疼時作不能交睫同炕人則素有睡癖臥則鼾鼻每見善睡人不

勝健美也當日所經地名

按官廳防虛所三道把爛泥堡萬室橋烟站河堡山腰舖

五里河

初五日壬子雲陰寒甚余之所患終未得差晚服地

黃湯當日即瀋陽入站也鷄三鳴軍令白塔堡四十

里中火瀋陽二十里止宿

瀋陽即東京奉天府唐時為安東府明初屬閩東順治間為奉

天府盛京清在祖陵在瀋陽康熙建行宮此清人之根基與寧古塔為唇齒之勢經理排布不下於北京云瀋之東北一百二十里許有舊瀋陽俗云老兒哈赤初起之古基云 當日中火車站亦有一

座白塔六面八稜層層皆有通穴可容一個人出入中空

達上其制甚奇又不得往見才過此堡瀋陽城堞隱

見於烟樹縹緲之間行漸近人馬車轂往來相續未

至城十里許有一河名曰混河古耶里江源出長寧山自混河向西也行云過
那河直望處又有一塔此立事頭近看其制下層斷
石作四面每一面刻三個神將画像屋椽刻獅狻之形
其上以圓體作三層其上又以甄巒築成大瓮形其
上又築長壘一般樣最上以烏銅為相輪狀如有足
錚盤倒覆高近數十丈周圍計可為十二間詳觀其
体制像天圓地方太極陰陽以十二神將擎立者也其
傍有一座古刹甚宏大而未能入見又行二里許即
城外也左右皆有閼帝廟宇草草又前至十數武
有一里門過其門將入城外亦有若干人家市廛未

免凋殘正行間見路上有一人兩手推小車上載甚麼
雜東西詳觀其制以井字樣造車下設雙輪或獨輪
車上輪聳處以圓木作半鼓形使輪任轉不使兩傍
馱物相妨左右各有受載之箱無物不運或不設車箱
只以布板馱羊牛等肉唱賣一人在後以肩懸擔車後
兩杠兩手推去其所載無論某樣東西稔為數馱其
用甚便欲使車停則另有一支木與輪齊等輒支置
路傍則不用人扶持優可息肩用手也又有人手持
一箇鷄毛造成的旗蓋一般樣東西余問車夫答
道這是拂塵其外亦多初見物件不可一一詳記

車夫道吾的哥彼言其兄云在盛京買賣老爺下車

後吾則將往見哥余道備有幾個弟兄劉答道三

弟兄余道備的哥在此做甚麼買賣劉道現做

衣服舖掌櫃的余道備居幾行劉道行二余道然

則備弟在那裡做甚工夫劉道吾的弟兄彼言其弟曰

兄弟現在北京彼言做東來局掌櫃的余笑道備的兄

與弟一在北京一在盛京皆做買賣掌櫃俱各發財備

則甚麼緣故倒做車夫多辛苦真箇是八不用東西

彼言不用物劉笑道真箇八不用亦八字所關無奈何

正說間及到城門有三層門樓高可十數丈城制極修

且密皆用甄甃漸之築上如魚鱗形每登甃約二指廣

上狹雄壯高大十倍遠城大抵築城之法不費瓦石之

功專尚甃瓦甄之於城役可謂緊矣我國何不一

試此法以除無限石役之糜費乎回入瓮城門之對處

又有一門其門通窺處又有一門未知通那裡瓮城左

右門正而當中處有重門此是入城正門其門相對處

有閤帝廟中公瓦城而立周察四面三面門如品字形入

重門行十數武市舖漸見繁華入路右邊衙衙小洞謂

有副房下處即閤家每年給貫之舍云自柵至藩放

錢口自藩陽至山海關自西厨房乾糧朝鮮館在南門內路官當之自海關至北京放料所當

北邊若有瀋陽使則留館燕使則入私處云行次以
城外規光未及上站余與碩甫同入客炕舍甚淨洒
床卓等物極其整齊有一個女子年可四十多少容
兒雖未免醜言語爽朗見余兩人叉手唱喏道天氣
多冷彼言辛苦余答道好太平此是彼人例
套人事自柵扉連日路上學些語故為此循例之
答那女一邊煎茶一邊灑火邀余兩人向煨口裡誦
說甚麼來往攔校也似應對如流真箇是有情
的婆子余問備的掌櫃的往那裡去那女兩臉上堆
着笑容道吾的掌櫃的無有彼話余答道甚麼無

有掌櫃的那女笑道賣刀子現在刀舖未歸余道無
主炕裡客人投宿能不怕那女哈哈的笑道怕甚麼
不怕、正說間使家入下處余將陪往太學使家
道袍搜覓不得竟未往現余從上三房至太學太
學在寓舍左邊不遠之地門牆宮殿宏傑甬穆外門
上豎書儒學二字歷重門入內庭正殿楣上有先覺斯
民四字正殿內朱紅卓上有一龕、壁上刻雲龍以金
彩填飾其中安一位神櫃以金字題至聖先師孔子
神位龕楣上有萬古師表四字其外又有生民未有
聖集大成聖協時中等列朝御額前左右配四

聖神位其後壁下有十哲神位正而前行列置籩豆
鍾簋內三門外庭東西廡有從享諸賢神位左右
各六十五位皆是宋明清名賢門外左邊墻下有神
道碑一笏身康熙撰製而年久字頽未能詳解也
太學右邊有潘陽書院外門上有潘陽書院四字額重
門上有聚升書院四字其門則不能開閉從右邊夾門
入內庭中遍植花卉木皆用黍莖包裹以防凍寒
層階上有一土窖其大為四五間卽花草幕也正堂皆
是炕室而無人居處又從後墻夾門入其內正而層階
上有二層西閣制度極侈上層有文昌閣三字金額

下層有桂籍稽賢四字內有一座龕室丹青照耀前
面放下黃羅帳揭起來看時朱牌書文昌帝君神位龕
楣有莊書室三字右壁下有數十層雲梯拾級而上其
上又有龕室如下層所見楣上有輝燠宮墻四字有一
位塑像嚴正端雅此是文昌帝君塑像右邊有一塑
像甚端正身所謂文曲星神也左邊有一奇形塑像
以一足跨虬龍背上手持一枝彩筆向北斗星將寫
之狀此則文魁星神云復從雲梯下來還出重門
左邊墻門上有額孝子祠入其室門上有人稱願然
四字內有二神位一是組畫一是玉瓊皆是清人其

孝行事蹟未知右邊墻門上有額節婦祠入其室門
上有矢志靡他四字內有五層長卓以細書列名五
卓幾盡不知其幾百節婦清人之節婦何若是多
多字看畢復出門外將向壁雍吳興周告道壁雍
稍間日力將盡往返宗難三房獨去上使仍歸下處
余亦歸寓使家直往壁雍觀光帶昏還次余之今
日觀光兩處皆是儒宮意謂得見若而文士矣無
一個秀才殊可恨也夕飯時自廚房饋生鮮湯而
味極可嘗問于乾糧馬頭鄭文圭灣人為入甚精緊答道
此是方赤為名生鮮彼言瀋陽有名魚品所以每

於此站依例供進余連日闕食得此頗可開胃夕餘

少喫其味一似我國廣魚生鮮甘厚之味猶有勝矣

自入站後此處人以各色毛物來要賣買者小胥支豚皮

皆此地所產紛々往來聒々不息余之同炕人多買賣故也

余則典主婆打話余不工於彼話彼不嫻於我語

所謂問答未免一般啞籠夜深後有一個羸老的漢

子入炕向余二人打箇問訊典主婆態懃說數句話余

問其為誰那婆笑道他是吾的掌櫃的余問其姓名那

漢答道姓李仍出去向余道好睡了余囑那漢坐一坐彼

至三那漢少坐余問道此處有藝粟齋商樓名頭否

彼言那漢頗通文字以書答道有這書本舖書
舖彼言余又問吾們在東時間此兩處多有江南西蜀才
子來遊矣未知今亦有見在者否那漢答道此舖古多
文人才子矣今人多不知古且比來買賣亦異於前遠商
罕到見存者別無可稱者云余於稼齋日記得知此
事擬欲往尋若而人此人之言如是又無可尋之暇誠可
歎也那漢出往又有一女子年可二十三四多少與主婆
自外而入顏色可謂勝雪而兩目俱是偏睛所着亦未
免草草閃入隔壁炕裡余招主婆問他誰的室婦那婆
答道他是隣家室婦憐吾無子獨宿時寄來宿伴夜

余又問他的掌櫃的誰耶那婆女呵的笑道問他甚
麼他是本地地方禮部胥班彼言介也余道唯那婆女之
笑意緊可想矣夜深後服地黃湯余將就睡碩甫
睡已多時那兩女睡在滿炕其所居雖曰間壁無門
扇只以門簾放下無異同炕若使吾輩有甚麼心思
則一夜之間無慮不到而為其夫者放膽出他使其室
婦伴宿異國行人其俗之疎忽可知不然則此輩多
閱我人故為之慢守誘取行人之盤纏耶雖或為此彼
輩初無悅人本的顏兒我們亦無偷香之風情況余則
疾恙方苦同行則睡夢將濃這兩個媿婦之羨痒處

誰能搔得一塘還發一笑也將卧聞滿壁後家有甚麼
 彈琴一般教而靜聽不是琴教余問于主婆答道
 備的太人下處掌櫃的任二郎能彈琵琶這是琵琶教
 也其教一似我國伽椰琴，節調甚促，稍有別意，今夜
 則余身痛少愈，得睡稍多也。當日所經地名：板橋堡
古家子沙河堡暴交哇也近舖火燒自濟至瀋陽五百六
橋白塔堡一所始渾河堡渾河瀋陽也十五里

初六日癸丑自曉頭雪下東麓而心平明軍令瀋陽有城門開開故
 每早入大方身四十五里中火孤家子四十里心宿臨麓
 時本房籠馬頭安景云人收房帳拂破主人任哥之茶

鍾使家先發，余將棄車，那任哥與安隸相持，安隸口裡連聲罵任哥道：「千奴才，萬奴才，那任哥將破茶鍾置余車頭，氣憤的無數，供喝仍背負門扇，緊把住使余不得出門，性淡與任哥抱住相詰之際，余之航主婆子見不是頭勢，好了跟、蹠、的大踏步走出來，叫聲道：「他的破去，彼言備的東西，不干這老爺事，備甚麼緣故，把住不送他出門，那漢方纔開了門，送我與安隸相閱，其後事雖未及知，彼人之吝於物財，有甚於我也。仍出通衢，囑車夫慢、的驅車，左顧右眄，將規城內排布市廛，舖棚之壯麗繁華，可謂小皇城也。街樓屋屋

皆以紋繡金絲雕飾牌額字號金色輝映真箇觸眼
繡晃應接不暇左右路傍或有朱門甲第門外列豎
黑叉木使閒雜人不得擅入此則皆是各司府署云
而盛京有戶禮兵刑工五部皆有堂郎瀋陽將軍
則以皇親大臣欽差都總盛京而其外亦多官員城
內外仕宦人家亦多云行數里許有一座三層門制作
雄偉其門內有行宮云而禁人不入故不得入見又行數里
有三層十字門四面虹霓以十字通路其上起三層
樓其制甚壯直出其門行無多路有一個官人乘太
平車有三個佩環刀的騎馬前導又有四五個從者

亦騎馬攔後無行辟之殺與我行中衆車撞着而亦無
禁爭他自讓路而去比諸我國軒輶出入時鬧動街市
相去遠矣郡車漸近車服甚輝以青天色氈為服色
再以黑羽緞雕飾三面貼付小盤樣大的琉璃視其人
時生得高白體胖年可四十有餘衣着極侈前駕一匹
肥驃鞍具亦鮮明彼俗皆以木鞍駕車并無泥障
諸具而貴人必駕車於好鞍馬云自十字門行二里
餘又有三層門缸電壁楣上刻書外攘門三字此卽
西門也出其門行十數武市廛漸稀人家凋殘又有
一里門與昨日東門外所見里門同制其傍又有關

帝廟自昨日初入門至此統計稔為十餘里也又行數里路右邊有二座非樓非門其制與我國迎恩門彷彿而立柱兩傍皆以甄瓦築上至榱角而止此所謂牌樓也其傍有一座廟宇甚宏門前有無數胡人簇擁又有數個官人驅車而入使性淡問于行人答道這是城外廟堂而今日有拜香公故云那廟右邊有一座大剎即願堂寺也此亦康熙時創建而每使行依例觀光三使臣與一行諸人入其寺守護僧徒皆著黃衣黃帽其言語容貌亦與清漢人有異故問甚麼樣人上判事馬頭答道這個人皆是蒙古地方人也蓋此輩以冒頓

餘種性悍難化故純治間多招諭出家為僧崇佛
講經使之善其心歸化云一行要覩光那僧徒堅
執不許此亦討錢例套使馬頭給錢屢囑才便開門
正殿楣上有額海月常輝四字簷角罩以鉄絲網入
其殿前後左右都是金花彩葉前而放下無數簷
旌皆是各色雲錦緞揭起看時蓮花鍔金繡卓上
一字兒安三位全身佛像軀甚壯大各穿紋錦黃長
衫床卓上排置之物無非玉枝金葩珠盤宝咒甚至
有純金葉子香爐重可為五六十斤雕以雲紋他尚
何說前左右柱面各掛弓袋與橐鞬等物又有兩

個侍者手持鉢鉢左右羅立並未知狀何而佛亦有
兵鬼乎左右兩邊各有坐交倚的金身菩薩其傍各
有金甲神將四個左右壁上各設銷金懸卓前面作浮
欄其上各有金佛九位排布規度極其侈麗庭前又有
無數樓閣而未及盡。現自那寺一行多先詣金亦先行回
顧瀋陽城郭壯哉偉哉清人之樹本固根也方可謂屢
百年金湯之地也聞彼人所言瀋陽城無水門云余恠
問之那人荅道城中有七十二座濠池一城中容水
皆湊及池雖大雨潦漲城中無涸瀆漲溢之慮各
池亦不汎濫云除非東海尾閭則烏能如是耶或云

七十二池各有隱窟通混河其說似然也瀋陽將軍
所統軍兵不下十萬每朔放料銀子幾近百萬其
餘許多經費自北京朔、運來云此處所用亦為半
天下之費也連日山路車行不平才到此地無邊廣野其
直如髮余病自昨宵稍好仍囑車夫快、的驅去車
夫亦欣然而諾一揮長鞭兩畜並力八個馬蹄唳唳
電飛也似望西北而走燕行今日始見快活事也揭
簾遙看茫茫野道坦無碍阻白雪連天冰崖接地此所
謂英珠乾坤琉璃世界仍拈一律有云
不得一匙有云
盡日裏、雷在

地長時役
役雪連天

帶來灣書平安字此地接信豈不奇哉從此以後無路得信益切悵矣蓋送沈萊一缺以助行饑也當

日難後時瀋陽亦有例納方物使二上判事洪貞詰

馬頭張宗周落後照納是日所經地名

塔院方士村
北元橋渡家

子大方身磨刀橋白
邊站神農站孤家子

初七日甲寅晴余病少差開東軍令新民屯三十里中火

白旗堡五十里心宿新民屯即大店村而人居稠壘市

屢蕃盛典鳳城遼東相高下置邊將鎮守云蓋其地與

蒙古相近故為募民居生蠲除徭役不斂賦稅所以戶

口增殖物貨輻湊稱為一大買賣處而每行次阻遠

瀋陽城外曉天低極目平原雪色齊耕馘玉屑車
添轂踏破銀堆馬惜蹄落木無邊迷遠近垂雲
未捲杳東西遙知徑歲還歸路太半冰崖是柳堤
行到大方身即中火所也店舍甚廣人烟爛熳比諸
東八站不翅星淵也自午站催車而行未至十數里
余欲吃烟火鉢見失余難灣時手中兩端係火鉢與
草車每上車輒掛在車屋下站時使今同摘來今日
午站後余置諸客炕未及收來從者亦無意於此
等收拾此行往返見存必無也日將下山時到孤家
子宿站崔相郁後於柵門今日始抵到欣喜無比有

四五六兩重瓶隨量而飲酒盞則小如栗壳以頻為
 度無頻飲法又以糲餅典雜菜渾同喫之最後喫
 餅其餅如我國作酒餅無津氣一似水洗其喫法
 以小碗稍大於茶鍾受喫一盞再受或喫二三碗或喫三
 四碗其咒雖小其喫不下於我國大咒餅凡喫諸食
 不用匙只以木箸攪勻喫過其飲嚙之無序真箇是
 常賤若非此輩必不如是也余與諸人同卓座中要
 喫周菜彼言与予以苾菜細折和猪肉炙以猪油者也有一小猴子指小兒也以
 大碟盛來帶熱喫時其味稍可近口而余則猪肉非食性
 故頗不適胃行中諸人無不善喫士深每道彼人白糲

時馬匹多於此地方買得云也中火車站店舍極大一行諸人將喫餅于前頭廚房其家廣濶裕為數三十間中有三四十座頭每座頭各有長卓凡買喫飲食者必躡坐並卓有十餘個夥計彼言到如我國差人各有一所掌或有賣餅的或有賣麵的又或有賣菜賣肉的小溝壁坑裡有掌置付的放下門簾各以所賣高聲唱傳則那置付的隨賣隨錄無分文相左其法亦綜核我行中百餘名車夫各點床卓酒食淋漓規他喫法先以酒瓶菜碟置諸床上酒瓶皆以鍮蠟造的大小不等皆稱量多少或有一二兩重瓶或有三

餅彼人以真末最可堪喫余問那餅無有那小兒應輒

挈來此彼引言大如小兒拳狀如只角上圓下平或以肉案

或以菜案以糖屑余取一箇喫之雖無別味其淡可

貴造法如我國起蒸餅嶺南多有之以手破之鬆而

不粘一似屑糕余則病餘口味無一適口只喫半枚

而心俄而厨人進餅厨子另將一兜肉湯饋余、共此

漢初無面粉他必謂我有病有此另饋而有一人從

傍見此大有愠色強作笑樣向余道吾亦像甚麼

一作行中兵房令監受此別樣供饋此行中法古

亦如是乎余徐答道行中兵房何必舉此皆如此

乎如余有勢力兵房喫此別供不然則雖百兵房千
兵房末如之何也其人答道誠然則願之無益蓋此人
不必指其為誰與余情分已久且萬里同行又作同
列而余自娘子山連日苦痛朝夕專闕為同行者如
有一分人心則猶恐厨人之不盡心於供饋而以么麼
小小食物凌此慢話反不如厨人之無知良可痛歎也
余不必記其事其人之用意甚不韙故書其事不露其
姓名使後進人必知此行之不得不審慎也午後風氣
甚惡車門未開所經無可記者而至一處暫開車簾
詠遼野一首有云

行復宿之遼野一何長快覩乾坤像偏多日
月光望煙應有店無樹便疑洋霜侵衣帶盡宵
苦不遑

日暮時至白旗堡店村凋殘客炕荒涼夜不能眠余之
寒感復緊此村亦與蒙古接壤風俗梗得間多通婚者
云當夜服地黃湯兩隸之終日隨車達夜守爐非不
知為難而余病頻發不得不如是也那今同有所騎
而任他不騎偏嗜疾走其性癖亦乖常矣是夜炕冷
無寐又拈一律有云

寒燈冷簟不堪留默笑行程我白頭失眠未借

還家夢無酒那消越國愁只仗王靈期六朔空遺

閨怨度三秋直須明棧催膏秣坐薊水碛觸遠眸

當日所經地名

周流河過或秣巨流河有城周流河堡西
店子五道河四方始郭家屯新民屯小

黃旗堡大黃旗堡柳河溝
石獅子營方白旗堡

初八日乙卯晴余病因炕冷大添早飯又闕開東軍

令二道井五十里中火小黑山五十里心宿自宿站緊

閱車門且疼且行至二道井午飯又不能下箸欲湯

飯則水味極惡此站亦一大店村水土甚不佳牛馬

亦不肯飲水云病客將何飲嚙邪午後風氣少心

自數日前向西南行午後則向陽故揭上門簾始

見殘山往，斗起於平原如碁置星羅此是遼東
以後初見山氣也遠望見處有一座大山自東而
北以自北而西逶迤蜿蜒屹如虎踞龍蟠勢若劔
挺旗豎奇乎壯哉此或非醫巫閭山耶問于車夫果
然巫閭山也天抵此山起自女真歷蒙古連亘數千
里直抵山海禹貢所謂幽州之鎮也仍口拈一律有
云

征車凌嶺捲簾看天際巫閭鎮北環萬里來分
山海界千峰屹插斗牛間山斬岩斂得平原勢偃
蹇粧留太古顏歷險徑夷苦無歇此行何日到

平糶關

奈之此行率隸無一人可使今同性淡俱是真案
無偽但欠於伶俐適足為病中添火何幸車夫
真箇是一行中第一老案的人其溫順恭勤已無
可言而憫余有病一路上陪箇小心每驅車之際
每問余平不平曰平則便道好曰不平則憂愁之
色見於辭表慢就程使之安穩每入站兩隸
未得趕上則車中一併行具一照檢運置宿炕
然後就他歇所其將葭亦如是萬里遠役莫此
為幸也將暮時至小黑山碩甫先我入炕使其

馬頭壽福作葱肉湯牛肉黑故多勸余鎮寒余因
寒縮太過喫得數呷再不能近口頭身疼痛肢
末煩疼委席不省連服不換全散二貼達夜吐
苦傷人為之不寐人今同不寐余側每余昏倒時
輒低聲呼令監連叫得苦余於精魂晃的
中有時想起則以若弱貧當此遠役病情若是非
輕且無半刻將息之頃若此不已則慮無所不到也
今同亦頻拭淚輟轉終夜使家猶未知若此之
甚但介瓦數往來焦躁不住夜深後以一哭葛
粉粥來饋五更後暫交睫非夢似夢間得拜先

今此是近年初有之夢事豈非先人英靈護余遠
 行有此夢告耶才覺此夢余之神氣少清因敢
 不眠至明後起而視之衣衾上霜花如雪病安得
 不添哉當日所經地名屯小白旗堡新方一板門靠山
 新店土井子煙台十里五里之間皆有塚始有其築法不一或
 五堆築狀如大瓮其傷作門形上方如覆斗高各四五
 國之置塚塚皆築法以麗間上方如覆斗高各四五
 文其上作塚塚通穴內作單間瓦屋前而刻書其
 營此即斥塚眺望之所也
 初九日丙辰雲陰自將曙時稍有減意而早飯不能
 落肚喫粟米飲一鍾平明軍令中安堡三十里中火
 廣寧三十八里止宿終日下崖或昏或醒至宿站將

下東暫舉病眸巫閭千峯漸近前路山勢尤奇峻
 北有舊廣寧城北鎮廟桃花洞在其下頗有可觀而
 使行每於回還時現光云那北鎮廟即巫閭山靈崇
 奉處自古有名皇明永樂年間勅封巫閭神為廣寧
 王增廟制而尊之其傍有桃花洞水石甚幽閒奇絕
 明時處士賀欽隱居於此自號溶棲今其所居精
 舍尚存云也入宿站炕舍稍安夕飯少喫夜眠地黃
 湯一貼夜深後少睡當日所經地名羊腸河中央堡于家堡朝陽鋪八望
始舊店埋二站子古家子太古
家子焦家店新店廣寧站也
 初十日丁巳晴暄余感症少除喫些早飯平軍令問陽

驛四十里中火石山站或稱十三山自灣至四十里止宿北京至此為半程云問陽驛亦一大店村自此歷路人家多無梁平屋瓦家則或有屋脊草下家則無梁脊又無蓋草平其上覆土以泥灰塗之遠見則如平坵彼人覘光我行者多陟其上如踏平地以外面覘之必多滲漏之患而入其室點檢亦無其弊凡所經路上汲水飲馬之具皆以細柳枝連皮密編或圓或方盛水不洩且久而不破反勝於陶瓦木器之類也輓轆汲水之法井上必植一柱木另造紡車形橫挿柱孔使之自環大繩索懸輓轆左旋而下右旋而上一番所汲洽為一盆其用甚便其功亦倍

又於歷路有人以幾箇柳桶貯水列置路邊每遇
驢馬過去輒引以飲之則看車輩約每匹所飲用一
錢投諸水桶飲馬之法亦輕便矣那十三山卽天
店村而平原曠野有殘山半起其峯為十三南面
開局上有天地中有小菴我人或登覽云此地皆古戰
場天兵十餘萬敗績于此山云日未墜時入店寓碩
甫又先來到壽福方煮葱肉湯此隸為人甚詳緊且
屢塘往來行務頗嫻事我如其至自余病後每當
有肉站則輒作湯勸之其誠可佳也夕餘少喫夜
間店主以一石瓦示余不知其故受而詳看石面上

畫一叢菊葉。画法甚精妙。余問道：此是誰手寫出？
的碩甫道：非墨。画即天生的自紋。余甚異之。以手指
軟漣抹去。再以刀尖刮之。並無見去。店主又以一尾
他石來示。此則又有別一樣。草木形枝幹細勁。宛如
活画。真箇是龍眠手中画出來者。余終不信。其天
生的紋。以兩石相打。剝開裡面。又有他紋現出。形、色
色、無草。不有大抵天地間奇恠之物。極多。化翁用
意誠難測也。但石品甚劣。無可用處。甚恨。此地有
此石。故名曰石山。云是夜又服地黃湯。病餘昏困。
夢事極煩。醒而復昏。而復醒。如是者十餘次矣。當

王平父子勅文勒功之碑那父子勲業略同表碑亦同
故後人稱四同碑云余欲就看其記事車夫道白工夫
彼言則謂不能言。余道甚麼不能車夫道這碑立
在郊原閱幾百年風雨字劃磨洗不能見其事蹟
云其言誠然矣。遂憂過午後站過松山約莫行數里見路傍有
一碑石書官馬塚三字其後有一坯荒墳余問車夫
答道這亦是明時戰馬有功死者埋而表之云而
車夫亦不知馬主之為誰也過杏山七八里路左邊有
一座虛舍以五兩兵車馱在五箇銅造的長物狀鐵
如銅柱其大數圍其長五六把頭東口西其制甚

彼人御畜之法無論牛馬羊猪一人或驅三四五六
十畜生牛不穿鼻馬不銜羈羊豕豚犬亦如之隊
前驅只以一條長鞭揮以御之則羣畜成行而走無
失散之弊况果畜性之異於我東而然耶御法之
工於我人而然耶難化者猪而亦用此法若以我朝鮮
俚語論之其間甚遠矣哉有一東人得一箇猪作圈喂
養被猪跳出圈來東奔西走終日趕上不得喘息死
其叔過而問其故其人氣騰騰的答道這業畜決非
人子所養叔主帝去云其言誠絕倒也以一猪之不
能節制以至妄辱其叔之舉以此推之御畜之法

亦非我人之所及也高橋堡即沿海店村明末女真
據遼東我國使行不能直路而朝自湖西浮海至此

堡始下陸由寧遠入北京云當日所經地名三塔子
秃老婆

店大凌河大凌河堡四同碑獲陽店小凌河堡以
凌河橋西店于松山堡官馬山店山堡十里河高橋

堡也

十二日己未晴余之所患漸快未明軍令連山驛三

十里中火寧遠衛三十里止宿此六十里稱為燕行第

一遠站也瀋陽以後里數與東八站較之無處不遠

此則康熙皇帝奉皇太后幸行盛京行宮以二

千餘里縮為一千四百餘里所以自瀋陽至皇

城道里極迢而此站為尤甚云是日將視塔山所日出
未明起程余則先詣而至自高橋至塔山為一十二
里上三房已先來待使家姑未及到那塔山突起平
原其上築墩台四面有鑿窪濠古址即所謂明將祖
大壽征遼時將台周覽其地形真可謂英雄用武
之地也行人每於此山視日出云是日、氣甚晴日
出視光皆以謂善卜其日將曙時海霧乍翳人
皆病之東望處有一息屹立于海水中俗所稱
田橫嗚呼息也此是古渤海而齊地相近故其
息必在此與陸地相去不過為四五十里多少

日所經地名 興隆店 渡河堡 壯鎮堡 常興店 三台子
 二台子 關陽驛 二台子 三台子 四台子 五

台子 望山
 堡子 三山

十一日戊午晴鷄鳴軍令渡湯店五十里中火松山堡
 二十三里秣馬高橋堡三十六里止宿余之所苦今日
 始得向減曉頭喫些早飯是日即百餘里站凌晨
 起程未明前行三十餘里所過大小凌河皆有名大
 河而天寒成凍且因侵晨未知其何處正行之間房
 馬頭耦耕來告車前道這右邊有四同碑余揭簾看
 之朝日將曠望見一處路右郊原上有四箇碑都是一
 樣余問車夫道這是甚麼碑車夫道那個是明將

也仍感嗚呼古事口拈五律一首有云

嗚呼彼何島如復見齊橫豈有怨天意不更
為主誠一心伏忠義千古流芳名海樹至今
死後人指點行

等不多時海天漸朗瑞光朦朧自嗚呼島東邊
轉出一輪紅日出而復沒、而復出海波濤撞山
光明暗其將出光景雖不若東海之廣濶遙度
浮沈隱見便是一般規光也仍吟七絕一首有云

瑞靄祥雲曉色開六龍駕海轉將來須臾現出
人君像照燭無私遍九垓

恠問于車夫荅道這是吾們地方地碗名紅夷礮也詳問其所用如我國大碗口此是蒙古出沒之地故慮其非時之憂常載車以備每風高時置此處防備北邊風和時驅送海邊看守洋船大抵近日經過皆漢時漠南即千古戰伐之場而天朝之役殺伐最多間或有當時古蹟東人之過此者詎能無感舊之淚乎當日余之神氣漸平追想既往可謂經一場大劫境也苟究病因不過是感寒之症而以余弱質冒此風寒曉夜役此豈非危地乎雖屬既往前途尚遠自不能放心也余自柵至此路見

余之來此於遼野規平地日出與落照亦一奇觀也使
家則追後而至未見其光頻以為恨三行次同至連山驛
中火車站此驛亦一大店村自連山未至寧遠十里路左
有永寧寺。宇荒涼別無可規申後量入寧遠城
堞門樓與遼東相高下由東門入約行數箭前程通街
上有十字門其制與瀋陽所見再由十字南門出行
一里多少有二座石碑樓橫在大路上此是明將祖
大壽四喜勛功表旌門也制度之宏崇雕刻之奇
巧似非人力所及也若言其槩則以四稜長石一字
鬼植四箇柱為三間其長為八九丈其大為數圍

用石獅為礎上以偌大石橫架三間其上設三層
 椽桶使聳其中間如高柱門形狀簷樞窓戶各有
 雕飾或刻十長生或鑄龍虎狻猊之物上層北面豎
 書玉音二字中層橫刻元勛初錫四字下層刻祖家
 四世職帖中間兩邊柱面刻四六一句有云松檟如新
 慶壽塔于
四歲琳琅有赫南面上層亦有玉音二字中層有登壇
賁永言于秋酸烈四字下有四世職帖一如北面兩楹又有照向有
云桓廷登國擬于城之重自上至下無一點土木之役
云絲綸錫罷朝隆銘異之褒都是攻石雕成其高為十餘丈是宣人力之所為者
 乎第二門作法如印一版北面上有玉音二字其下

有廓清之列四字中層有四世元戎少傅六字下層有四
在職帖南面上亦有玉音二字中下層一如北面四在
職帖俱是提督遼東左都督少傅祖鎮祖仁祖
承訓祖大壽凡四在也其門闕功勳可謂天朝在祿
大家褒獎之典吁亦盛且壯矣祖大壽卽天朝名
將也崇禎二年十二月虜兵迫皇城督師袁崇煥
率祖大壽何可剛入援所過諸城留兵守之帝聞
其至甚喜令盡統援軍清人設間使其將高鴻中
於所獲明楊太監前故飛耳語曰今日撤兵意者
袁巡撫有密約頃見二人來見汗語良久而去楊

太監佯卧竊聽之旋縱之遂以此言告于帝遂執
袁崇煥磔之祖大壽大驚與可別擁眾東走毀山海
關出帝恐大壽謀反遂於寧遠城中作此二牌樓表
其家而悅其心後錦州松山之戰祖大樂祖大成祖
大明皆被擒大壽獨守大凌河城被圍糧盡遂引城
降今其牌樓岿然而瀧西之家報潰矣其家世如
此息罷又如如此若當末如之勢則何不赴死於牌樓
之下以全其節為此報降之恥使千萬劫不朽之石
貽羞於後人乎誠可歎哉大壽家在寧遠城內
所居稱文場城外所居稱玉堂今為別人所點西

墻內有數間精舍土人至今指為大壽書所云蓋此
寧遠島東藩喉嗑之地天朝使袁崇煥總督清
祖老兒赤音率十萬精兵來戰崇煥一埋紅羅
砲一夜之間十萬清兵湮沒無餘老兒赤獨於馬
腹中逃命袁崇煥釋之以酒食慰送老兒赤走
上鷄鳴山俯瞰寧遠城池嘔血而去今其坵址尚
存後人謂之嘔血坵鷄鳴山在東門外十里地崇煥被謗遭
形之後崇煥被清人之縱間又為閣寧遠失守清兵
如入無人地境吞食山海竟得數百年一統之業
豈非天耶由牌樓門出城外心宿于店裡夜眠地

黃湯一貼當日所經 朱家店紅旗營塔山所朱沙河

烟台河長椿橋 有錦州西刻書 獲樹堡石

城乾崇嶺乘八里堡東頭始永寧寺寧遠衛

十三日庚申雲陰開東軍令中右所三十里中火中後所

四十八里止宿是日使家將視青墩塔日出雲陰未果中

右所一名即沙河所有城多有破壞處人家市井僅

僅成樣自高橋堡左捷沿海往見海洋是日風氣

甚辛黃埃四蓋行路不宣日將暮時抵中後所市

廛舖棚拍地相接物貨輻湊與新民屯諸處相上下

此地所產毯屬最多我人多實取客店甚廣濶一

行人馬車卜皆入一處路北有閼帝廟陪三使臣

往視威儀凡百雖未及遠東頗有靈驗我人多焚香
抽籤問吉凶禍福而余則無所求不必問福只做觀光
而已夕飯時自廚房備進煎骨此則乾糧馬頭鄭
文圭欲蘇余病後口味別般獻誠也夕後有一個彼
人持一領大虎皮來賣適崔尚郁在傍使之買得則
閩東錢三吊彼言卽唐錢四兩八錢也閩東以一兩六
錢為一吊一錢六分為一百閩內則以五錢為一百五
兩為一吊假令唐錢四分為我錢一分以此計之那虎
皮價為我錢一兩二錢其價甚敬余問其故崔君
笑道此非真虎皮以狗皮染色余乃吹其毛而詳

者真箇是造的其染色之法甚巧雖曰狗皮品極
可用其大為我國狗皮三張假量價亦甚廉故仍作
寢具從此以後可免客炕酒濕之苦矣每使行過
此各人帶平下隸買給總毯以備入北禦寒之具
余亦依他例買給三隸當日午後過望河店無數童
兒荷小筐唱賣甚麼東西攔路爭先即所謂鹽靴
也造鹽如履靴故名車夫輩往往買得藏于車板底
余問道用甚麼車夫答道此是望河店有名的鹽磚
價廉味佳閩內出的都不如此而欲私買以去則入關
之際收稅太過故欲托備們行中之用云我行下隸

輩亦為留節之用各自買去一團價為唐錢二三分

其價至賤也當日所經地名

青墩坊曹家驛七里坡
五里橋中右所乾溝坊

烟坊

河半拉店望
二坊五坊現日出坊

河店曲尺河三里橋東閘驛

三坊于六渡河橋中後所

十四日辛酉雲陰開東軍令亮水河四十二里中火

中前所四十五里止宿今日之行亦左挾海洋瘴

霧發之氣終日不叔中前所亦有城東南角間多堆圮

店舍則在城外也午後站路逢喪樞馱在無屋車

上以雄鷄一首置諸樞上揭紅木數尺於前頭此是

客喪運歸者云而雄鷄載法未知何法自午後巫

閭山勢復奇峻逶迤西走東南回頭有若將盡

之勢山海關想必不遠也自亮水河道路不平東八

站以後復見石路矣當日所經地名一始子二始子三始子

河站獲墩站板橋葉家墳口魚屯亮水河滿井舖前屯衛王家站望江站王濟溝頭封河高嶺驛

小松嶺溝大松嶺溝中前所也

十五日壬戌申陰平明軍令八里堡三十里中火山海關

十里點考海至山海關望海亭十里規光紅花店二

十里心宿自山海關直出紅花店為一十里而由海亭故為三十里未至八里堡數

三里許大路東邊有一石山斗起平原上其上有一座

廟守此所謂姜女廟也姜女姓許名孟姜陝西人

也其夫范七郎赴長城之役死於六螺山夢現其

妻許氏自陝西獨行數千里收其夫屍憇于此處
仍負屍投海其後有石出海中潮至不沒
化為此石或云姜女聞其夫死來到此地望哭
而死化為岩石未知孰是自宋時立廟獎之云三
使臣與一行諸人逶迤而入廟宇甚荒涼其傍多
奇石怪石拾級而上入其廟有一白面女像身穿白
衣手持一封書踏海而立宛然有垂淚被面飲泣悽
絕之狀曉星兩眸現有凝滯未滴之痕此卽姜貞
女而其傍有兩個童子侍立卽其子云龕楣上有
額流芳遠水四字左右柱面有一句聯句刻書者

有云千古無心誇節義一身有死為綱常即乾隆
御題律詩摘聯而使皇子代書以揭者也北壁上
又有而變國俗四字左右皆有石碑所撰而北未
盡記南壁上又有十三皇子絕句一首有云姜女
廟前秋草荒姜女廟上秋風涼突起平原望夫
石遙看海水何茫茫又有七律一首有云松老顏垣見
一祠崩城姜女事堪悲藁砧夢斷成奇節環珮空餘
識舊姿石洒淚痕當日恨水流嗚咽後人思振衣亭
畔悽涼甚尚憶凝眸瞬曼滋余亦走筆續次

秋霜烈日孟姜祠今古何人不作悲貞似松筠

身後節皎如冰玉舊時姿三從有托堪行義一
死無難肯費思東海千年遺恨在粉腮猶帶
淚痕滋

祠後有一座梵宇其後又有一座亭閣此是振衣亭也
傍有岩石嵌空成穴俗稱姜女望夫時升降足跡此則
僅說石面多乾隆御題有云涼風顏樹吼斜陽尚愁
悲敬吊乃郎千古無心誇節義一身有死為綱常由
來此日稱姜女盡道當年哭杞梁長見秉彛公懿
好訛傳是處有何妨又有絕句一首有云當年抗節
塞外風悽悵孤芳附海東一片靈犀通渲漠想他

好合兩相同余又有次

望夫誰作石尤風姜女貞心又海東遺像千秋

含血恨滄波嗚咽古今同

又有乾隆御題一律有云叢祠舊築海山邊善哭偏因
姜女傳金鑄應媿范蠡謫里王昭可比伯夷賢蕭風枯
樹哀絃寫明月清風古鏡懸路便一臨像節義訂謠
意已具前編云乾隆屢過輒題又有道光諸御詩而
未及盡記廟後有三笏裸碑卽萬曆年間所立門外有心
此石三字短碑其傍又有一碑字經磨洗不得見其形
體東墻下有一座樓閣甚頽落不修此是行宮而近

年無幸行故荒之已久云。古稱望夫石云者多，而雖未
得見及到此地，見其塑像，則含恨飲泣之態，宛如
生人。使見者莫不悽然動淚。若使古俗失節之婦
見之，則必不免泄於籟汗於背也。自美女廟至八里堡
，催促人馬將向山海關，行數里許，路右平野中有一
座四方城，與山海關對峙，高可六七丈，周圍數百餘步。
詳察其制度，甚奇且巧，以甄慶作四面，梁上四隅各有
刺稜，外有小甕城，大半見堆沒甕城，入重門，其內可
容七八百人。四壁皆有坎子，如炕突，合為二千餘穴。此則
守直軍兵躲避之暇，四面皆有百餘層階，級為屢

百年人跡所磨，歎仄難行。三使臣興，諸人相扶而上。喘慄慄，余則欲試步蹠之興前，何如揀一人跡罕到之荒階，獨自提衣負手一息而上，傷人多，驚鳥恠。今同典性淡步，戰兢移時而上，誠可哂。周行城上左右，顧眄西北拱山，東南跨海，儼作山海咽喉。西望萬里，長城橫截，巫閭山頂直抵山海，逶迤遵海而盡。此所謂千古安危之地，而英雄必守之所也。或云清人欲窺山海關，一夜之間築此城，非近理語也。萬曆經畧熊廷弼、楊應昌二人費財巨萬，築此城，始以備瞭望，登其上，氣火為號，則千里煙台一時相應。是

地煙台皆於平原廣野築墩台或五里或十里羅列
相望故必於此地築將台以為眾星拱極之勢清
人所築云者是野人之言也自四方城將向城中遙
望城之東北角有數百步破潰處卽吳三桂諉入
清兵之路也崇禎末寧遠總督袁崇煥被刑之
後帝使吳三桂代領總兵守山海關時游賊李自成
逼京師帝召三桂入援三桂率寧遠兵五十萬日
行二十里終到關外子成已陷昌平焚十二陵至
溧河京師已陷子成執三桂父吳襄作書招三桂
襄時在御營總督敵子成不過遂作書寄之三

桂見其父書猶豫未決聞愛妾為賊所逼憤然
而怒答其父書曰父不能為忠臣子不得為孝子
遂屯兵山海關請降于清求共討賊時清祖已死
其弟攝政王代領兵馬時純治年甫九歲清兵遂
入關疑三桂有詐請毀城引兵三桂毀東北城角
數百餘步清兵乃放膽而入與三桂軍合攻令軍
中皆薙髮頭上插鷄毛以表之作魚貫陣進攻賊
兵大敗子成奔永平殺吳襄還京師清兵棄勝
進攻子成焚九門城樓挾太子二王西走清兵
入京師葬帝后以禮崇禎十七年甲申五月初一

日清定鼎于北京改元統治封吳三桂為雲南王
清朝異姓封王獨三桂一人也噫亂臣賊子何代
無之而不孝於父不忠於君者豈有如三桂之甚
者乎使人至此不覺熱血滿腔怒髮衝冠雖然
大明運盡天意如此何罪乎三桂乎或云祖大壽何
可割嬰城東走處不可強解三使臣與一行上下齊
到城外例於入閩之際必點檢通三房人馬無一落
後然後報門于本閩副都統也首譯與任官率上判
事馬頭先去報門而已吳興周出來請行一行次第
而入過一座石欄橋周覽四面城根地廣鑿濠塹

城堞門樓制極宏傑由壅之城入第一門三使臣以下
皆下馬門內右邊有一座廳事前而左右彼人與我行
譯官簇立內有數個官人躡坐交倚此所謂副都統
而見其容兒乳心必也代行者也過第二門有四層
敵樓虹霓門上刻山海關三字第三門亦有三層
敵樓內面上層有額天下第一關五字粉章墨畫法字體畫
卽時俗陣體而無蒼古態色俗稱李斯筆云者非
也秦時有何陣體諸字乎或云朱天使之蕃所寫其
說近之蓋秦始皇萬里長城自臨北至遼東遼東
卽此處也今考其地形則角山寺以上卽其舊城

也角山寺在山海關西北角山盡處為關或云山海關城址為秦時海洋故長城至角山臨海而止其後海水漸退濱地成陸後人續築為五重城其城制亦非舊築其說有理也一說云山海關古榆關王應麟地理通釋云虞之下陽趙之上黨魏之安邑燕之榆關吳之西陵蜀之漢樂地有所可據城有所可守大明洪武十七年大將徐達移榆關於此築五重城名曰山海關太行山北走為醫巫閭山舜封十二山以巫閭為幽州之鎮橫東北為戎夏之界至閭而大斷為平地前臨遼野右挾滄海禹貢所謂挾右碣石者

是也長城從巫閭山逶迤而下至角山往、峯巒
上有墩始自長城盡處由平地行十五里南入于海
也歷入三門市廛之櫛比車馬之喧填人物之繁
華有不可勝記也正行間有一官人乘四人轎旌旆節
鉞左右羅列前有一把紅涼傘必是貴人行色問于
土人答道本閣都司、即二品文官云至第四門即
三簷十字門虹楣上刻威振華夷四字將入其門當先
一行皆停車不進余招車夫問之答道門內有大車
出來相值不得通路使車夫往觀之車夫歸告道
不能、無奈何余道旣然無奈何怎生是好車

夫道他便變通能毀一行皆發蹂冷過一個時辰前車
次之用進余問怎麼變通車夫道他不變通誰能變通
蓋車夫輩為我行看車則每遇彼人車下必掠路多般
藉勢故無論大小車遇輒威喝必使來車退後沿路
車夫或與我行逢着則皆畏憚不敢爭路也將入其
門見俄者撞着大車皆是販油客商的車卜三四兩
大車載無數油籠其大如山桌難變通那油籠即
灣人所云柳光以柳骨編之如我國長盆樣大小不等
大的如屋小的如櫬以紙塗內外或盛酒或貯油而無
洩漏之弊其造法甚奇自閩東販油入北京放賣

云由十字南門約行一里許又有一門出其門人家始
盡行空地止道路甚虛航不平行十許里東南城
角地盡頭有二層樓壓臨海波制度甚荒古而眼界
廣漠萬里洪濤望無際涯天晴日朗則碣石在海中
可以望見云而是日風浪排空海霧漫天不見其處
也一行皆上樓眺望彤襟爽露飄飄如羽化仍吟七
絕一首有云

海外是天外何茫，都是接天波。蓋其為物
如斯大，始識乾坤造化多。

回看樓壁多有乾隆道光與侍臣聯句詩而未及

詳記復下樓其下有二層台上層空地上又有乾隆御
題碑而顛倒在地其傍又有兩碑一則刻一勾之多四
字一則刻天開海嶽四字第下層卽濱海之地而城
址大半堆圮風沙積聚所見甚荒涼也此日風勢甚
悍海氣侵人日力又盡不可久留一行皆下樓少憩于
樓下村舍自廚房備進若干酒棧諸人皆免飢樓
西有龍王廟及一座梵宇而忙未盡覘由城外直向
宿站黃昏時抵紅花店例於此店送各房書者先
入北京彼言修玉河館炕舍一行諸人有北京親知
必寄書使之修炕所入則回還時一發笑還云余則

使崔尚郁作書于義恭參局修副房西二炕房堦
則使書者看造蓋各房禪將所居炕堦書者擔
當修理之節皆自費云午前站姜女廟望山海關
有吟七律一首

山漸低頭海漸回重閣應是此中開姜娘遺廟
千秋屹秦帝長城萬里來北接蒙胡多戎備南通
洋貨阜錢財後人休罪吳三桂天意人心可奈哉

四方城望萬里長城嘆吟二首

秦皇何事信讖言枉築長城殫萬民從古王基不
在險舟中招敵總由人

二世家中萬里城生民屠盡復何營省徐薄賦為

邦本視昔猶今鑒戒明

當日所徑地名

大石橋西水湖老雞地王家庄八里
堡四方城子二里店山海關望海亭

深河五里
亭紅花店

十六日癸亥半陰開東軍令深河驛五十里中火梅寧縣

四十里止宿自紅花店將發三房出令使通三房一行各

其陪行無得先詣此未燭其裡而以若許多人馬入站

之際如無先後之變通則供饋之節一時滾同厨房舉

行反多窘涉畢竟不施乃已那深河驛亦有小城入

店裡聞隔壁人家有風樂毅問于傍人答道彼俗

若當喪則門前設素幛使伶人三時奏樂凡於上食時及受人吊哭輒作樂云此何謬俗耶元時有娼尸法喪家必用樂大明以後嚴禁不行清人又用此法真箇是夷禮也午後日氣少暄捲上車簾將向榆關望見一座山自北而西又南至于海濱起落如龍飛鳳舞之勢又有兩峯對峙如牙笏滿床之狀余甚竒之問于車夫谷道這箇是子山金山而其中最高之峯卽昌黎縣文華峯撫寧在其西昌黎在其北相去為七十里韓文公生此地今其遺廟在縣署間有文翰之士赫世相繼云也余歎曰是哉

此豈非人傑文章必由地靈仍吟一詩有云。

深河前路向榆關恠底奇、海上山間道昌黎生

此地從知鍾毓是天慳

行至撫寧縣亦一大去處城池深固人烟爛熳一行

皆舍于城外店裡車夫即此縣人也其家在西門外

七里許有名細河橋入站後要往其家以如干藥

種等物給送此處有養漢的家媳也行姑中諸人

多往觀或有勸余同去者而余終經重病身家不

淑且萬里行人不必以此等事為心故初不近他以此

觀之吾衰可知也自青石嶺以後所經處無一箇

松遼東闕帝廟典寧遠永寧寺有見一二株蟠
 松入闕後往、有松林而無長大者或者土性不
 宜而然耶風俗不尚而然耶闕內歷路約五七里每有
 一二間土幕壁上寫某縣第幾舖門外必植小黃
 旗寫道護送行旅緝捕盜賊往來相望問于車夫答
 道此是行防守舖幕使土兵輪番守直以防沿路
 意外之患每秋冬排設春夏停撤云今日所過榆
 闕無城堞只有數十人家兩邊有里門此或非黃
 榆古塞乎當日所經地名

寧家嶺吳家堡二十里
 堡霍范家庄湯河堤大
 理營王家嶺鳳凰店望海店深河驛高塔嶺銀子店馬
 棚山石子河榆闕宋家店上白石堡下白石堡吳家嶺

縣梅寧

十七日甲子晴平明軍令獲望堡三十里中火永平府
三十五里心宿是日也天氣如春朝由梅寧城中行將
出西門市井甚櫛比間有仕宦家第宅忠孝旌門比
比有之此城古稱士夫鄉云行十數武路右有一柱
板門橫楣上寫道兩京鑰鑰四字不由其門直向大街
有一座木牌樓寫道總督六鎮四字其下橫書兵部
尚書翟鵬六字街過牌樓約行十餘步又有十字門上
有一層標閣使行則直由其門從大路出西門一行以
車路之不平徑出北門復向西而行入閤以後氣候

與關東絕異。無嚴冬意思。川渠亦多半冰。今年節氣如此。耶地果少寒耶。以圖經所載言之。燕薊在天。下之北素稱多寒。而以今所經歷視之。不然矣。豈屢百年王氣所萃。風土漸變。陽和自煽耶。今日程亦多。山路午後站所經十八里堡。古盧龍塞。昔魏武帝伐烏桓。過此而白龍堆。距此不遠。云申牌時辰抵永平府。此府古右北平。城南十里地。有李將軍射虎石。云故三使臣及一行皆往。規日力不足。復期回還。三行次皆舍于城外店裡。其諸人入城中。規先城高濠廣。亦一雄府。自店舍行數箭程。有一座石橋。頭有壁。築虹霓。

門內有半甕城盤迴而入又有內甕城其內有重
門凡三重門也入其門行百餘步人家相接大路西
邊有石刻七層塔皆用石欄雕刻層層有小石佛
前各有鍾子般風鈴噹的有轂閃過那塔又行數十
步上判事馬頭前道寺入右邊小街至一座門首左右各
有石獅蹲坐之狀門楣上有額敬勝書院四字歷中
門入其內有文昌帝君神位左右有六七配位皆是主司
文衡星宿神君正殿上有正敬堂三字其上又有敬業
樂羣羊四字無他可規復出其門回入東牆夾門有一座
木牌樓丹青頹落可想其年久不修內楣上有鷹揚

二字外楣上有櫺星門三字內三門上有額武廟二字
字體如晦菴筆法此是姜太公廟也正堂前簷下有一
懸板而為風雨所侵中幅朽落無餘只有上下邊幅
上頭有若干點畫如蟬付壁不知其何者詳觀其始
初点畫明是四箇字余典書狀看之相與猜賭余先猜
得第二師字書狀又猜第三尚字余又猜第四父字書
狀又猜第一維字即維師尚父四字也上使笑道兩人
相賭各解二字無勝無負俱可謂才子也入其堂正中
龕裡有一位朱牌以金字刻書周太公大聖神位七
字左右壁下配古今名將各七人左是孫武子張留侯

周亞夫曹彬裴晉公樂毅李靖右是諸葛武侯郭汾陽岳武穆范杲蚺攘苴管仲劉基也正殿龕龕上有見而知之四字內庭左右廡各有古今名將四十二人不可收記三門外有重修碑兩笏皆是明清所立觀光畢日已向昏徑出城門未及詳覽城裡而郡永平卽山西提督府衙門甚高云還歸旅次夕飯纔罷使家有名余卽入謁有一個少書生年可四十內外生得面黃身長踈炕吃烟見余起身作禮余答揖使家道此人卽城內秀才君與他譚筆余書問其姓名其人答道姓武名當志本以山西人來寓於此府云余又

問永平昌黎之間古稱多文章之士今在現存者幾
人那人道古今有異文章未易但稍有文學者計可為
四五人現居京中做官也余又問此府即漢之北平
也城外有李將軍射虎石云有真的可考之跡耶
其人答道現有沒羽之痕苔蝕風磨真跡未詳石
而明刻書李將軍射虎石此是無疑古蹟余覘其
人不過是來討清心丸的再不打話其人道願得貴
使大人寶墨余答道旅館殘燈不可舍君卒臨墨
春天回路當為兄覓呈其人道若然則弟當恭候
行轂出迎於郊余道何須遠勞郊迎其人果討清

心凡使家覓給一箇仍謝去嘗聞此處多如此輩每
使行徃來自稱秀才來討藥種云昨冬使行過此
有一箇不成器秀才乘夜來訪行中下隸牢距不
納因此相詰那秀才使氣來打上房下處門扇其
時上使即李判書落朝也深夜喫驚不勝憤怒使
馬頭徃告于永平知府徑一場官司以至杖配之舉
故今番則無來訪者云余自夕後有咽喉氣連服
地黃湯憫不眠夜深後因月明少步庭際口拈七
律一着聊以撥悶有云

遙夜孤城月色多
閑西征客倍思家
鄉音阻絕

東來雁王事奔忙北去槎強意題詩、亦淡勞心

調病、仍加寒燈旅館難成寐殘角報中驛路賒

是日所徑地名

羊河五里堡盧家店十里塔堡蘆峯口
茶棚菴飲馬河肖陰堡獲望堡吳隄子

店腰站新落嶺二十里堡十八里
堡白沙河駝子槽漏澤圍永平府

十八日乙丑晴平明軍令夷齊廟二十里中火沙河驛

四十里止宿自永平過滦河行十許里有一小城在平

原上西北環山滦河繞其後面城門虹霓楣上刻書孤

竹城三字其下有賢人舊里四字入其城行數十步

有廟宇此是夷齊廟也正門外有木牌樓楣上有額

清節廟三字前而牆壁以大字特書清風百代四字

其西有書賢聖遺墟四字卽隸書牌樓左右各有石碑一笏高可數丈餘左是忠臣孝子四字明陳泰來所書右是到今稱賢四字明李願所書中門上有清風可挹四字左壁上有天地綱常四字右壁上有古今師範四字其外廡額立儒求仁得仁等許多題額不可勝記入其庭松檜側栢渭城柳諸般名木排植有次庭中有五笏石碑皆是明清所立正室仰然中處制度雖無奢麗肅穆清靜真箇是清聖廟也龕卓上有二位塑像儀形彷彿雖未知誰伯誰叔頭戴皐冠身穿袞服揭起黃絹簷子令人瞻仰愀然如見特立不屈之

節此宋真宗祀汾陰駐蹕河東訪夷齊廟祭之徽宗
政和三年封伯夷為清惠侯叔齊為仁惠侯元世祖至
元十八年又加封而致祭大明成化九年命永平知府
奉璽致祭純治以後相繼而崇奉也龔禔楣上有古之
賢人四字左右壁上有清朝列聖御題詩雖不能盡
記只錄其所記者乾隆絕句二首有云孤竹遺蹤古籍
傳至今廟貌依然庶頑立懦清風著叩馬比麟大義
宣其二曰二老昭垂名總正獨夫直斥論終偏得仁何
怨甘恬淡展琴猶吟欽哲賢又有七律云軒冕泥塗
是本腸肯將儒雅污冠裳薇苓依舊西山峙頑懦不

登夫子堂只為心慚蹤異武敢將口案罪歸湯豈爭靡
右還蒲左天下清風盡首陽西壁上又有道光御題七絕
二首其一曰鬼然廟見景前賢兄弟同心義節宣叩馬
精誠貫天地千秋信史美貞堅其二曰崇祠展琴慕高風
立懦厲頑濟世功樂道得仁又何怨浮雲富貴槐堂
余亦敬次一首有云

遺祠瞻謁挹清風仗義扶綱萬世功
忍說當年叩馬事君臣是非水雲空

又自粘七律一韻有

策馬來尋孤竹城賢人舊里儼空楹
君臣大義參

天地日月貞忠屬弟兄求得其仁何有怨樂行斯
道便遺名能令頑懦歸廬之千古高風廟見清

視畢復出廟庭由西墻小門至一室正堂東楣上有額
楫遜堂後有一座龕龕築崇始前面大書清風始三字
其上起一座彩閣左右層階用甃龕尾作三折築上如複
道形前面雕壁尾為欄一行皆拾級而上眼界暢豁一
帶溧河自北而來以巴字形環其兩面始下有奇石
恠石屹立澄潭之上水中又有一箇蟠石狀如築始
俗稱姜太公釣始而再有插釣竿之孔云此則野
人之說孤竹城外有何姜翁之釣始乎不然則當

避紂之時二老俱隱海濱或者相從歟永平府二十
里許有姜太公廟亦未可知也水北岸上有一廟宇
中有一位塑像此則孤竹君之遺像也東牆外有行
宮層樓複閣等在半空制作極侈房闥窓櫺皆以沈香
紫檀花梨之屬雕花鏤草觸目飛驚但駕行已久荒
廢不修額窓破戶雕刻浪藉而猶有餘香襲人視光
者或拾取其木余亦有花梨一小片帶來者宮庭
左右往往有石假山土假山或為風雨所毀或為茂草
所覆墻下又有一小亭棟楹榱刻以竹節窓戶欄
檻雕以竹葉遠々看來恰如一窠綠竹猗々然風動

之狀以孤竹城也故有此竹亭耶若當瀋陽駕行之時則依舊重修云恨不能際其時來玩也周覽絕畢出西墻門尋至一處卽守廟僧所居方丈也有數箇闌闌合手唱喏迎三使臣入炕室余亦隨入東壁上有一幅畫虎西法甚精妙雙瞳閃閃精彩曠發宛如生虎搖尾將鬚之狀西頂無落款雖未知出自何手真箇名画年前東寧都尉以上使過此見此画欲買去因呼價太高竟未得去云當日點心三處皆以薇湯爲之故一行亦皆得喫此則例自廚房備待來此而食蓋不忘採薇故事也中古有我國使行過

此上厨房則有薇採副厨房則無有副使投入乾糧
馬頭猛打一塲那漢出而泣語曰伯夷叔齊與我何
馨使我如是逢打此是燕行有名語也余於尹惠泉
日記得見有云年前過此廟見壁上有壽字卽朱晦
菴刻書南嶽蓮花峯石壁上後人蹋來者而模本
以來云故余到此處四下裡尋覓都不見在星山宗
人亦其時同行之人而今又再來故星山名條人問那壽
字下落亦未詳云無乃惠泉錯記所在耶不然則為
誰人連本取去乎城南小山謂之首陽亦未知其真
的也自夷齊廟雉接路過野鷄垵左右市廛有無

數彼人簇立路傍問是甚麼人車夫答道今日卽此地場市也往有買賣東西其交易之法不似我國場市無紛雜喧譟之蔽此則彼人賣買之法初無貳價各樣東西皆以稱量決價故耳自野鷄地至沙河驛所經野中都是梨栗與桑木桑木排植法如我國種楮每取一年筍摘葉食蚕取皮作紙取骨編笠其編之法不一或大或小或圓或方皆有環柄以便持物其價亦甚歇也沙河驛亦有兩邊虹霓門上三房下處于門外店裡副房舍于門內間家屋處甚狹窄自此以去人

家皆是有梁此地所產身白琰行中多實去當日

所經地名

青龍河南店 深河鴨子河范家店 望夫坨 夷齊廟安河店 赤紅舖 野鷄地 沙

河地張家庄 涉河驛也

十九日丙寅朝陰晚晴未明軍令榛子店五十里中

次豐潤五十里心宿自沙河驛帶月起程行十餘里

有店號七家嶺前後各有壁築虹霓自此望見薊

門烟樹茫茫大野煙樹森々如雲如霧浩無涯際亦

一奇規口拈一詩有云

非雲非霧以堪疑曉色蒙籠未可知待得天明

看仔細薊門煙樹古云奇

未至榛子店一里許有一座護缸霓石欄橋名曰
青龍橋。頭有一廟宇甚修麗有額伏魔大帝四字
必是閻帝廟也。那榛子店有三重門第一門內有小
廟宇扁曰東嶽廟。閭里市舖不甚草。是日即場市也
東西聚集買賣紛紜。雖葱蒜蔓菘果品諸種皆以
稱秤買賣其法甚公平也。自撫寧縣以後沿路最多
果品。山梨砂果葡萄等各樣果。種一箇。便似枝
上新摘來的時果其收藏之法亦云奇。其崔尚
郁以一小筐盛連皮半乾的栗遺余。問此品何
如。崔答道。此是糖水煮出的皮壳甚軟。剥拆至易。

味極甘美云故以手破壳內皮自脫喫之太甘勝於我園
蓬栗也自那店將獲有四五個戴黃帽穿黃衣的胡人
簇擁一輛車兒入店門那車裡坐的胡人亦戴黃帽穿
黃衣生得身長體胖眉目獐獍問于店人答道他是蒙
古客商其車制亦與清漢人所用有異樣亦稍大裡頭
排布極其燦爛後裝以內頭退飾所載東西無疎忽
之處其堅緻亦大勝於他車余詳視其裡面車欄上掛
一青木車定睛看時其車蠕動如生物在內余恠而摩
之不是別物乃一獲野雀馴在其中問于傍人答道彼俗
好馴禽為玩弄之資云催車仍向豐潤申牌時到城外遙

望城堞宏毅壯麗城角上往。有彩樓西閣標飭恍惚三
使行皆舍于城外仍與諸人將向城中觀光從南門入右
狹城根行數箭程城頂有一座二層六稜彩閣此卽文
昌閣也自外門由三折虹霓復道至台上再用石灰築
六面壁面皆皆有出入之門入其內復從雲梯上閣內有
一位金身塑像卽文昌帝君也龕楣上有文德誕敷
四字左右前後有廣行陰陽光暎宸垣薇垣炳蔚如
我存心等扁額南面外楣上有文昌閣三字餘五面各
有四字題額有云桂籍掄英紫極文衡光昭雲漢文
光射斗文耀麗天復從雲梯由城廊而行周覽城制外

高內低廣為數間外築女牆內作壁尾欄四其中通路往
往有水桶北邊數百步地又有一樣二層閣此卽文魁
樓也虹霓壁楣刻書魁樓二字由雲梯上樓有一奇形
塑像一足跨虬龍右手執筆向北斗將寫甚麼字卽
文魁星君典瀋陽文昌閣中所見無異外面南西北
三面各有四字額有云東壁勝光天下文明人文蔚起
下其樓西行百餘步地有太學外門上有豎書禮門
二字堅閉不開內門則制如牌樓作三間中門上額樞星
門三字左有德配天地四字右有道冠今古四字亦不得
開開東邊夾門上豎書儒學二字由其門入殿庭正殿楣

上暨書大成殿三字三使臣行四拜禮一行次第入殿正
面主位書大聖先師孔子神位八字前配四聖後配十
哲退配有子朱文公合十二位殿庭東西廡各有六

十五位東廡上首至中層即康節以上皆題以先賢

西廡上首至層程伊川以上題以先賢其下補先儒

其下補先儒也復出東墻門有一個書生自東邊齋

室出來向三使臣躬身作禮容見端雅服着鮮明

年可二十七八三使臣皆答揖仍問道秀才是誰其

父答道小子即太學教授之子也適父親之出他

未能出迎貴客敢此啓行主人之禮道守三行次及一

行諸人入其室分賓主坐了仍進茶上使書問其姓

名其人答道姓劉本以真定縣人地趙北其父登第除
豐潤太學教授率家來此云上使欲與之筆談其
人只記姓名而不能對以太學教授之子未免馬牛
之裾誠可駭歎上使笑道真個是不成漢子多般戲
辱一行皆哄笑改說間有兩個人扛來一座銅鉄古
鼎此所謂牛鼎或稱夫子所用未詳其真假而形
甚古恠有三足皆鑄以牛頭形所以名牛鼎。腹有
數行篆隸落款頗多難解字有一人來示一紙此則
鼎識膳書者也有云維甲午八月丙寅帝若稽古
肇作宗祀審厥象為牛鼎格于太廟從用享萬寧

神休維帝是宝勿替其永賴或云此鼎為殷時所鑄而宋徽宗北巡時帶來仍置此處亦不可強解又有一座土樽刻以象形施以銅青名曰象樽亦未知造在何時俱是蒼古之物也日暮時一行歸店寓此地多果品葱蒜最佳一本大如三指其味甚甘葷行中下隸多買取以為留館時作菜云夕後使家送饋一箇红柿其大如拳腰細如正色甚紅鮮外樣則極為生新而試啖之皮厚味韃太不如我種唐扇亦為此地方所產云也清初江南才女李文蘭有姿色能文詞清人以珠寶劫來至榛子店自歎其身在壁上題七

絕二首有云堆髻空憐舊日粧
江衫換着越羅裳
爺孃生死知何處
痛哭春風上瀋陽
又書其下道
惟願天下有心人
見此憐而救之
而去
無曹孟德
詭能贖還
蔡文姬
李季娘
即江右才子吳尚卿妻
潘京人王章
京以白銀七十兩買來
朴燕岩之過此題墨未乾

云是日所經地名

紅廟馬舖營七家嶺新店子乾
草河新門烟樹王家店新平店
張家店扛牛橋蓮花池青龍橋棒子店烟墩塔白
草窪鉄城坎牛欄山松嶺河板橋銀城堡五里均豐

潤

二十日下卯晴平明軍令沙流河四十里中火玉田縣

四十里心宿自豐行八里有一河名曰還鄉河宋徽

宗為金人所劫行到此地立馬河上歎曰吾安得與
此水還鄉耶後人仍以名河又行七里有一店、前
有水畚此所謂高麗店也丁母被虜人自成一村
閩東千里無水田而此處獨有餅飴之物或如我
國沿路所賣黃粟餅即此店所尚在前則我人過此
時互談古事或以酒食相待其後我隸輩間多侵掠
或白喫餅酒不如意則威喝毆打無所不至自此以
後每使行過此店人多閉門回避云未及玉田五里許
有龍池菴古有行宮頽圯不修只有空地梵宇則依舊
尚存門上額勅賜萬壽興隆寺云而未及入規那玉

田城堞與人家與豐潤大同此地多產綿花我人多
實用灣人所稱王彈卽此處所產也一行皆舍于城外
副房下處卽姓李之家而以賣車販花為生我人之
來往必舍于其家一行所用彈花則不於他實四五年
間頗能獲財免貧或有我人中他的有親分者宿於其
家則饋餘飲酒初不討價云余之同炕碩甫亦與李
哥有親分行中人或來問碩甫道君亦喫梨否碩甫
答道姑未也余問道喫甚麼梨此處有好箇梨否
碩甫與其人呵呵笑道非真喫梨有吾輩之邊語余
熟思之卽白喫云者不給價空食也彼人以白為

排漢音所云排喫啣叶余大笑夕餘時主人李哥果來

饋熟鷄一首此是俄者云、喫梨余亦喫得梨夕後

本房日傘馬頭

灣人代文致那來
余之所度通者也

亦饋余蒸鷄此

亦是喫梨還可笑也玉田古無終縣無終山在西南燕

昭王塚在其山云一說玉田即召公奭之采邑云也此地

多見白猪甚恠、是日所經地名則

趙家店張家店還
鄉河魯家庄高鹿

店沙子河軟鷄舖新坊李家店沙流河兩水橋兩家
店二十里堡十五里堡東八里堡龍池菴玉田

二十一日戌辰雲陰未明軍令驚魚山店五十里中火邦

均五十里心宿自玉田行十餘里關東雪花亂飛茫茫

野田如鋪白玉果是名不虛得玉田行十餘里房馬頭

耦耕耒告道這西望山凹處特立樹所謂不生不死樹
此去店名所以為大枯樹店也余聞甚怪之問甚麼謂之
不生不死樹耦耕答道聞彼人所傳則那樹之立於此
山不知為幾百劫而不長不縮春不榮秋不落風雨不
得損雷霆不得摧疑其枯死折其枝而見之則宛有生
意故指著道不生不死余尤異之將欲往觀計其未
往則棧為二十餘里且日氣不淑肩頭尚遠不可獨後
只做遙望亦一奇怪事也行至大枯樹店那店亦大村大
明天啓間有宋姓人築堡于此宋為此地大姓數百
宗族皆富饒當明清迭代之際守私城中建三塔

高各十餘丈門上又建樓家後又起四簷高樓最上層安佛像憑欄遠望眼界極闊清人之入關平家保城天下既定不卽出降清人惡之世定罰銀千兩康熙末慮其太過代捧馬草千束城中又有奴婢五百餘家而至今見存者亦多云又行八里許有山如螺壳名曰螺山又七里許有山名梯山層層作塔狀如樓梯蟹山亦如伏蟹形名其店曰蟹山午站入客炕壁上有大幅傑西人物浪藉趙維俊先看一面微有笑余從繼後背後張見此是春圖其形甚恠一行人莫不爭頭余笑道一路上久飢之餘得見西圖中先景如是顛倒

若見真景則必也忘死生也諸人皆笑大抵彼人之昵
於此事推可知矣此何為付塵之物耶午後站路過渙
陽橋望薊州在北邊十數里地而回還時作路必由那
城中云也正行間馬頭又告道這北山頂樹木叢雜之
間有楊貴妃安祿山廟而其下又有石刻男女像云
其言亦未可信或以漁陽為祿山起變之地有此傳
說耶馬頭又告道這西邊一山即盤山那山中有寺
水石甚奇絕回路當覘光云是日、氣陰霾雪意
甚緊仍得一聯有云
天將下雪山雲重
地欲生烟野屋沈 日夕時至邦
均亦大店村也繞入客炕有四五個彼人儀表甚

軒昂服着，侈麗次第入炕，與碩甫欣然作訊或合手叩頭，或執手挽衿俱道：「上太平貴家萬福，皆是彼人例套語也。」又向余唱喏，余亦點頭。唯問那夥人是誰，碩甫道：「均是北京各局掌櫃的。」彼俗稱厘舖謂之局余問緣甚出來，碩甫道：「每於我行將到他們，或出迎于此等地方，漁探潛蓼有無有此，因便獻款也。」那夥人向余問幾塘姓甚麼，余答云：「其中有一個人，生得白淨面皮，身強體弱，眉眸清得，臉上畧有幾根鬚鬚，年可五十內外，教音清細，向余懇懇問道：「老爺與崔尚郁有親分麼？」余道：「備甚麼？」知道那人笑道：「吾便

知道余猛然想起必是義泰仍問道備莫不是崔尚郁
常和我說的義泰局掌櫃的麼那人呵曰笑道是初
塘老爺多明白云諸人與我行中人紛曰說話都是
買賣利害余則只做傍聽還覺沒味余與碩甫伴行
每入站行中人必指碩甫道班曰碩甫看車的輩必稱體
面老爺余初不會意久後知之則那碩甫凡於衣服
飲食必欲侈美故譏之以班曰又多帶蔘貨故車夫
必稱體面碩甫今行所帶紅蔘為三千餘斤云兩說俱堪一笑也每於
出入站余之帶來兩隸欠於爽利或先或後未及
等待常曰貽憂收拾行裝之際兩隸俱不見在則車

夫必督行馬頭事少無厭苦之意傷人或笑他道備
的馬頭當次據彼言車夫笑道吾的真箇馬頭當阿
其人又道備的看車怎麼馬頭當車夫道他的馬
頭初塘之緣故吾的當蓋此人老宗勤幹一路上伏
侍不瑕不思其勞苦故其言若是純真也余將下車
金同始來收手佇立車夫以不好眼看他時使家方
下轎馬頭高聲道陪行馬頭出來各房裨伴帶來下
人各一名輪回陪
行疾轡運動
時使之助力今同以舍粟穀應道車夫哈哈的笑不
合口余問道備笑甚麼車夫喝喝的跳舌道吾的非
笑別人笑他的八不用余亦大笑兩隸之不敏非但

貽憂於我如是見侮於車夫豈不吝哉但俱有忠勤而
欠於伶俐而然也明日即通州一百二十里站將以鷄
鳴前發程云是日所經地名西八里堡黃家庄彩亭橋
大枯樹店小枯樹店蜂山
店螺山店梯山店盤山店二里店現渠三家店
雲田寺翠屏山八里堡漁陽橋東五里堡徐家店

二十二日己巳雲陰鷄未鳴軍令束棧庄五十里未明
中火燕郊五十里辰時量秣馬通州二十里止宿此所
謂未明三飯站若於邦均宿站乘暮入店則未明前三
餅說誠然矣自邦均乘月起程行十餘里有一小店、
後有一座尼姑菴所謂香林寺而純洽御妹早寡為
尼居此菴云庭中有白榦松二株東人所
謂倭松高各數十丈

所以又名白榦寺店名亦云白榦店也未明時至東
林庄店舍狹陋無可歇處與兩隸尋至廚房亦不
知在那裡路左有二燈照處柴扉半開逗遛而入至
炕門外咳嗽有一個歹漢大踏步踰將出來大喊道備
的甚麼人見今天色未明突入他人的內室耶口裡喃
喃罵罵若將撞打之狀性淡低聲叫屈道吾們要尋廚
房錯認到此備休絮絮那漢答道備們廚房在這邊茅
三棚子被言快去尋余不勝慙忿與兩隸尋至那家
炕舍極廣我行二堂洪士心與其同行先到已喫飯將
欲先行余道令則夕飯後即棧耶何如是早登洪道

此店若後人則吃飯亦難故早一起程此炕甚熏令
亦坐此催餅旋即先詣仍先去余方討飯之際一行
皆來到此地菁根品佳厨人帶生來饋同行皆剥
喫而余則服地黃故不能近口此店故多養漢的家
有姿色頗善唱者亦多北京商賈與我行譯商往
往出沒調戲云而行路甚忙夜尚未曙亦難往覘余則
以無見為定也自東林至燕郊朝日初曠那燕郊堡
卽鎮將所居店舍前後兩邊有甃築方門。上設小
小閣帝廟兩門同制店舍則未免草。與諸人入糶舖買
一甃糶療飢仍催車而行未牌時抵到通州此二十

里亦有名與他處四十里同三使臣與一行直向東門外將觀光南邊船隻此是通州白河而與海水相近南船陸續往來無論某樣東西自南京來的必由通州入北京所以通州古稱物產都會處也纔到津頭無數商船如蜂屯蟻聚彌滿浦口周覽其制則與我國船隻判異船蓋上皆以艀板密鋪其上如平地凡載物必揭起艀板則間作桶如我國斗地形駸蓋貯穀無所不便間有船閣如車屋皆有窗戶任其出入或或養鷄犬於艀裡或登屋而鳴或守門而吠簷端往往懸鳥籠大小雖不等其制則都是一樣周行江頭摹然

望見有一座彩閣浮在水面層軒疊欄雕戶紋窓玲瓏
燦爛除非洛城岳陽樓無乃南昌滕王閣耶漸近看
乃一隻樓船也三使臣以下皆從橫杠八般艙詳察其
制其長約為三十餘間船函上鋪板如地上起偌大樓
閣前頭作虹霓門施以丹碧入其間開戶入室外舍內
炕整齊。床卓枕簟如意排布左右窓戶皆以花梨
檀香等紋木形。雕飾付以琉璃四邊作曲欄從後門入
其內此則內室高於外舍一層幽邃安閒更兼明朗洽是
婦女可居又從後門而入即廚房鍋釜水盆一体家伙無
所不備廚房後面又有庫舍為柴炭雜物積置之所

真箇是治產人家排置而外內俱空無現居之人問于上
判事馬頭此是公船也私船吳興周荅道此卽南邊商
船賣貫者而人安於仕宦家往來連家眷裝載或自南
而北或自北而南又或有貴家富戶當暑節則平家貫入
以為避暑之所如我國人之出接江亭云彼人尚侈之俗
推此可想矣其傍又有稅穀船四隻長廣猶如棹樓船
艙板底隔間作庫極其乾淨少無濕漏之慮一船所載
優可為數千石多少也現光畢由東門入城左右路傍各
有三四十間虛棚此則梳穀下陸積置所云約行一里許
又有二層門樓而左右鋪棚稠疊構比路上有千餘駭

載物畜生毛色似黃牛而稍長極廉其面似羊而無角其
額甚尖其目亦似羊而稍細其頸生得乙字形長如野
鶴其胡垂如老牛背有两堆冗肉起峯作天生的鞍其
尾似牛而甚短其足亦似牛連毛多肉而無爪甲其高為
數丈其下為數駄前步似鶴後步如牛其駄卜之法以
大繩索綁住背峯仍以作駄此或非蒙古地方所產橐
駝耶向于車夫果然是駝又看其牽法以一條細皮繩穿
曼尖以一字驅去其步法甚緩似不能致遠脚高步濶
慢就路不後於馬牛之駝。余問此駝如許高大甚
麼駄卜車夫答道這畜曲解人意欲駄則自躡欲輸

則亦然不則無奈何云蒙古人最善御且好喫其肉取
酪而食所謂駱漿是已昔麗朝元人送橐駝使之取
種麗人以謂胡人所畜初不喂養係城外石橋上餓
而死松京所謂橐駝橋卽其地也又行一里許有一座
石欄橋左右以紅木柵環植橋頭有三簷十字門直入
其門市鋪鱗比牌額輝映鏤金施彩眩人眼目東所
西顧應接不暇比諸瀋陽不翅幾倍此所謂南邊物產
都會處也又行數里轉曲西行舍寺路右客店日力尚
高與一行諸人緩步街市相與指東問西嘖嘖稱道未
到北京先見此地繁華北京排布不見可想諸次相携

尋至一處飲食舖，舍穹崇廣大有百餘副座頭各有
床卓鑄鍋釜鼎四面布列餅糲菜果魚肉酒醴色
俱全店小二棟幾副座頭請諸人定坐告道諸位要
喫甚麼諸人道不問甚麼有的便件，拿來那小二先
以六鍾茶四碟菜布諸卓上再打兩角酒浸溫水安
諸床頭雞卵菜彼言川周菜蔴菇菜及月餅以麩末
溫糲亦作糲夫等物次第來進較諸沿路所喫件，乾
淨頗堪落肚各飽喫一頓笑還佻錢此日所費為唐
錢十三兩零云以我錢計之為三兩零也日暮還店夕
飯不能下箸夕後三使臣與一行人往規夜市通州夜
市自古

有名而近則有名無宗云步出通衢各鋪各棚箇、懸燈羊角琉璃秋水風自影諸般彩燈色、照耀街路如同白晝恍然如入廣陵市也周行各鋪或笑錢作貫或按簿考賬皆有條理至一處即烟草鋪也行中人以本京宰相求請要買杭州草問有無那賣草的答有、出示一包草其作包法似我國西草細切亦如之其色淡黃而無津氣得一撮試吸其味太臊反不如我國市草其求請亦出於崇唐癖也夜深後歸寓此處糧品寂佳餽又小歇故一行多預賀云大抵沿路所見大車無物不載而今日所過有見一車載五六十口猪兒連

圈馱去無一穀開闢之弊以此視之畜牲亦必異於
 我國也當日所經地名
 白碯店公樂店段家嶺石碑
 舖浮龍河三河縣
 有城古
 縣東
 親店嶺柳河屯馬起舖遊郊堡
 林庄白浮屠新店皇
 方家庄滕家庄胡家庄
 碧家庄白河通州也

原本 權昌澤 藏

西紀一九四七年九月 謄寫

